

TOO2A790

책임운영기관 2007년

우리는 이렇게 홍보하였습니다



당신의 성공 파트너



대전충남지방통계청
<http://chungnam.nso.go.kr>

I. 신문기사 newspaper story 9

1. 월간통계 경제부문 monthly statistics economic section	11
12월 산업활동동향 및 4/4분기 ('06)	13
12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및 4/4분기 ('06)	17
1월 소비자물가동향	18
1월 산업활동동향	22
2월 소비자물가동향	26
1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26
2월 산업활동동향	27
2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30
3월 소비자물가동향	31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32
3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34
4월 소비자물가동향	36
4월 산업활동동향	37
4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40
5월 소비자물가동향	41
5월 산업활동동향	42
5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44
6월 소비자물가동향	45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46
6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50
7월 소비자물가동향	52
7월 산업활동동향	55
7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58
8월 소비자물가동향	58
8월 산업활동동향	61
9월 소비자물가동향	64
8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68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70
9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72
10월 소비자물가동향	74
10월 산업활동동향	76
10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79
11월 소비자물가동향	80
11월 산업활동동향	84

2. 월간통계 사회부문 monthly statistics society section	85
12월 고용동향 및 4/4분기 ('06)	87
1월 고용동향	90
2월 고용동향	95
3월 및 1/4분기 고용동향	99
4월 고용동향	102
5월 고용동향	106
6월 및 2/4분기 고용동향	110
7월 고용동향	112
8월 고용동향	115
9월 및 3/4분기 고용동향	118
10월 고용동향	123
11월 고용동향	124
3. 연간통계 yearly statistics	127
2007 청소년통계	12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32
지난 10년간 대전충남지역 경제사회변화상	134
2007년 고령자통계	136
2007년 출생사망통계	141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잠정추계 결과	144
4. 통계조사 홍보 statistical research publicity	145
건설업통계조사	146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151
운수업통계조사	154
기업활동실태조사	15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155
사회통계조사	159
사교육비실태조사	160
농어가경제조사	162
사교육비실태조사	164
5. 지역통계 region statistics	165
지역통계 현황	166
통계청-홍성 업무협약 체결	167
통계청-대전광역시 업무협약 체결	169
통계청-중구 업무협약 체결	175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 개최	178
통계청-대덕구 업무협약 체결	181

통계청-충청남도 업무협약 체결	183
지역통계개발 협의체 전문가 회의	186
충청남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187
2007년 지역통계개발 추진방향	191
지역통계 네트워크협의회 개최	194
지역통계개발워크숍 개최	195
2007년 지역통계개발 결과	196
6. 기타 the others.(etc.)	199
시무식 개최	200
서산출장소 준공	201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참가자 모집	204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개최	205
서산출장소 김은수 소장 임명	206
2007년 사업계획	207
어린이통계체험	209
중학생통계경진대회	209
낙도 통계응답자 간담회	211
책임운영기관 혁신성과연찬회	212
어린이통계경진대회	213
중학생통계경진대회 개최	214
중국길림성 통계국 국제통계 협력회의	216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218
어린이통계경진대회 개최	219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개최	221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사	223
중국 길림성 통계국 방문	224
2007년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226
충남교육청 통계정보활용교육	228
모범응답사업체 포상	231
2007년 혁신리더워크숍	231
원유유출 관련 장고도 봉사활동	232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233
II. 방송 인터뷰 broadcast interview	235
2월 소비자물가동향	236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실시	238
2007년 경제사회변화상	242

I. 신문기사

newspaper story

여 백

01

월간통계 | 경제부문

monthly statistics | economic section

여 백

대전충남 산업생산 증가

12월중 전년보다 각각 3.7% · 6.2%

12월중 지역내 산업생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6년 12월 및 4분기 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2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조립금속, 기계장비, 담배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3.7%, 전월비는 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하는 종이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6.5%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섬유제품, 기타제조업,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화학제품, 자동차,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5.5% 늘어났다.

12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음식료품, 조립금속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6.2%, 전월비는 5.3% 감소했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음식료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5.2% 늘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타 전기기계,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4.7%나 증가했다.

/강현준기자

지난해 12월 대전·충남 산업생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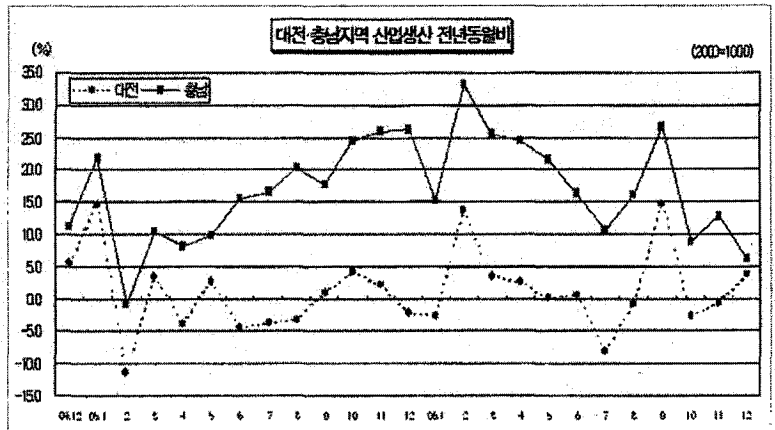
전년 比 3.7% 올라

대전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및 4/4분기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비금속 광물,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은 감소하고 조립금속, 기계장비, 담배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동월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출하는 종이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고, 운송장비,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석유제품, 기타제조업,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품, 자동차,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비 5.5%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산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음식료품, 조립금속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동월비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출하는 자동차, 기타전기 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음식료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동월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고,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타전기기계,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동월비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해용 기자



산업생산 '굉충'

작년4분기 대전충남 산업동향
재고도 각 5.5%·24.7% 증가

지난해 4/4분기의 대전, 충남 지역의 산업생산과 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이 조사한 '2006. 4/4분기중 대전충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이 대전지역은 지난해와 비교해 3.7%, 충남은 6.2%가 각각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에서는 감소했지만 조립금속, 기계장비, 담배 등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 금속, 음식료품, 조립금속 등에서 증가해 6.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이 많은 반면 생산자제품 재고도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섬유, 기계 장비 등의 업종에서 재고가 감소했지만 자동차,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5.5%가 증가했다.

충남은 석유정제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재고가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비 24.7%가 증가했다. /김민영 기자



통계청 산업동향

지난해 말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두드러져 올해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12월 및 4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 지수는 146.9로 11월 대비 3.9% 감소했고, 2005년 12월과 비교해서는 2.3%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향후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경기선행 종합지수 증가율도 줄어 경기 회복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인

경기 겨울잠 계속되나

작년 12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비 3.9% 감소

소비와 투자 침체는 향후 경기 회복에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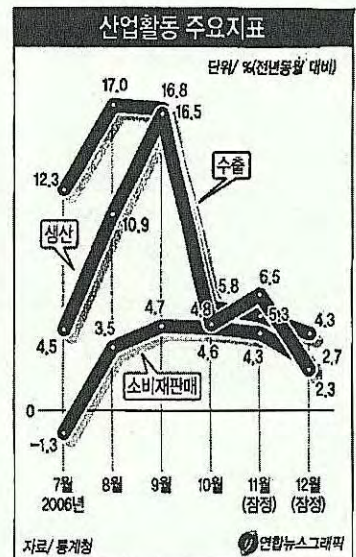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지수는 146.9로 11월 대비 3.9% 감소했고, 2005년 12월과 비교해서는 2.3%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년동월비 증감률 2.3%는 지난 2005년 2월 -7.6% 이후, 전월비 증감률 -3.9%는 작년 2월 -4.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지역의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 6.2% 각각 증가했다.

대전지역은 산업생산 비금속광물·음식료품·종이제품 등에서 감소하고, 조립금속·기계장비·담배등에서 증가했다. 11월에 비해서는 2.7%, 2005년 4분기에 비해서는 0.1% 각각 증가했다.

충남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영상음향 및 통신·제1차금속·음식료품·조립금속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11월에 비해서는 5.3% 감소했고, 전년도 4분기에 비해서는 9.2% 증가했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승승장구

12월 경성판매액 대전 24%·충남 21% ↑
전국 매출증가 주춤 불구 두자릿수 증가

대형 유통점 매출액이 대전·충남 지역에서 눈에 띄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전국적인 대형 소매점 매출액 증가는 주춤했지만 대전·충남 지역은 유례없이 두 자리 숫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31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이 조사한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해 백화점은 25.3%, 대형마트는 24.6%가 증가해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4.1%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은 14.2%, 대형마트 15.6%가 각각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4.5%가 늘었다.

충남의 경우도 대형마트 판매액은 지난달에 비해 16.9%가 올랐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1.8%가 증가했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전체판매액이 7.2% 늘었다.

전국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 6.9% 증가에 그친 것에 비교할 때 대전의 경우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전지역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귀금속류의 구입이 59.7%, 신발 34.7%, 화장품 21% 등 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충남은 가전제품 71%, 화장품 26.9%, 의복 20.5%가 각각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12월중 사업체당 평균판매액은 77억원이었으며, 대전은 90억원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1월중 대전 충남 각각 0.1%, 0.3%

1월중 지역내 소비자물가가 전 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1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중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2005=100)기준로서 채소 및 석유류 등은 내렸으나 학원비, 외식비, 병원진료비 등이 오른 개인 공공서비스와 월세가 오른 집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 보다는 0.1%, 전년동월 보다는 1.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물가 중 주요 상승품목은 굴(16.6), 생화(8.3), 배(7.9), 취업학업비(6.5), 월세(0.2) 등이었고 주요 하락품목은 오이(-18.2), 파(-14.9), 이동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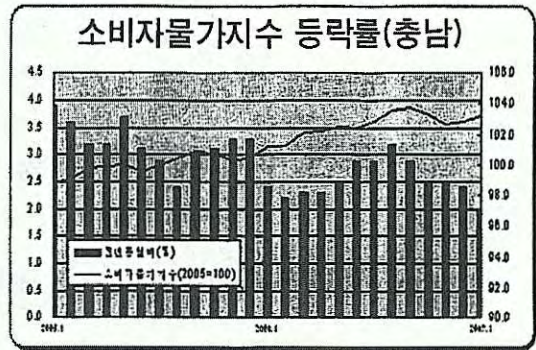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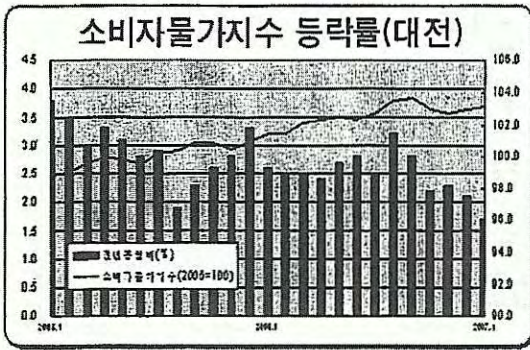
기(-3.8), 도시가스(-2.7) 등이었다.

통계청은 대전지역의 경우, 이 상고은 현상으로 생육이 양호한 채소류의 반입량이 증가해 농축수산물 은 하락했지만 학원비, 외식비, 방송수신료, 병원진료비 등이 오른 개인 공공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보다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2(2005=100)로서 석유류 등은 하락했지만 시내버스료, 병원진료비, 외식비, 미용료, 대입학원비(종합) 등이 오른 공공 개인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는 0.3%, 전년동월비는 2.0% 각각 올랐다.

/강현준기자

1월 소비자물가 전년 比 대전 1.7%·충남 2.0% ↑



통계청, 개인·공공서비스 등 영향 전월 比 1.7% 올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은 급변 1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을 1일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2005=100)로서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및 석유류 등은 내렸으나 학원비, 외식비, 병원진료비 등이 오른 개인·공공서비스와 월세가 오른 집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1% 상승했다.

대전의 주요 상승품목(%)은 굴(16.6), 생화(8.3), 배(7.9), 취업학업비(6.5), 월세(0.2) 등이며 주요

하락품목(%)은 오이(-18.2), 파(-14.9), 이동전화기(-3.8), 도시가스(-2.7) 등이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생육이 양호한 채소류의 반입량이 증가해 농축수산물 등은 하락했으나 학원비, 외식비, 방송수신료, 병원진료비 등이 오른 개인·공공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2(2005=100)로서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2.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등은 하락했으나 시내버스료, 병원진료비, 외식비, 미용

료, 대입학원비(종합) 등이 오른 공공·개인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0.3% 상승했다.

충남의 주요 상승품목(%)은 시내버스료(16.7), 배(11.0), 생화(9.6), 자장면(2.8), 외래진료비(1.9) 등이며 주요 하락품목(%)은 오이(-14.1), 이동전화데이터통신료(-6.9), 등유(-2.9), 도시가스(-2.6) 등이다.

과실류가 오른 농축수산물과 시내버스료, 병원진료비, 외식비 및 대입학원비(종합) 등이 오른 공공·개인서비스 등에서 올라 전년동월비 2.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박해용 기자



대전 방송 수신료 16.7% 충남 토마토 20.7%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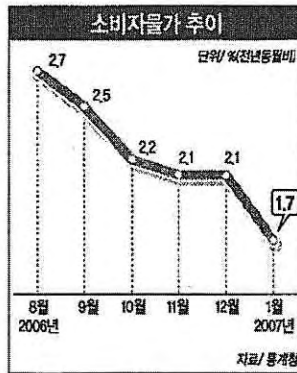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1.7% 상승... 6년만에 1%대

통계청 1월 물가동향

올해들어 지난 한달동안 대전에서는 방송수신료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농축수산물과 집세, 의료서비스,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부문이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동향(전월대비) 분석 결과, 대전에서는 방송수신료가 1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굴(16.6%), 공동주택관리비(2.9%)가 뒤를 이었다. 충남에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토마토로 20.7%를 기록했고 시내버스료(16.7), 외래진료비(1.9) 등의 순이었다.

대전에서 소비자 물가 하락을 주도한 품목은 오이(-18.2)와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6.9), 도시가스(-2.7)이며, 충



남에서는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6.9), 등유(-2.9), 도시가스(-2.6)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충남이 0.3% 올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0.2%)보다 높았고 대전은 0.1%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연초 소비자물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인 반면 집세의 경우 통계상

전세 상승분이 후행적으로 반영돼 2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2%의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을 기록했다. 전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8(2005년 100)로 지난해 12월보다 0.2%, 전년동월 대비 1.7% 올랐다.

물가지수 전년동기비가 1%대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00년 1.1% 이후 6년만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각각 3% 0.8%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서비스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0.3% 올랐고 국제항공료, 공동주택관리비, 보습학원비, 개인서비스 부문 물가도 0.3%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공공요금에 올라 물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온난한 기온으로 석유류와 도시가스 가격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대전 소비자물가 안정세

1월 전월비 0.1%↑... 전국 평균 이하

충남은 0.3%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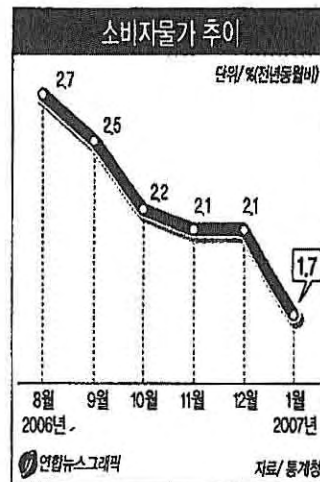
대전, 충남지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12월)보다 0.1%, 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2005년=100)로서 지난 12월에 비해 0.1%,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각각 상승했다. 채소 및 석유류 등은 내렸으나, 개인·공공서비스와 집세 등의 영향이 물가에 반영됐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생육이 양호한 채소류의 반입량이 증가해 농축수산물에 하락했으나 학원비, 외식비, 방송수신료, 병원진료비 등 개인·공공서비스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 7대도시의 전월비 소비자물가는 대전을 포함한 대구, 광주, 울산은 전도시 평균 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3.2로서 전월보다 0.3%, 전년동월비 2.0% 각각 올랐다. 충남도 시내버스료, 병원진료비, 외식비, 미



용료, 대입학원비 등의 공공·개인 서비스가격이 상승했다.

전국 9개도의 전월비 소비자물가는 경기, 충남, 경남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전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로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작년 12월보다 0.2%, 전년동월대비로는 1.7% 상승에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물가지수 전년동기비가 1%대로 집계된 것은 지난 2000년 5월 1.1%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연초

1월 산업생산 증가율 11.8% ↑

전국 선행·동행지수

2개월째 하락

대전충남지역 1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11.8%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적으로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조업일수를 적용한 산업생산 증가율이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07년 1월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 분석 결과, 대전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비 12%, 충남은 11.7% 증가했고, 전월 대비도 대전이 1.7%, 충남이 2.2% 늘었다. 전년 대비 제품재고의 경우 대전과 충남이 각각 11.4%와 1.2% 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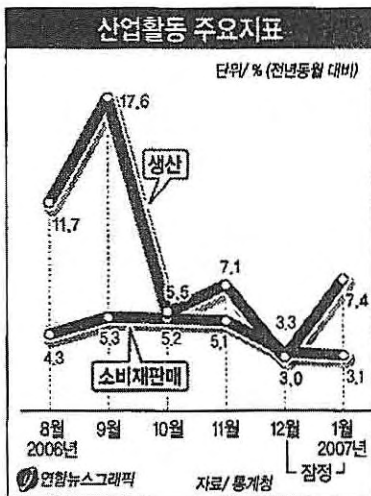
전월 대비는 대전이 6.4% 증가한 반면, 충남은 8.6% 감소했다.

대전의 경우 담배가 44.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살충제, 화장품 등 화학제품이 31%, 타이어 등 고무플라스틱이 14.6% 증가했다. 반면, 의복모피는 24.2%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안경렌즈 등 의료정밀광학기기(22.2%)와 차량용 에어컨 등 기계장비(13.9%) 등도 줄었다.

충남에서는 아연도강판 등 제1차 금속이 52.5%가 가장 많이 늘었고 반도체 장비 등 기계장비 44.6%, 변압기 등 전기기계가 24.6% 증가했지만 자갈 등 비금속광물업은 35.9%, 비금속광물이

경기 '봄은 오나'

전국평균 웃돌아



10.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동월대비 산업생산이 7.4% 늘어났고 전월 대비로는

1.3% 증가했다. 반도체 및 부품(11.4%), 기계장비(17.4%), 화학제품(8.7%), 기타운송장비(22.1%)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해 9월의 17.6% 이후 최고다. 설비투자 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16.0% 늘어나 지난해 9월의 17.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가 2개월 연속 하락했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조업일수 변동을 적용한 생산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1.4% 늘어났지만 2005년 5월의 1.1% 이후 가장 낮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1월 충청권 산업생산 12% 증가

화학·담배·자동차 활발

지난 1월 충청권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보다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28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1월 중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기계 및 장비, 의류정밀 및 광학기기 등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품, 담배,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보이며 1년전보다 12.0% 증가했다.

제품출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늘었는데 주로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충남의 산업생산은 비금속광물광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기타전기 기계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1.7%가 늘었다.

제품출하도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계 및 장비, 사무회계용기계 등의 업종에 힘입어 1년전보다 12.5% 증가했다.

충북의 산업생산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음식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무려 14.3% 나 증가했다.

제품출하도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4.3%) 등 일부 업종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활발한 산업생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나 증가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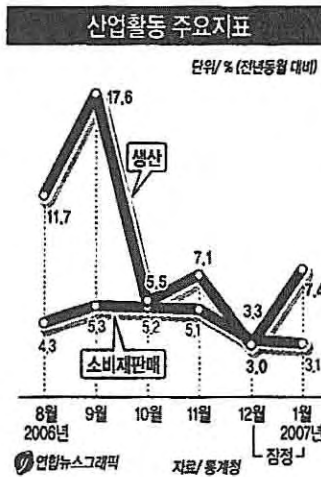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 2개월째 하락... 경기둔화속 대전·충남 산업생산은 '증가세'

통계청, 1월 동향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2개월째 하락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업일수를 적용한 산업생산 증가율은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7.4% 늘어났고 전월에 비해선 1.3%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9월의 17.6% 이후 최고다.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기계 및 장비,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품,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12.0% 늘었다. 지난 12월보다는



1.7% 증가했다.

충남의 산업생산도 비금속광물, 비금속광물광업 등에서 줄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기타전기 기계 등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1.7%, 전월에 비해선 2.2% 늘었다.

전국의 반도체 및 부품(11.4%), 기계장비(17.4%), 화학제품(8.7%), 기타운송장비(22.1%) 등에서 산업생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조업일수 변동을 적용한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늘어났는데 그쳐 2005년 5월의 1.1%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조업일수 적용 생산지수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일부 자동차업체의 파업과 전년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구재숙 기자>

2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

전년 동기비 2.2%·2.4% 각각 상승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7(2005=100)로 전월 보다는 0.6%,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각각 상승했으며, 충남지역은 전월 보다 0.5%, 전년 같은 달 보다는 2.4% 각각 상승했다.

대전지역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석유류등 공업제품이 하락했으나 각급 학교개학과 설명절에 따른 수요증가로 농축수산물이 오르고, 이삿짐 운송료등 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올라 전월보다 0.6% 상승, 103.7을 보였다. 상승 품목은 이삿짐운송료(37.4%),가정학습지(8.3%), 대입단과학원비(6.2%)였으며, 하락은 이동전화 데이터통신료와 휘발류, 경유등이었다.

충남지역은 설명절에 수요가 증가한 농축수산물과 각종 학원비, 외식

비등 개인서비스 부문의 상승으로 전월보다 0.5% 상승한 103.7을 기록했다. 귤(23.9%), 사과(13.4%), 가정학습지(8.3%) 등이 올랐다. 반면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와 등유, 휘발류등은 하락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주요 7대도시의 전월 보다 소비자물가는 대구, 광주, 울산은 전 도시 평균과 같았으며, 대전을 포함한 서울, 부산, 인천은 전도시 평균 상승률 보다 낮았다.

/김환일 기자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

1월 대전 전월比 22%·충남 17% 줄어

대전과 충남지역의 대형 소매점의 올 1월 판매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대전·충남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월 대전·충남지역의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은 21.8%, 16.9% 각각 줄었다.

대전지역 대형소매점의 경상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해 백화점은

32.2%, 대형마트 판매액 12.1% 각각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지난 12월보다 21.8% 줄었다. 전년도 동월 경상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10.9%, 대형마트 판매액은 8.4% 감소하는등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9.3% 줄었다.

대전지역 백화점의 경상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의복, 귀금속, 화장

품, 음식료품등이 20~35%가량 줄었다. 대형마트에서는 가구와 화장품, 컴퓨터 등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 운동 및 오락용품, 의복, 가전제품, 음식료품이 감소했다.

충남의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해 12.3% 줄었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6.9% 감소했다. 전년도 동월 경상 판매액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11.6%,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9.0% 각각 감소했다. 대형마트에선 가구와 담배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과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은 줄었다. <구재숙 기자>



충남산업생산 2년만에 최저

지난달 충남지역 산업생산이 2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대전지역 산업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 충청권 산업생산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월 중 충청권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감소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다.

제품출하도 조립금속, 종이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늘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줄어 1년 전보다 6.6% 감소했다.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3.2%, 올 1월 9.3%로 증가세를 이었지만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충남지역 산업생산은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비 3.4%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충북지역 산업생산은 화합물 및 화학제조제품, 비금속광물,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5.1% 증가했다. 제품출하도 1년 전보다 4.3% 늘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16.0% 나 증가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대전 산업생산 활동 감소세

전년동기비 9.6% ... 충남은 지속 증가세 통계청, 기계·장비·자동차 업종 줄어

지난해와 비교해서 모처럼 회복되던 대전 지역내 산업생산이 2월중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충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2월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담배,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하여 지난해 같은달보다 9.6%, 지난달보다는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산업생산이 지난달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출하는 조립금속, 종이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6.6% 줄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화학제

품, 자동차,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의복 및 모피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하여 지난해같은달보다는 3.4%, 지난달보다는 2.9% 증가했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산업생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제1차금속,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같은달보다 0.9% 증가했다. 산자제품 재고는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타 전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같은달보다 21.9%나 늘어났다.

/강현준기자



2월 산업생산 대전↓ 충남↑

향후 경기예고지수는 3개월만에 증가

대전의 산업생산은 감소했지만 충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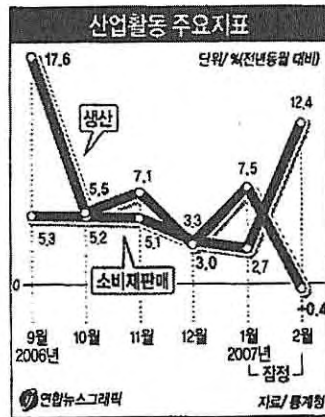
전국적으로는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의 경우 전년동월과 대비해 증가했으며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3개월 만에 증가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결과, 대전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9.6%, 전월보다 3.7% 감소했지만 충남은 각각 3.4%, 2.9%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자동차, 담배, 고무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했다. 제품출하는 조립금속, 종이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영상음향, 통신 등의 업종에서 전년 동월비 6.6% 감소했다.

충남의 경우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에서 줄었으나, 영상음향, 통신, 기계장비,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전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고, 제1차금속, 기계장비, 음식료품,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했다.

전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순환변동치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윤희진 기자



석달만에 증가세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지난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0.4% 감소했고 전월대비로는 0.5%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05년 2월 -7.6% 이후 2년 만에 처음이고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산업생산이 감소한 것은 을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조업일 수가 1.6일 가량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라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1월보다 대전은 3.7% 감소, 충남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증가

지난 2월 대전·충남지역의 대형마트 판매액이 대전이 10.3%, 충남이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2

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해 백화점 판매액은 0.1%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7.6% 증가,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0.3% 증가했다.

또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0.4%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41.0% 증가하여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대형소매점 장사 잘했다

2월중 지난달 보다 판매 12.8% 늘어 대전 전체 판매액 10.3%·충남 15.4%

지역내 대형소매점들의 2월중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2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대형소매점은 지난달인 1월보다 판매액이 1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0.1%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7.6% 증가해 전체 판매액은 10.3% 증가했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0.4%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41.0% 증가해 전체 판매액은 2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대전지역 백화점 경성판매액은 운동 및 오락용품(-15.4%), 가전제품(-4.3%), 의복(-4.6%), 신발(-2.4%), 귀금속(-1.6%) 등의 판매가 줄어 전월비 0.1% 감소했고, 가구(-34.0%), 가전제품(-22.9%), 가방(-10.2%), 의복(-5.9%)

업종의 판매 저하로 전년 동월비 0.4% 줄었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경성판매액은 화장품(3.6%), 운동 및 오락용품(5.2%), 가전제품(6.7%), 의복(8.0%), 가구(13.0%), 음식료품(25.7%)의 판매호조로 전월비 17.6% 증가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41.0%나 판매가 급증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19.5% 증가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36.1% 증가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8.6% 판매가 대폭 늘어났다.

충남지역의 대형마트의 판매를 주도한 상품군은 주방용품(16.5%), 화장품(18.7%), 의복(19.8%), 음식료품(23.6%)으로 조사됐다.

/강현준기자



교육비, 물가상승 주도

3월 소비자물가 대전 0.6% 충남 0.7% 올라 유치원비 9.4% 사립대등록금 7.1% 각각 최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가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결과, 대전은 지난달보다 0.6%, 충남은 0.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유치원비가 9.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사립대등록금 6.2%, 휘발유 3.2% 등이었고, 충남은 사립대 등록금이 7.1%로 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보육시설 이용료 7%, 휘발유 3.6%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비가 지역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락한 품목은 대전의 경우 딸기(14.3%)와 돼지고기(3.4%), 도시가스(2.3%), 충남은 호박(25.1%)과 딸기(19.4%), 도시가스(2.2%)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교육비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계속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에 비해 0.6%,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2% 각각 올랐다. 각급 학교의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가 지난해 3월에 비해 2.6%, 개인서비스가 3.3% 각각 올랐다. 납입금 상승률은 유치원 9.3%, 고등학교 4.2%, 전문대학 7.5%, 사립대 7.5%, 국공립대학교와 보육시설이용료 9% 등이었다.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2% 올라 2004년 1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세는 전세가 올랐지만 월세는 보합을 유지해 지난해 3월에 비해 1.7% 상승했다. 이는 2004년 5월 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농축수산물은 배추(-64.3%), 파(-61.7%), 무(-45.1%), 닭고기(-17.3%) 등은 크게 내렸지만, 감(51.7%), 귤(48.8%), 감자



(38.6%), 배(30.8%) 등 과실류는 크게 올랐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0%, 생선, 채소, 과실 등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올랐다.

/윤희진 기자 heejin@

대전·충남지역 소비자 물가 다소 상승

대전 2.2% · 충남 2.3% ↑

지난 3월 대전·충남지역의 소비자 물가동향은 전년동월비 대전이 2.2%, 충남이 2.3% 각각 상승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3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2005=100)로

서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2.2%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석유류제품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각급 학교납입금, 학원비 등 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올라 전월비 0.6% 상승했

고, 지역별로는 주요 7대도시의 전월비 소비자물가는 광주,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대전을 포함한 서울, 대구는 전도시 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이며, 부산, 인천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또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2005=100)로서 전월비 0.7%, 전년동월비 2.3% 각각 상승했다. / 박해용기자



3월 산업활동 대전 ↓ 충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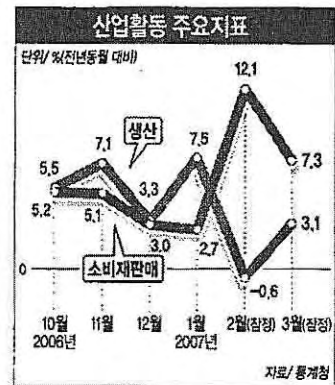
전년동기보다 각각 5% 줄고 5.9% 늘어

올 3월 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반면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밝힌 '3월 및 1/4분기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조립금속, 담배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계 및 장비,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감소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2% 감소했다. 반면에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대전의 경우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증가했다. 충남



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조립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9% 증가했다. / 박종명 기자



대전 산업생산 주춤

지난달 대전의 산업생산은 주춤한 반면 충남과 충북의 산업생산은 지난해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3월 충청권 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5.2% 줄었다.

충남지역 산업생산은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 전기기계,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달 대비 5.9% 늘었다.

충북지역 산업생산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7% 늘었다. 출하부문의 1년전보다 2.8% 증가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대전 · 충남 산업생산 희비

지방통계청 발표, 지난해비 대전 감소 충남 증가 대전 전년동월비 5.2% 하락 지난달비 1.5% 올라

3월중 지역내 산업생산이 지난해보다 대전은 감소한 반면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3월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조립금속, 담배, 자동차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5.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1.5% 증가했다

산업생산이 증가한 업종(단위 %)으로는 조립금속(25.9), 담배(6.0), 자동차 부품(3.6)이었고 감소한 업종은 기계 및 장비(-32.7), 화학제품(-16.7), 영상음향 및 통신(-6.9) 등이었다.

제품출하는 조립금속, 종이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고, 기계 및 장비, 가스업,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2.7% 줄어들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음식료품, 기계 및 장비,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화학제품, 담배,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3.4% 증가했다.

3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 전기기계,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5.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달보다는 2.2% 줄었다

산업생산이 늘어난 업종은 영상음향 및 통신(10.6), 기타 전기기계(15.3), 제1차금속(21.2), 음식료품(6.4)이며 감소업종은 자동차(-6.7)와 화학제품(-6.2)으로 조사됐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계 및 장비,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8%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조립금속, 제1차금속, 기타 전기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2.9% 늘어났다.

/강현준기자

대전 0.7% 늘고 충남 6.8% 줄어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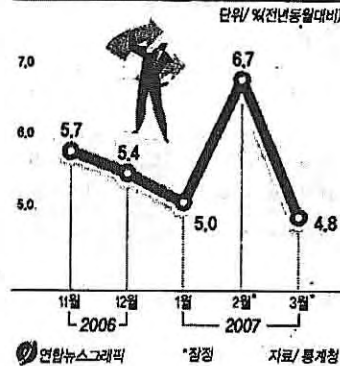
대전·충남지역의 지난 3월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대전은 0.7% 증가한 반면 충남은 6.8% 감소했다.

3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3월 대형 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은 전월에 비해 백화점 판매액이 11.3%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은 6.3% 감소하는 등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0.7% 늘었다.

충남지역은 전달에 비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12.6% 줄었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6.8% 감소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 경상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2.6% 증가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4.7% 늘어나는 등 대형소매점 전체판매액은 9.0% 증가했다. 충남지역도 1년전에 비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9.3% 증가했으며, 백

서비스업활동지수 추이



화점을 포함한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3% 늘었다.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3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설 특수 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3월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8% 늘었다. 이 증가율은 작년 10월의 3.4%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인 2월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1.2% 감소했다. <구재숙 기자>

대전지역 백화점 판매 증가세

3월중 지난달보다 11.3% 늘어

지역대형소매점 중 대전지역백화점들의 판매가 지난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3월중 대전충남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3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11.3%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6.3% 감소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 등 대형마트의 판매는 줄어든 반면 백화점들은 판매 호조를 보인 것이다

전년 동월 경상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2.6%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4.7%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9.0% 증가했다.

대전지역 백화점들의 판매가 증가한 이유는 가구(17.8%), 의복(18.1%), 신발(33.0%), 가전제품(6.1%), 화장품(11.1%), 귀금속 등

에서 판매 증가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지역 할인점 등 대형마트 경상 판매액은 전월비 6.3% 감소했는데 화장품(-28.0%), 담배(-18.2%), 음식료품(-12.6%), 가방(-12.2%) 등의 판매 저조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3월중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12.6% 감소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6.8% 감소했고, 전년 동월 경상 판매액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9.3% 증가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이 줄어든 것은 주방용품(-19.2%), 가구(-18.5%), 음식료품(-13.3%), 의복(-9.3%),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강현준기자

대전·충남지역 판매동향 백화점 ↑ 대형마트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3월 대전충남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3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11.3%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6.3% 감소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0.7% 증가 전년 동월 경상 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2.6%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4.7% 증가하여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12.6% 감소하고,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해용기자

4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104.6로 작년 比 2.2%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4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2005=100)로서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2.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영향으로 축산물이 내린 농축수산물엔 하락했으나, 석유류와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영화관람료, 대입학원비(단과)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올라 전월비 0.3% 상승했다.

한편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05=100)로서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주스, 라면 등 출고가격 인상과 석유류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외식비, 학원비, 보육시설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등에서 올라 전월비 0.5% 상승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은 주요 7도시 서울이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으며, 인천은 전도시 평균과 같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또 전국 9개도의 동향을 보면 충남이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 박해용기자

4월 대전·충남 산업생산 회복세

투자지표도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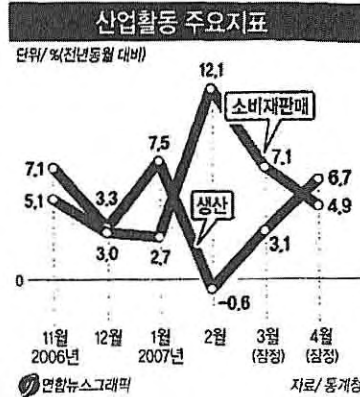
대전·충남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이 회복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등 투자 지표도 호조세를 나타냈다.

현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각각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

대전·충남통계청이 밝힌 '4월 대전·충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보다 대전은 4.7%, 충남은 13.7%의 생산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자동차, 조립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해 지난달과 지난해 4월에 비해 0.9%, 4.7%가 각각 늘었다.

제품출하는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그러나 담배, 화학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4월에 비해 9.6%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감소에 보 불구하고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지난달과 1년전에 비해 6.2%와 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품출하는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고,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4.5% 늘었다.

전국의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전월에 비해서 3.1% 각각 늘어났다.

(구재숙 기자)

대전 산업생산 올 들어 처음 상승

4월중 담배업종 힘입어 지난해비 4.7%

충남은 증가 꾸준... 전년동월비 13.7%

지난 4월중 대전지역내 산업생산이 올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고 충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담배, 자동차, 조립금속, 고무

무밧플라스틱(2.7) 등이며 감소한 업종은 화학제품(-13.7)과 기계 및 장비(-3.5)였다.

제품출하는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화학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6% 증가했다.

4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13.7%, 전월비는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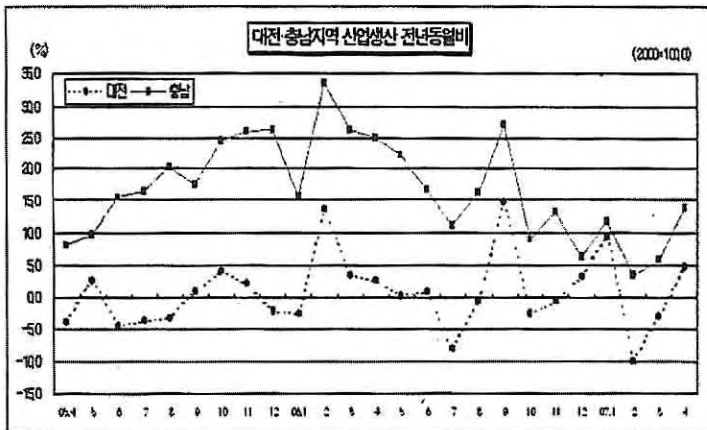
충남지역 증가업종으로는 영상음향및통신(20.7), 기계 및 장비(35.0), 제1차금속(38.3), 음식료품(7.0) 등이며 감소한 업종은 화학제품(-4.2)과 사무회계용기계(-14.5)였다.

제품출하는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석유정제품 등의 업

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4.5% 올랐다.

대전통계청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4월중 산업생산이 올들어서는 처음으로 상승했다"며 "지역내 각종 경기지표들이 4월부터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준기자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해 올들어서는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의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4.7%, 전월비는 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 0.9% 늘어 난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했지만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산업생산이 증가한 업종으로는 담배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비 3.0% 줄었다



충남 4월 산업생산 13.7% 증가

대전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4월 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이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지난달보다 6.2% 각각 증가했다. 생산자 제품재고는 제1차 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대전지역은 담배, 자동차, 조립금속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지난달보다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생산자 제품재고는 담배, 제1차 금속 등에서 늘어났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감소했다.

한편 전국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지난달보다 3.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경기회복 기지개 펴나

대전·충남북 산업생산 늘고 재고 감소

충청권의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이 그동안의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전의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으며, 충남 산업생산도 3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충북의 산업생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생산과 제품출하가 늘고 재고는 감소하는 추세가 대전과 충남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산업생산과 제품출하가 늘어도 재고가 함께 쌓이는 추세

여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쉽게 낙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충청권 소비가 다소 주춤하고 있고 산업생산의 등락폭이 크지 않아 확실한 추이는 상반기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4월 중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과 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자동차, 조립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7% 늘었다.

이에 따라 제품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늘었으며 생산자 제품 재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3.0% 줄었다.

충남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줄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 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13.7% 늘었다.

이에 힘입어 제품출하도 1년 전보다 14.5% 늘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도 같은 기간 5.5%나 감소했다.

충북의 산업생산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7.2%나 늘었다.

/임호병·박현호 기자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 조사 발표

조립금속·플라스틱 생산 다소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올해 4월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대전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자동차, 조립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4.7%, 전월비는 0.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출하는 음식료품, 기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화학제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6%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고

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3.0% 감소했다.

한편 충남지역의 경우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사무회계용기계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3.7%, 전월비는 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웅 기자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대전 줄고 충남 늘어

지난 4월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대전은 감소한 반면 충남은 약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전·충남통계청이 밝힌 4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5.9% 감소했으며, 충남은 1.9% 증가했다.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7.6%, 대형마트 판매액은 4.5% 각각 감소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5.9% 줄었다.

지난해 4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5.3%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10.8%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3.4% 늘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을 전월대비 대형마트 판매액이 6.3% 늘었으며,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9% 증가했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에 비해서는 대형마트 판매액은 14.1% 증가했고,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8.8% 늘어났다.

(구재숙 기자)

5월 소비자물가 전년比 2.3% 상승... 안정세 전셋값은 2004년 이후 최대 상승

대전·충남북 물가지수 소폭 올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공공서비스요금과 집세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3%, 전월보다는 0.1% 상승한 104.6을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의 5월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1일 대전·충남 통계청이 밝힌 5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대전 104.8, 충남 104.9, 충북 105.0으로 전국 평균(104.6)을 상회했다.

대전지역은 지난 4월보다 0.2%, 지난해 5월에 비해선 2.2%가 각각 상승했다. 수박, 참외, 갈치 등이 내린 농·수산물과 이사 성수기가 지난 집세 등은 하락했으나 석유류 제품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도시가

스, 영화관람료 등 공공·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올라 0.2% 상승했다.

주요 상승품목은 마늘(14.6%), 가루비누(14.1%), 돼지고기(7.9%), 티셔츠(5.1%), 도시가스(3.7%), 휘발유(2.6%), 경유(1.5%) 등이었다. 대전은 인천, 울산과 함께 전월 대비 7대도시 평균(0.1%)보다 높게 상승했다.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05=100)로서 전월과 같았으나, 전년동월에 비해선 2.3% 상승했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티셔츠, 석유류 등 출고가격 인상 영향으로 오른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 부문이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주요 상승품목은 가루비누(14.4%), 마늘(10.1%), 티셔츠

(5.1%), 도시가스(3.6%), 영화관람료(3.0%), 휘발유(1.6%), 경유(1.6%) 등이었다. 충남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천안 105.0, 보령 104.2, 서산 105.2로 조사됐다. 충북 전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0(청주 105.0, 충주 104.9)이었다.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로 올해 2월 2.2%, 3월 2.2%, 4월 2.5% 등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5월 소비자물가 중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상승,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섰다. 집세는 월세가 보합을 유지했지만 전세가 전년 동월에 비해 2.3% 상승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1.8% 상승했다. 전세의 상승률은 2004년 5월 2.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구재숙 기자>



5월 산업생산 6.6% 증가

선박·반도체 등 호조 덕분... 투자증가세는 둔화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반도체메모리, 선박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생산 증가로 전월 대비 0.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각각 증가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5.1%로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지난달(100.6)보다 0.2%p 내렸다. 설비투자는 사무용기기, 일반산업용기계 등의 투자호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했고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발주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7.9% 늘었다.

건설기성은 민간부문이 다소 위축된 반면 공공부문이 호조를 지속,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증가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민간부문 수주가 감소하고 공공부문 수주 증가율이 둔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충청 산업생산 두달 연속 상승

충남 5월 19% 급증 두각

충청권 산업활동이 두 달 연속 질주하고 있다.

28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5월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8.2% 증가했다.

대전 산업생산은 지난 4월 4.7%로 증가세로 전환된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제품출해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늘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같은 기간 9.0%나 감소했다.

충남지역 산업생산도 1년 전보다 19.1% 증가하며 지난 4월 13.7%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제품출해도 전년동월비 15.1% 늘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12.5%나 줄었다.

충북지역 산업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늘었으며 제품출해도 8.3%나 증가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대전 · 충남 산업생산 다소 증가

전년비 조립금속 대전 8.2% 충남 15.1%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이 지난 5월중 대전·충남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 28일 발표했다.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인쇄 및 출판 등에서 감소했으나, 담배, 기계 및 장비, 기타운송장비, 조립금속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8.2% 증가, 전월비는 4.6%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기타제조업,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담배, 종이제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8% 증가, 생산자제품 재고는 제1차금속, 담배,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화학제품, 비금속광물공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음식료품, 기타전기기계, 제1차금속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9.1% 증가, 전월비는 4.7%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기계 및 장비,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음식료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5.1% 증가, 생산자제품 재고는 제1차금속,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용 기자



대전 대형마트 잘 팔았다

5월 판매액 전월보다 4.0% ↑ ... 백화점도 소폭 증가

대전충남통계청

대전지역 백화점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5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4월보다 0.4%, 대형마트 판매액은 4.0% 각각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2.5% 늘었다. 이 중 백화점은 5월 중에 560억

5700만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595억8000만원)에 비해서는 5.9% 감소했다. 반면에 대형마트는 816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0억6800만원)에 비해 10.3% 증가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5월 중 대형마트 판매액이 4월에 비해 0.9% 감소했으나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종명 기자 parkbel@



대전 대형소매점 판매 늘어

5월 중 지난달보다 2.5% 규모

대전지역내 대형소매점들의 판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5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5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0.4%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 역시 4.0%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동월 경상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5.9%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이 10.3%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9% 늘었다.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0.9% 감소했지만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0.6%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이 11.0% 증가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강현준기자



물가 소폭 상승

6월 대전·충남 2.4% 충북 2.7% 올라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4%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해 9월 2.8%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6월 충청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공동주택관리비, 외식 등에서 오른 개인서비스와 섬유제품 등 공업제품에서 올라 전년동월비 2.4% 올랐다.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월 2.8% 이후 10월 2.2%, 11월 2.3%, 12월 2.1%, 1월 1.7%, 2~5월 각 2.2% 등으로 줄곧 안정세를 보이다 지난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품목별로(전년 동월비)는 피망(49.4%), 오이(29.1%), 스낵과자(13.0%), 보습화원비(5.3%), 전세(0.4%) 등은 올랐으나 이동전화기(-28.8%), TV(-21.4%), 갈치(-15.8%), 참외(-6.8%), 월세(-0.3%) 등은 내렸다.

생활필수품 1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0% 상승했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하락했으나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에서 올라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 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2.0% 상승을 기록한 후 2월 2.4%, 3월 2.3%, 4월 2.6%, 5월 2.3%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품목별로는(전년동월비) 열무(31.6%), 자동차용 LPG(10.0%), 공동주택관리비(3.1%), 전세(2.2%) 등은 오른 반면 이동전화기(-29.2%), 아이스크림(-22.7%), 토마토(-19.0%), 월세(-0.4%) 등은 내렸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충북지역의 소비자물가도 1년 전보다 2.7%나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0.1%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상승률(2.5%)보다는 0.2%나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과일(21.9%), 개인서비스(4.0%), 공공서비스(3.0%) 등 대부분의 조사 품목이 크게 오른 반면 축산물(-0.6%)은 내려 대조를 이뤘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충남 산업생산 호조

작년보다 19.2% 증가

지난 6월 대전의 산업생산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 늘었으나, 충남 지역은 무려 19.2%나 대폭 증가했다.

3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자동차 등의 산업생산이 증가한 반면 고무, 플라스틱, 사무회계용 기계 등은 감소했다.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담배,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4.6% 감소했으나 전년 2/4분기에 비해선 4.9%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비금속광물공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비 19.2%나 증가했다. 지난 5월에 비해선 0.1% 증가했고, 전년 2/4분기에 비해선 17.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생산·투자 등 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절조정을 거친 산업생산 지수는 159.6으로 5월보다 1.9%,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7.6% 각각 늘었다. 작년 동월비 증가율 7.6%는 지난 4월과 5월의 각각 6.8%, 6.7%를 웃도는 수준이다. <구재숙 기자>

산업생산 증가 호조세

전년 비 대전 1.9% · 충남 19.2% ↑ 제품출하 각각 7.1% · 5.7% 감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담배,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비 1.9% 증가, 전월비는 4.6% 감소, 전년동분기는 4.9%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기타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종이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3.6%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

산은 사무회계용기계, 비금속광물공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9.2% 증가, 전월비는 0.1% 증가, 전년동분기는 17.3%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비금속광물공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타전기기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5.9%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제1차금속,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용기자

충청권 경기 살아나나

3개월 산업생산 활발 재고 줄어

충청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산업생산이 활발하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줄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생산 증가세가 약하고 플러스 기조에서 변동이 심해 경기회복에 완전히 과관불이 켜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지수이다.

3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6월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의 산업생산은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담배, 음식료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대전의 산업생산은 지난 4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5월 8.4% 등 3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으며, 제품 재고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감소했다.

충남의 산업생산도 지난달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등에서 늘어 같은 기간 19.2% 늘었으며, 재고도 5.7% 줄었다.

충남은 지난 4월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5월 19.1%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충북도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5.3% 증가했다.

제품출하도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증가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늘었다.

하지만 생산자제품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8.4%나 증가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대전 6월 산업생산 곤두박질

지난달보다 4.6%↓
충남은 0.1% 증가

6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이 5월에 비해 큰폭 하락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계절조정을 거친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28.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서는 1.9% 증가했으나 5월에 비해서는 4.6% 감소했다. 이는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담배,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충남지역은 사무회계용기계, 비금

속 광물광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2%, 5월 대비 0.1% 각각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6월중 산업생산이 액정표시장치,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5월 대비 1.9%,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6%가 증가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명기자 parkbell@

충남지역 산업

지방통계청, 6월중 지난해比 19.2% 증가

대전 소폭 늘어... 전년동분기 4.9%상승

지역내 6월중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대전은 소폭 증가한 반면 충남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6월 및 24분기 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담배,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월보다는 4.6% 감소했고 전년 동분기보다는 4.9% 증가했다. <표 참조>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괄호안은 %)으로는 기계 및 장비(17.0) 조립금속(24.5), 담배(9.9), 음식료품(14.2)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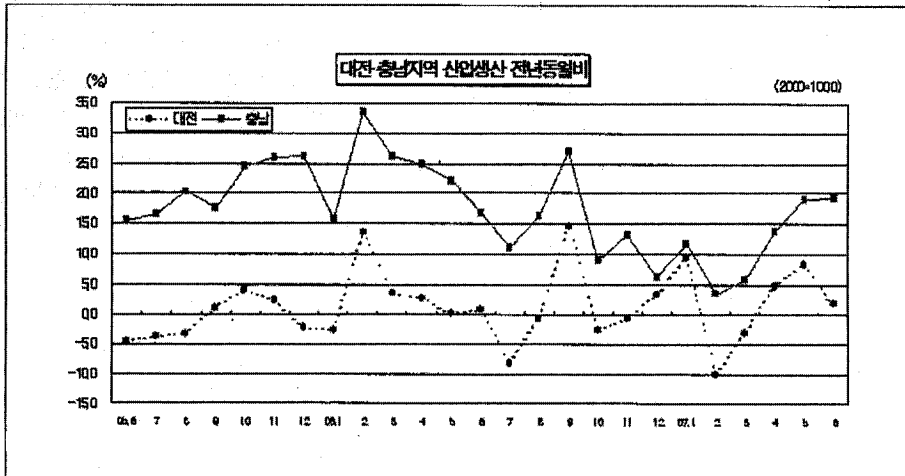
며 감소한 업종은 고무및플라스틱 (-5.9), 화학제품(-8.0)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출하는 기타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종이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 전년동월비 3.6%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7.1% 줄었다.

6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비금속광물광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기계 및 장비 등에서 증가해 전년

생산 고공비행



동월비 19.2%나 큰 폭으로 늘었다.
충남은 전월비는 0.1%, 전년동분기는 1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비금속광물 광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기타전기기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5.9%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제1차금속 기타전기 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고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감소,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비 5.7% 줄어 들었다.

/강현준기자



대형소매점 6월 판매액 증가

대전·충남 작년보다 각 10.2·8.9% 늘어

전국 서비스업 생산 7.5%

6월 서비스업 생산이 4년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의 올 6월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10.2%와 8.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은 전월에 비해선 7.4% 감소했으나 지난해 6월보다는 10.2% 증가했다. 지난 5월에 비해서 대형마트 판매액은 0.1% 늘었으나 백화점 판매액은 17.8% 감소하는 등 대형

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4% 줄었다.

또 지난해 6월에 비해 백화점 판매액은 2.8% 감소했으나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의 19.7% 증가 영향으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0.2%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6월 대형소매점 경상 판매액은 전월비 10.1%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비는 8.0%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8.7% 증가 영향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8.0%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6월에 비해 7.5% 증가세를 기록했다. <구재숙 기자>

지역百 6월 매출 곤두박질

판매실적 460억... 전달비 18%↓

6월 중 대전지역 백화점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460억8100만원으로 지난 5월(560억5700만원)에 비해 17.8% 감소했다. 이 같은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한 규모며, 지난해 8월 42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상품군별로는 통신기기만이 증가했을 뿐 대부분의 상품이 감소를 면치 못했다.

대형마트는 이 기간 중 818억1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5월에 비해 0.1%,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9.7%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충남지역은 대형마트 판매액이 5월에 비해 6.7% 감소하는 등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명 기자 pakbel@

대전·충남 대형소매점 매출 전년 比 9.0%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도·소매업 중 대형소매점의 소비 및 경기 동향 분석과 지역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소매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전·충남지역의 전 사업체의 판매동향을 매월 파

악해 발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6월 전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비는 9.0%가 증가했다.

또 6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7.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비는 10.2% 증가했다.

전월비 대형마트 판매액은 0.1% 증가했으나 백화점 판매액이 17.8% 감소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4% 감소했고 전년 동월비는 백화점 판매액은 2.8% 감소했으나, 대형마트 판매액의 19.7% 증가 영향으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해용 기자

지역내 대형 소매점 매출 급감

대전·충남 6월중 전달보다 7%이상

지역내 대형소매점들의 6월 매출이 지난 달보다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6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6월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7.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비는 10.2% 증가했다.

대형마트 판매액은 0.1% 증가했지만 백화점 판매액이 17.8% 감소,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4% 감소한 것이다.

6월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10.1% 감소했지만 대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월비는 8.0% 늘었다.

대형마트 판매액이 6.7% 감소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0.1% 줄어든 것이다.

한편, 백화점 상품 중 판매가 감소한 품목으로는 가방(-48.4%), 가구(-25.9%), 화장품(-24.2%), 음식료품(-18.9%), 의복(-16.0%), 귀금속류(-15.9%), 신발(-12.6%), 가전제품(-9.6%), 운동 및 오락용품(-7.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준기자

소비자물가 상승... “장보기 겁나요”

물가지수 대전 2위·충남 3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에서 2, 3, 4위를 각각 기록했다.

1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1위인 울산(105.8)에 이어 대전(105.5)과 충남(105.4), 충북(105.2)이 나란히 그 뒤를 잇는등 전국 평균(105.0)을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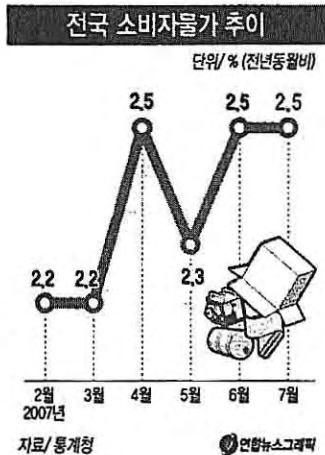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본분류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록했다.

대전의 물가지수는 지난 6월보다 0.7%, 지난해 7월보다 2.7% 각각 상승한 105.5로 나타났다.

이는 장맛비와 무더위 영향으로 산지출하가 감소한 과채류, 휘발유·경유·LPG(자동차용) 등 석유류 제품이 오른 공업제품의 영향이 컸다.

또 상수도료·도시가스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와 공동주택관리비·단체여행비(해외)·튀김닭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부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품목은 포도(90.3%), 배추(73.0%), 무(58.8%), 상수도료



(8.0%), 금반지(7.2%), 도시가스(2.6%), 공동주택관리비(2.1%), 경유(1.5%), 휘발유(0.6%) 등이었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전안 105.5, 보령 104.6, 서산 105.5)로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4% 각각 상승했다.

장맛비와 무더위 영향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과채류 등이 오른 농산물과 등유·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이 오른 공업제품, 도시가스·숙박료(호텔) 등이 오른 공공·개인서비스 부문의 영향

을 크게 받았다.

주요 상승품목은 포도(81.8%), 배추(61.1%), 무(26.2%), 닭고기(13.3%), 단체여행비(해외)(9.6%), 금반지(4.8%), 돼지고기(3.6%), 도시가스(3.4%), 경유(1.1%) 등이었다.

충북의 물가지수도 105.2(청주 105.2, 충주 105.3)로 경기도와 전국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전체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공공·개인서비스 물가가 급등하면서 생활물가가 들쭉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비로 1월 1.7%, 2월 2.2%, 3월 2.2%, 4월 2.5%, 5월 2.3%, 6월 2.5% 등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예 비해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보육시설이용료(9.0%), 가정학습지(8.3%), 공동주택관리비(4.1%) 등을 중심으로 1년새 3.1% 가량 올랐다. <구재숙 기자>



대전지역 물가 들썩

7월 2.7% 상승·충남·충북은 안정세

대전지역 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대전의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올라 2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7월 충청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품목별로는(전년 동월비) 배추(84.3%), 포도(43.9%), 감자(37.0%), 금반지(11.6%), LPG(자동차용, 11.1%), 상수도료(9.9%), 커피(9.2%), 공동주택관리비(6.8%) 등은 올랐

다. 반면 토마토(-26.4%), 이동전화기(-25.5%), 갈치(-24.6%), 조기(-15.0%), 쇠고기(국산, -1.7%) 등은 감소했다. 충남의 소비자물가는 전국평균 2.5%보다 0.1%포인트 낮은 2.4% 상승에 머물렀다.

계절적 영향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은 하락했지만 원재료(자재) 가격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 섬유제품 등 공업제품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54.1%), LPG(자동차용, 10.6%), 금반지(9.0%), 여자구두(7.3%) 등은 올랐으며 고등어(-23.9%), 숙박료(호텔, -18.9%), 아이스크림(-13.8%), 돼지고기(-6.4%) 등은 내렸다.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4% 올랐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식품(5.1%), 교육(7.8%), 가구·집기·가사용품(3.6%) 등이 크게 올랐으며 교양·오락(-1.3%) 등은 감소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2007년 7월 대전·충남지역
전월 比 각각 0.7%·0.5%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대전이 105.5(2005=100)로서 전월비 0.7%, 전년동월비 2.7% 각각 상승, 충남은 105.4(2005=100)로서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2.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주요 상승품목(%)은 포도(90.3), 배추(73.0), 무(58.8), 상수도료(8.0), 금반지(7.2), 도시가스(2.6), 공동주택관리비(2.1), 경유(1.5), 휘발유(0.6) 등이며 주요 하락품목(%)은 생화(-26.2), 토마토(-17.1), 감자(-14.1), 바나나(-12.3), 양파(-10.2), 가방(-5.0), 수박(-4.0), 마늘(-3.6) 등이며, 충남의 주요 상승품목(%)은 포도(81.8), 배추(61.1), 무(26.2), 닭고기(13.3), 단체 여행비(해

외)(9.6), 금반지(4.8), 돼지고기(3.6), 도시가스(3.4), 경유(1.1) 등이며 주요 하락 품목(%) : 피망(-28.4), 수박(-15.0), 생화(-10.3), 노트북컴퓨터(-9.9), 마늘(-5.8), 가방(-3.5), 쇠고기(국산):-2.9, 쌀(-0.7)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주요 7대도시의 소비자물가 동향은 전월대비 대전, 부산, 광주, 울산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으나 인천, 서울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대구는 전도시 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또 전국 9개도의 전월비 소비자물가 동향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전도시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으나 충북, 경남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기, 강원, 제주는 전도시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해용 기자

7월 산업생산 호조

대전 작년보다 11.3%·충남 29% 늘어

대전·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이 두 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비해 대전은 11.3%, 충남은 29.0%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조립금속, 영

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비 11.3% 증가했다. 지난 6월에 비해서는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지역도 사무회계용기계, 나무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9.0% 늘었다.

지난 6월에 비해서는 7.2% 증가했다.

한편 전국 7월중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절조정을 거친 산업생산 지수는 162.9로 6월보다 2.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늘었다. <구재숙 기자>

경기회복 속도 낸다

7월 산업생산 충남 29%·대전 11.3% 상승

작년보다 제품출하 크게 늘고 재고는 줄어

7월 대전·충남지역의 산업활동이 울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활기를 띠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125.4로 6월에 비해서는 1.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 11.3%는 지난해 9월 14.6% 증가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는 고무 및 플라스틱,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조립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한 때문이다.

제품출하도 활기를 띄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9.6% 감소하며 각각 울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감소율을 보였다.

충남지역의 산업생산도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기타전기기계 등에서 크게 늘어 6월에 비해 7.2%,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9.0%가 각각 증가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景氣 살아나나

산업생산·제품출하 4개월째 상승세 대전 제품재고 30개월만에 가장줄어

6월까지만 해도 충청권 경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회복조짐을 보였던 각종 지표들이 7월 들어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충청권 경기에 청신호를 켜다.

산업생산과 제품출하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잇고 있으며, 제품재고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생산 증가세는 플러스 기조에서 변동이 심했으나 7월에는 뚜렷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것으로 나타나 경기 청신호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울러 대전지역 제품재고는 3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충남지역 제품출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29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7월 중 충청권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11.3%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14.6%(전년동월 대비) 증가 이후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으로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조립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증가 영향에 힘입었다.

제품출하도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16.9%늘었고, 제품재고도 30개월 만에 가장 줄어든 9.6% 감소를 보였다.

충남지역 산업생산도 1년 전보다 29.0%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33.6% 증가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기타전기기계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출하는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재고도 같은 기간 7.1%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충남은 LCD관련 산업이 활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전도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산업활동이 왕성해 지난 7월 각종 지표들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7.7%나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제품출하도 8.2% 늘었다.

반면 생산자제품 재고는 7.5% 증가했다. /임호범 기자

대전 산업생산 전년 比 11.3% 증가

충남 29%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조립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1.3%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 1.4%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의복 및 모피,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조

립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6.9%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담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나무제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기타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9.0% 증가했고 전월비는 7.2%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3.1%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전기기계,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비금속광물 기타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해용 기자

지역내 산업생산 큰 폭 증가

7월중 대전충남 각각 11.3%·29% 늘어

7월중 지역내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7월중 대전충남 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조립금속,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는 11.3%, 전월비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출하는 의복 및 모피,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6.9%나 늘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담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 전년동월비 9.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도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기계 및 장비, 기타전기기계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는 29.0%, 전월비는 7.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3.1%나 증가했다.

/강현준 기자

대형소매점 경성판매 전년 比 4.1%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007년 7월 전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비 3.1% 증가했고 전년 동월비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 동월비 전체 판매액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 동월비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해용 기자

‘이사철 전셋값’ 물가 앞질렀다

8월 대전 물가 1.9% 상승 불구 2.2% 뛰어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 기간을 맞아 지난달 충남지역 전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8월 충청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던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이달 들어 다소 주춤했는데 품목별로는 피망(29.9%), 고춧가루(13.5%), 미역(13.1%), 금반지(7.8%), 전세(0.6%) 등은 올랐지만 토마토(-40.8%), 배추(-24.7%), 노트북컴퓨터(-20.6%), 이

동전화기(-18.4%), 월세(-0.4%) 등은 내렸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4% 올랐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7%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값이 전년 동월대비 2.2% 올라 소비자 물가가 평균을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상추(11.6%), 장례식장이용료(10.7%), 공동주택관리비(8.4%), 금반지(7.7%), 전세(2.2%) 등은 상승했지만 토마토(-43.5%), 아이스크림(-14.9%), 등유(-4.7%)은 내렸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늘었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충청권에서 가장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교육(7.8%), 가구집기·가사 용품(4.3%), 외식·숙박(3.0%) 등 대부분의 조사 품목이 상승한 반면 통신(-1.7%), 교양·오락(-1.2%) 등은 내려 대조를 이뤘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나 올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지난해 比 대전·충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8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2005=100)로서 전월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고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005=100)로서 전월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역은 개인서비스 부문

은 하락했으나, 장마와 무더위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채소류 등에서 오른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이 상승해 전월 대비 0.0% 수준이고 장맛비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한 축산물과 수산물이 내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공·개인서비스와 공업제품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농산물과 휴가철 장맛비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한 축산물이 내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상승해 전월 대비 0.0% 수준이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 박해용 기자

8월 중 지역 소비자물가 전달과 비슷

포도·고구마 등 가격 하락

8월중 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달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3일 발표한 '2007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생맥주, 단체여행비(해외), 공동주택관리비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하락했지만 장마와 무더위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채소류 등에서 상승한 농축수산물과 가방, 금반지, 석유류 등이 오른 공업제품이 상승해 지난달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대전지역에서 물가가 오른 품목(%)은 상추(48.7), 열무(47.1), 호박(44.4), 참외(25.3), 수박(19.2), 배추(9.6), 가방(5.3), 경유(2.3), 도시가스(1.2), 휘발유(0.2) 등 이었고 내린 품목(%)은 포도(-27.4), 고구마(-19.6), 무(-19.2), LPG(자동차용:-5.2), 생맥주(-4.2), 단체여행비(해외):-2.6, 공동주택관리비(-0.8) 등이었다.

충남지역도 복숭아 등 농산물과 휴가철 장맛비의 영향으로 소비 감소한 축산물이 내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지만 금반지, 싱크대, 가방 등 공업제품과

공동주택관리비, 장례식장이용료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상승해 전월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에서 물가가 상승한 품목(%)은 상추(49.8), 수박(10.9), 싱크대(7.0), 장례식장이용료(5.9), 금반지(2.8), 공동주택관리비(2.7), 경유(2.3), 등유(2.2) 등이었고 하락한 품목(%)으로는 포도(-34.5), 고구마(-16.2), 무(-11.4), 복숭아(-9.5) 등이었다. / 강현준 기자



해마다 이맘 때면 김치값이 금치값으로 치솟는다.

왜냐하면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여름에 잘 자라지 않는 저온성 식물로 강원도나 비교적 기온이 낮은 지방에서 생산돼 공급되고 있지만 물량이 소량이고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물류비도 한 몫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같이 비가 잦은 해에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짓무름 현상이나 생육 부진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생산과 출하 작업도 원활치 못해 공급량 부족현상이 일어나 채소류 값이 꺾충 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배추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8월 배추값은 예상과는 달리 7월 대비 전국의 전도시평균 3.8%, 대전 9.6% 충남 5.6%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전국 25.6%, 대전 24.7%, 충남 36.5%

독자기고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지혜로운 소비가 추석물가 안정

로 오히려 각각 하락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은 과잉 재배에 따른 저장용 배추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김치냉장고 등 냉장기구의 활용증가로 장기간 김치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배추값 등 채소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각 가정에서 여름철에

먹을 김치를 충분히 담가 뒀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비자의 지혜로운 선택은 지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이 전월대비 전도시평균 0.1%, 대전·충남 0.0%로 물가안정에 기여했음을 직접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레용품 또한 치솟을 건 뻔하다.

추석 전 대부분의 과일은 덜 익은 미숙(未熟)과일이다.

어려서 덜 익은 미숙 과일을 먹다 탈(脫肛)이나 병원 신세를 저본 경우를 생각하면 알 것이다. 추석 성수기 특수 수요를 노린 일부 농가에서 조기 출하를 위한 무리수로 상품성(당도 등)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을 출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우선 차레용품으로 쓸 소량만을 구입하고, 선물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먹을 것은 비교적 가격이 싸고 먹기에 안전한 대체식품(소고기 대신 닭고기 등)을 사거나, 추석명절 뒤로 미루는 지혜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2007년 8월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대전·충남 모두 '증가세'

(8.3%) (21.8%)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8월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은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음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8.3% 증가하고 전월비는 2.5%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기타운송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종이제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4%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담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8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1.8% 증가하고 전월비는 0.9% 감소했다.

제품출하는 석유정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1.7%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기타전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6.2% 감소했다. /박해용기자



대전·충남 산업활동 기지개

생산·출하량 증가...충북지역 침체 지속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 등에서 활발히 전개돼 경기침체 늪을 탈출하는 양상을 이었다.

반면 충북 산업활동은 생산과 출하가 미미했고 제품재고도 늘어 대전충남지역과 비교됐다.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8월 충청권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음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신 등

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비 8.3% 늘었다.

제품출하도 1년 전보다 9.4% 증가했으며 제품 재고도 자동차, 조립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13.4% 줄었다.

대전의 산업생산은 지난 4월 전년 동월대비 4.7%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5월 8.4%, 6월 1.9%, 7월 11.2% 등으로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산업생산은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21.8% 늘었다.

제품출하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7% 증가했으며 제품 재고도 6.2% 감소했다.

충남의 산업생산은 지난 7월 29.1% 이후 2개월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충북 지역의 산업생산과 제품출하는 같은 기간 3.5%증가에 그쳤고 출하도 0.4% 느는 것에 머물렀다.

제품 재고도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증가해 1년 전보다 15.4%나 늘었다.

/임호범 기자

대전충남 산업생산 큰 폭 증가

8월중 지난해보다 각각 8.3% · 21.8%

8월중지역내 산업생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8월중 대전충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음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에서 감소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신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는 8.3% 전월비는 2.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하는 기타운송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종이제품,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9.4% 증가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담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비 13.4%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21.8%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남은 전월비는 0.9% 감소해 대전과 대조를 보였다.

제품출하는 석유정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제1차 금속,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1.7% 늘었으며 생산자제품 재고는 기타전기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고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6.2% 줄어들었다.

/강현준기자

9월 지역 소비자물가 안정

대전 2.2%·충남 2%... 전국 평균 못미쳐

지난달 대전과 충남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년도 동월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2.3%)에 못 미치는 2.2%(대전), 2.0%(충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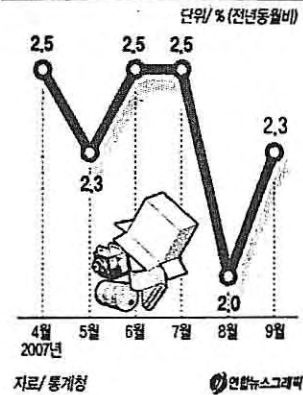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에 비해 0.4% 상승한 105.9로 나타났다. 상승품목은 파(51.1%), 배추(37.1%), 도시가스(6.2%)였으며, 하락품목은 포도(-25.9%), 돼지고기(-4.6%), 휘발유(-1.1%)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로 전달에 비해 0.5% 올랐다.

상승품목은 호박(55.4%), 배추

전국 소비자물가 추이



(41.1%), 도시가스(6.2%)로 나타났다. <구재숙 기자>



9월 소비자물가 '추석특수' 없었다

대전충남지역 소비자 물가가 9월 들어서도 여전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태풍과 잦은 비 등 기상환경과 한미FTA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을 비롯한 금반지 등 공업제품, 도시가스 요금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3%p, 충남 역시 105.9%로 전월 대비 0.5%p, 전년 동월 대비 2.1%p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지수가 105.7%로 전월 대비 0.6%p, 전년 동월 대비 2.3%p 상승한 점을 감안할 경우 다소 낮은 수치로, 대전충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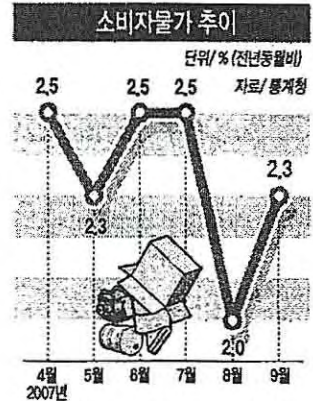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지수가 대전의 경우 전월 대비 3.5%, 전

전월비 대전 0.4%p · 충남 0.5%p 소폭 상승 태풍·호우 등 날씨 탓... 농축수산물 값 올라

년 동월 대비 0.9% 증가를, 충남은 전월 대비 3.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를 각각 기록한 가운데,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지수가 하락해 한미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양상을 보였다.

주요 농축수산물로는 포도와 구마, 돼지고기, 배 등이 전월 대비 감소 추세를, 토마토와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전년 동월 대비 지수가 하락했다.

공업제품에서는 대전이 0.1%, 1.4%, 충남이 0.2%, 2.7% 증가세를, 도시가스비 등 공공서비스에서는 대전이 0.6%, 3%, 충남이 0.8%, 2.1% 각각 증가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집세 부문에서는 대전의 월세가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를,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세를, 충남의 월세는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을, 전세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경향을 각각 보였다.

[이희택 기자]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 올랐다

9월중 지난달보다 각 0.4% · 0.5%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9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대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를 기록, 지난 8월보다 0.4%,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으며 충남 역시 105.9로 지난 8월 보다 0.5%, 전년 동월 대비 2.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소비자물가는 단체여행비(해외), 숙박료(호텔)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하락했으나, 태풍과 잦은 비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특수수요 영향으로 채소류 등에서 오른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금반지), 공공서비스(도시가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상승한 주요 품목은 브로콜리(71.9%), 양상추(65.1%), 시금치(58.1%), 파(51.1%), 토마토(39.9%), 배추(37.1%), 도시가스(6.2%), 금반지(6.1%)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하락품목을 보면 포도(-

25.9%), 숙박료(호텔 -16.4%), 고구마(-10.3%), 배(-8.3%), 단체여행비(해외 -5.1%), 돼지고기(-4.6%), 휘발유(-1.1%) 등이었다.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105.9로서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0% 각각 상승했다.

공동주택관리비, 단체여행비(해외) 등이 내린 개인서비스는 하락했으나, 태풍과 잦은 비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주요 품목은 호박(55.4%), 토마토(44.4%), 배추(41.4%), 파(29.4%), 무(22.3%), 달걀(10.1%), 도시가스(6.2%), 금반지(4.1%), 생맥주(3.9%) 등이었다.

주요 하락품목 포도(-17.4%), 고춧가루(-9.6%), 단체여행비(해외 -5.1%), 돼지고기(-4.3%), 공동주택관리비(-1.2%), 휘발유(-0.6%) 등으로 조사됐다.

양철기기자

대전·충남지역 9월 소비자물가동향 상승세

전월대비 대전 0.4% · 충남 0.5%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05=100)로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했다.

단체여행비(해외), 숙박료(호텔) 등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하락했으나 태풍과 잦은 비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특수수요 영향으로 채소류 등에서 오른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금반지), 공공서비스(도시가스) 등이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도시가스, 미용료, 공동주택관리비 등 공공02·개인서비스와 국제금값이 상승한 금반지 등 공업제품이 올라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05=100)로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0% 각각 상승했다.

공동주택관리비, 단체여행비(해외) 등이 내린 개인서비스는 하락했으나 태풍과 잦은 비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추석 특수수요에 따른 채소류 등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도시가스, 금반지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 공업제품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배추, 돼지고기 등이 내린 농축수산물은 하락했으나 공업제품(국제금값이 상승한 금반지 등)과 공공 개인서비스(도시가스, 생맥주 등)가 올라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용 기자

8월중 대전지역 백화점 매출 줄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가전 의류 판매부진 영향... 지난달보다 10% 감소

8월중 대전지역내 백화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4일 발표한 '2007년 8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내 백화점 판매액은 지난달에 비해 10.4%,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4%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의류 등의 매출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8월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이 10.4%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이 0.1% 감소,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3.7% 감소했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백화점

판매액은 5.4% 감소했지만 대형마트 판매액이 9.5% 증가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중 전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월비 5.9% 감소, 전년동월비 6.1% 증가했다.

대전지역 백화점 매출 증가 품목은 가방(3.4%), 가구(7.8%) 등이었고 감소한 품목으로는 가전제품(-20.3%), 신발(-13.8%), 의복(-13.0%), 운동 및 오락용품(-8.8%), 음식료품(-2.5%), 화장품(-2.5%), 귀금속류(-1.6%) 등이었다.

대전지역 대형마트 경성판매액도 전월비 0.1% 감소했는데 가구(2.6%), 주방용품(3.0%), 음식료품(4.1%), 서적, 문구(11.9%) 등은 매출이 늘었고 운동 및 오락용품(-15.8%), 귀금속류(-10.7%), 의복

(-8.5%), 화장품(-3.7%) 신발(-2.8%), 가전제품(-0.2%)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8월 중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을 전월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이 10.3% 증가,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경성판매액과 비교하면 대형마트 판매액이 18.7% 증가해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12.3% 늘었다.

충남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증가한 제품은 화장품(2.9%), 의복(4.2%), 서적, 문구(4.6%), 주방용품(8.7%), 음식료품(12.4%) 가전제품(27.7%) 등이었고, 운동 및 오락용품(-7.0%)은 판매가 줄었다.

/강현준기자



대형소매점 8월 장사 잘했다

매출액 작년동월비 대전 4.1%·충남 12.3% 증가

대전 대형마트 9.5% 증가... 백화점은 5.4% 줄어

매장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의 올해 8월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전은 4.1%, 충남은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뚜렷한 증가경향을 보이며, 전체 판매액 증가를 주도했다.

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250억 9400만원으로 전월 대비 3.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 충남은 642억 200만원으로 전월 대비 3.9%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다.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5609억 4500만원으로 전월 대비 5.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 증가를 주도했다.

대전의 경우, 8월 백화점 판매액은 397억 2800만으로 전월 대비 10.4%와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 경향을, 대형마트 판매액은 840억 6500만원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 경향을 보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상품별로는 백화점 증가상품은 신발(8%)과 화장품(2.5%) 등이며, 감소상품은 가구(-22.7%)와 가전제품(-18.8%), 의복(-10.9%), 음

식료품(-9.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증가상품은 운동 및 오락용품(18.2%)과 신발(17.9%), 주방용품(15.5%) 등이며, 감소상품은 가구(-12.2%)와 귀금속류(-7.7%) 등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8월 대형마트 판매액은 498억 7800만원으로 전월 대비 10.3%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상품은 가전제품(67.8%)과 화장품(61.1%), 식료품(14.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17일까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전지역 백화점 4개와 대형마트 13개 등 모두 18개 사업체와 충남지역 대형마트 9개와 백화점 2개 등 모두 1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희백 기자 nature28@



9월 산업생산량 희비 엇갈려

대전 12.3%↓ 충남 11%↑

올해 9월 중 대전의 생산량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2.3% 감소한 반면, 충남은 1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생산

량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중화학공업(9.8%)과 경공업(15.7%) 모두 감소해 전체 생산률이 12.3% 감소했으며, 충남은 중화학공업에서 14.1% 증가하고 경공업에서 12.1% 감소해 전체 생산

률이 11% 증가했다.

대전은 철도차량부품 등 운송장비가 17.1%, 종이제품이 2.4%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이 21.6%, 담배가 19%, 기계장비가 14.6%, 고무 및 플라스틱이 12.8% 각각 감소했다.

충남은 LCD 등 영상음향 및 통신이 35.2%, 소형2차전지셀 등 전기기계가 1.7%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계가 44.8%, 자동차가 24.2%, 반도체 장비 등 기계장비가 20.6%, 고무 및 플라스틱이 11.7% 각각 감소했다.

출하율로 보면, 대전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8% 감소했으며, 충남은 전년 동월에 비해 5% 증가했다. 재고율에서는 대전이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 충남은 12.6% 줄었다. /이희택 기자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9월 생산동향

대전		전체	증가품목	감소품목
		생산률	-12.3%	운송장비, 종이
	출하율	-16.8%	의료정밀·광학	운송장비, 담배
	재고율	-9.4%	담배, 의료정밀·광학기기	

충남		전체	증가품목	감소품목
		생산률	+14.1%	영상음향·통신
	출하율	+5%	영상음향·통신	석유정제품, 자동차
	재고율	-12.6%	전기기계, 고무·플라스틱	

3/4분기 산업활동 대전 ↓ · 충남 ↑

충남 생산동향 전년 比 20% 크게 증가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9월 및 3/4분기 대전 · 충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은 대전은 감소한 반면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생산동향은 종이제품, 기타운송장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고무 및 플라스틱, 담배,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했고 전월비는 3.7% 감소했으며, 전년동분기비는 1.6%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종이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에서 증가했으

나 기타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담배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16.8%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의 생산동향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사무회계용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타 전기기계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했고 전월대비 2.2% 증가, 전년동분기비 20.2% 증가했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생산자제품 재고는 기타전기 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 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해용 기자

9월 지역 대형소매점 24개월만에 판매 최고

지난 9월 대전·충남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지난 2005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9월중 대전·충남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대전
은 798억9400만원, 충남 576억
51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9월 중 대전지역 대형소매점 경
상판매액은 전월비 24.2% 증가한
798억9400만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7% 늘었다. 대전은 지난8

월에 비해 백화점(48.6%) 및 대형
마트(12.1%)판매액 증가의 영향
으로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24.2%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9월
중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
비 24.6% 증가한 576억5100억원
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8.1% 증
가율을 보였다. <구재숙 기자>



대전 · 충남 대형소매점 매출 증가

대전 백화점 매출 전월비 48.6% 상승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
표한 2007년 9월 중 대전·충
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에 따르면 대전 백화점 매출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9월 중 대전지역 대형소매

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24.2% 증가하고, 전년동월비
는 15.7% 증가한 반면 백화점
판매액은 전월비 48.6% 증가
하고 전년동월비는 1.3% 증
가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
월비 12.1% 증가하고 전년동

월비 27.6%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 중 충남지역 대형소
매점 및 백화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비 24.6% 증가하고 전년
동월비는 38.1%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월비
15.8% 증가하고 전년동월비
54.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
다. /백해용 기자



지역 대형소매점 9월 매출증가율

대형마트 > 백화점

대전 27.6% · 충남 54.3% ↑

대전 1.3% · 충남 9.4% ↑

대전과 충남 대형소매점의 9월 중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5.7%,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9월 기준 4개 백화점 판매액 590억 3300만원과 13개 대형마트 판매액 947억 2300만원 등 모두 1559

억 5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이중 백화점 판매액은 1.3%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이 27.6% 증가해 매출을 주도했다.

품목별로는 대형마트의 경우 음식료품(35.4%)과 운동 및 오락용품(30.8%), 신발(22.2%), 의복

(21.4%) 등의 판매액이 증가했고, 귀금속류(-22.1%)와 가구(-4.2%)의 판매액은 감소했다. 백화점에서는 가방(60%)과 음식료품(29.7%), 신발(9.4%) 등에서 증가했고, 가구(-30.6%)와 가전제품(-6%) 등에서 감소했다.

충남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9월 기준 9개 대형마트 판매액 576억 5100만원과 2개 백화점 등 기타 판매액 224억 4300만원 등 모두 798억 9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1%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액은 9.4% 증가한 데 비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54.3% 증가해 대조적인 수치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대형마트의 경우 가전제품(90.6%)과 의복(90.6%), 음식료품(47.4%), 주방용품(39.4%), 서적 및 문구(27.4%) 등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백화점의 경우 분석된 수치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대전·충남 대형소매점 9월 판매액

	전체판매액	판매증가율	개소수
대전	1559억5900만원	15.7%	17곳
	대형마트판매액		
	947억2300만원	27.6%	13곳
	백화점판매액 (기타 대형소매점 포함)	1.3%	4곳
충남	798억9400만원	38.1%	11곳
	대형마트판매액		
	576억5100만원	54.3%	9곳
	백화점판매액 (기타 대형소매점 포함)	9.4%	2곳

소비자물가 2년5개월만에 최고

10월 대전 3.0·충남 2.7·충북 3.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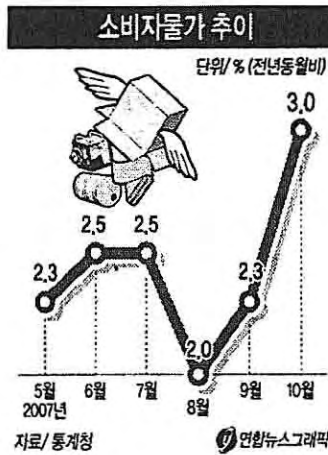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만에 최고치인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작황이 좋지 않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료품 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전국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2005년=100기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0%, 9월보다 0.2% 올랐다.

이같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 2005년 5월의 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청지역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비해 대전은 3.0% 상승한 106.1, 충남은 2.7% 오른 106.1, 충북은 3.2% 상승한 106.1의 물가지수를 기록했다. 충북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3.0%)을 훨씬 넘어 광주·울산·전남(3.3%)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 대전지역은 구내식당 식사비, 라면(외식) 등 개인서비스, 석유류, 금반지 등을 포함한 공업제품과 채소류 상승등 농축수산물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했다.

충남지역도 공동주택관비 등 개인서비스, 석유류, 금반지 등의 공업제품과 채소류 등의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올랐다

전국적으로도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작년 동월과 비교해 3.9%나 상승했고, 생선류·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 상승률 역시 11.6%로 매우 높았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05년 12월의 3.9% 이후,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2004년 8월의 22.9% 이후 최고였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은 각각 4.4%, 2.8% 올랐고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부문은 각각 2.6%, 3.3%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양배추(182.6%), 호박(94.0%), 오이(87.6%), 상추(77.3%), 파(75.6%), 간장(23.1%), 금반지(22.8%), 과일주스(9.8%)등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

경유(10.6%)와 휘발유(7.8%), 등유(5.4%) 등 유류 가격 역시 5% 넘게 올랐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시내버스요금(12.7%), 전철요금(11.3%) 등의 상승률도 10%를 넘어섰다.

보육시설이용료(9.0%), 가정학습지(8.3%)등 개인서비스 가운데 교육 관련 물가도 많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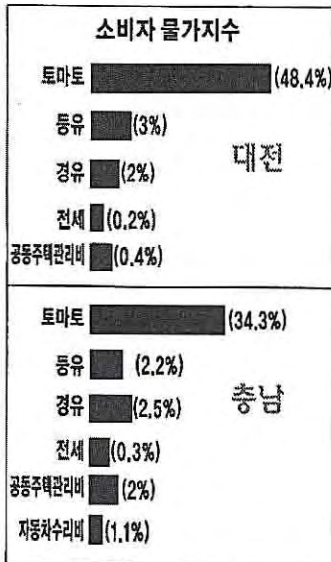
반면 전세나 월세 상승률은 각각 2.3%, 1.0%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구재숙 기자>



물가 급등... 서민생활 '주름'

소비자물가 대전 3.0% · 충남 2.7% 올라 올들어 최고치

기름 · 농산물값 상승 탓



대전과 충남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3%와 2.7% 상승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감)물가지수는 대전이

4.1%, 충남이 3.6% 각각 올랐으며,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0월 기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 증가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두번째 높은 상승률을, 충남은 2.7% 올라 전국 9개 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채소류 등 농산물이 1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내식당 식사비 등 개인서비스가 3.4%, 공공서비스가 3%, 석유류 5.6% 등 공업제품이 2.7%로 뒤를 이었다.

세부 품목별로는 토마토가 48.4%로 가장 크게 올랐고 파가 33.6%, 무가 26.2% 각각 증가했으며, 시금치는 41.4%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등유는 3%, 미술학원비가 2.6%, 경유가 2%, 전세가 0.2% 오른 반면, 공동주택관리비는 0.4%, 다목적승용차가 0.9% 감소했다.

충남에서는 농산물이 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개인서비스가 3.3%, 석유류 6.9% 등 공업제품이 2.7%, 공공서비스가 2.1% 각각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는 토마토가 34.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파가 31.4%, 무가 11.5% 증가했으며, 시금치가 30.9% 감소했다.

남자바지가 4.6%, 등유는 2.2%, 경유는 2.5%, 전세는 0.3%, 금반지는 2.9%, 공동주택관리비는 2% 각각 증가했으며, 자동차전문수리비가 1.1%, 다목적 승용차가 0.9% 각각 감소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대전충남 10월 산업생산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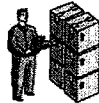
전년동월비 대전 12.4% · 충남 26.1% 큰 폭 상승

대전과 충남의 10월 산업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2.4%,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대전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2.3%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생산활동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가업종으로는 기계 및 장비가 63.5%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자동차가 31.4%, 영상음향 및 통신이 17.7%, 고무 및 플라스틱이 10.5%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담배는 26%, 세시문 및 창틀, 금속패널제품 등 조립금속은 18.5% 각각 감소했다.



대전·충남지역 10월 산업생산량

	업종	증감율
대전	기계·장비	+63.5%
	자동차	+31.4%
	영상음향·통신	+17.7%
	담배	-26%
	조립금속	-18.5%
충남	영상음향·통신	+33.6%
	화학제품	+29.2%
	자동차	+18.2%
	인쇄·출판	-48.1%
	사무회계용 기계	-15%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제품출하량 역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5% 증가했으며, 재고량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4% 감소했다. 재고량 증가업종은 담배가 146.1%로 가장 높았고, 제1차금속이 67.5%,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가 37%로 나

타났으며, 감소업종은 나사 등 조립금속이 37%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기타 전기기계가 33.7%, 자동차가 17.7%로 줄었다.

10월 중 충남의 생산량은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26.1% 증가해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증가업종으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화학제품이 29.2%, 자동차가 18.2%, 음식료품이 16.7%로 뒤를 이었다.

인쇄 및 출판은 48.1%, 사무회계용 기계는 15% 각각 감소했다.

출하량은 LCD와 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중대형승용차 등의 증가요인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6% 증가했으며, 재고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12.5% 감소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산업생산 큰 폭 증가

10월 중 충남 전년보다 26%

지역내 산업생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10월 중 대전충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산업생산은 담배,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

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 전년동월대비 12.4%, 전월비는 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출하는 담배,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

고는 조립금속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4% 줄어들었다.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는 26.1%나 급증했다.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했다. /강현준기자



대전·충남 생산활동 활발

10월 생산 지난해 대비 12.4%·26.1%증가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충남지역 생산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중 대전지역 생산은 기계, 장비,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또 충남지역 생산은 통신, 화학제품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과 비교해 26.1% 늘어났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대전지역 생산은 고무가공기계, 금형, 산

업용 공기압축기 등 기계 및 장비에서 63.5%가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31.4%, 영상음향 및 통신 17.7%, 고무 및 플라스틱 10.5% 등의 증가를 보였다.

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 금속, 의료정밀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조립금속, 자동차, 기타 전기기계 업종에서 감소, 전체적으로 2.4% 줄었다.

충남지역 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인쇄 등 업종에서 감소를 나타

냈지만 영상음향 및 통신 33.6%, 화학제품 29.2%, 자동차 18.2% 등의 상승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26.1%가 증가했다.

충남지역 제품 재고도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전기기계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영상음향, 통신, 제1차 금속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대전과 충남지역 제품 출하는 기계, 자동차, 통신, 제1차금속 등 업종에서 증가를 보여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5%와 21.6% 늘어났다.

/최장준 기자

대전·충남 산업생산 다소 증가

영상음향·통신·자동차 등 업종 호조세
충남, 사무회계용기계·인쇄·출판 감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담배,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전월비는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출하는 담배, 조립금속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종이제

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조립금속,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했다.

한편 10월 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

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6.1% 증가, 전월비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기타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제1차금속,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2.5% 감소했다.

/백해용 기자

충청투데이 | 12월 1일 4면

대형소매점 매출 전달비 줄어

10월 매출 작년보다는 증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의 지난 10월 매출은 9월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2006년 10월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과 충남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전국 통계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7년 10월 중 대전·충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경상판매액이 전달과 비교해 각각 대전 5.8%, 충남 14.9% 감소했다.

그러나 시도 모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각각 0.6%와 5.1% 상승으로 집계됐다.

▲대전-전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이 0.7% 증가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9.7%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5.8% 감소가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는 백화점 판매액이 8.0% 감소하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8.1% 증가해 전체적으로



대형마트 10월매출 주춤

대전 9.7%·충남 20.7% ↓ 음식료·화장품 등 감소 영향

대전과 충남 대형마트의 10월 중 판매액이 지난 9월에 비해 각각 9.7%, 20.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의 감소율 평균 5.9%, 14.9%보다 높은 수치로 대형마트 판매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지난달 3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올해 10월 기준 4개 백화점 판매액 594억 6300만원과 13개 대형마트 판매액 855억 1500만원 등 모두 1469억 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판매액은 지난 9월보다 5.8% 감소한 가운데, 대형마트가 9.7%로 크게 감소한 반면 백화점은 0.7% 소폭 증가했다.

백화점에서는 가방(19.6%), 신발(9.9%), 가전제품(9.3%), 의복(7.3%) 등의 품목 판매액이 지난 달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음식료품(-47.7%), 화장품(-5.1%), 귀

금속류(-4.1%)에서 감소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가전제품(10.9%)과 운동 및 오락용품(5.1%), 의복(0.6%)과 주방용품(0.4%)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17.7%)과 화장품(9.5%), 귀금속류(5.1%), 신발(1.1%) 등이 감소했다.

충남의 10월 기준 판매액은 9개 대형마트 판매액 457억 1600만원과 2개 백화점 223억 700만원 등 모두 680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액은 지난 9월보다 14.9% 감소했으며, 대형마트는 20.7% 감소치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운동 및 오락용품(4.3%)과 의복(3.8%)에서 증가했으며, 화장품(-27.8%)과 음식료품(-25.3%), 주방용품(-13.8%), 서적 및 문구(-7.6%), 가전제품(-5.2%)에서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고,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전충남지역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6@

0.6% 증가가 나타났다.

▲충남=전월 대비 대형마트 판매액이 20.7%나 감소해 백화점을 포함한 전체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이 1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대형마트 판매액이 4.5% 증가해 전체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1% 증가로 조사됐다.

/김도은·이경미 기자

충북 11월 소비자물가 최고

작년比 4.0% 상승... 대전 3.2%·충남 3.3%

전국 3.5%로 37개월來 최고

농산물 가격 인상,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1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4.0%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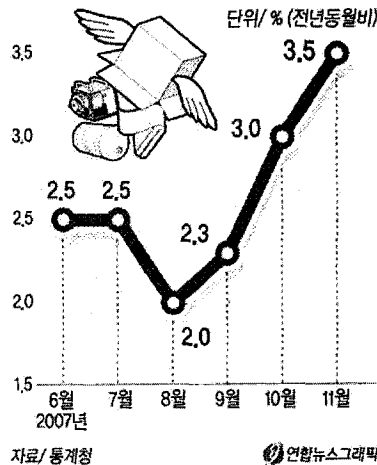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105.9)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3.5% 올랐다.

대전과 충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0, 106.1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 3.3% 상승했다. 대전과 충남은 도시가스 및 석유류, 금반지 등 공업제품은 상승했으나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축 수산물은 내려 전달에 비해 대전은 0.1% 하락했고 충남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의 물가 3.5% 상승은 2004년 10월의 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초중반대의 안정세를 보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추이



3.0%, 11월 3.5% 등으로 2개월 연속 3%를 넘어섰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4.9%나 상승했고, 생선류·채소류·과일류 등 신선식품의 상승률은 무려 10.8%에 달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005년 2월의 4.9% 이후 최고였다. <구재숙 기자>



석유·배추 쌍끌이에 물가高高

대전·충남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최고치

충남 106.1·대전 106... 전국서 5·6위
배추 235.5%·무 160.9%·등유 20%↑

대전과 충남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p, 3.3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지난 10월에 이은 최고치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 대전은 6위, 충남은 5위에 해당한다.

3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8과 비교해 3.2p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상승 품목으로는 석유류가 1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를 포함한 공업제

품이 3.9%, 농산물이 7.9%, 개인서비스가 3.4%, 공공서비스가 2.6%로 각각 늘어났다.

세부 품목으로 보면, 배추(235.5%)와 무(160.9%), 파(139.6%) 등 일부 농산품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금반지(28.7%)와 등유(20%), 경유(13%) 등 공업제품, 도시가스(11.2%), 생맥주(4.2%), 공동주택관리비(2.4%), 전세(0.8%) 등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감소 품목으로는 수산물(-5.6%)와 축산물(-1.9%)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양파(-43.8%)와 사과(-21.6%), 상추(-18.1%), 참기름

(-14.8%), 빙과(-9.6%), 아이스크림(-8.5%), 장례식장이용료(-7.3%) 등이 감소했다.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8에 비해 3.3p 상승했다.

상승 품목으로는 석유류가 14.3%로 가장 높았으며, 공업제품이 4.1%, 농산물이 5.1%, 개인서비스가 3.4%, 공공서비스가 3%, 집세가 1% 각각 늘어났다.

세부 품목에서는 배추(236.3%)와 무(121.7%), 파(79.3%) 등 농산물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금반지(26.7%)와 등유(18%), 경유(17.7%), 휘발유(13.2%), 과일주스(11.5%), 도시가스(10.8%), 자장면(11.9%) 등이 상승했다.

감소 품목으로는 수산물(-1.6%)과 축산물(-0.6%)이 감소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소비자 물가 소폭 올라

11월 대전·충남 3.2%·전국 3.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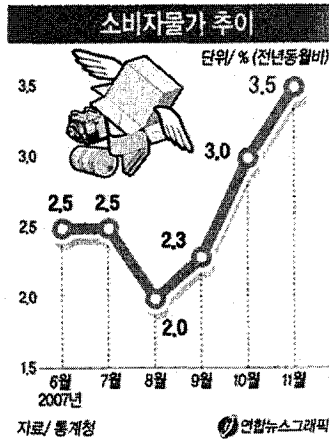
대전·충남지역 11월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해 서민 생활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3일 11월 중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06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하고 충남지역도 106.1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은 석유류 12.1% 등을 포함한 공업제품 3.9%, 공공주택 관리비 등 개인서비스 2.6%,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3.4% 상승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주요 등락품목은 배추 235.5%, 무 160.9%, 풋고추 80% 등이 대폭 상승된 것을 비롯해, 금반지 28.7%, 등유 20%, 도시가스 11.2%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양파 43.8%, 사과 21.6%, 국산 쇠고기 5.6%, 장례식장 이용료 7.3% 등은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다.

충남지역도 공업제품 4.1%를 비롯 장장면·짬뽕 등 개인서비스 3.4%,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3% 증가요인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등락품목은 배추 236.3%, 무 121.7%, 호박 76.8%, 금반지 26.7%, 등유 18%, 도시가스 10.8%, 자장면 11.9% 등 이었다.

반면, 감 14.5%, 고춧가루 13.6%, 휴대전화 10.1% 등은 하락을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생활물가지수는 대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3%, 충남 4.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1월 중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최장준 기자

대전·충남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

도시가스·석유류·금반지 등 공업제품 ↑ · 농축수산물 ↓

11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1월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 (2005=100)으로써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했다.

도시가스와 석유류,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에서는 상승했으나, 채소류와 과일류 등

이 내린 농축수산물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석유류,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공동주택관리비, 생맥주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도시가스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2% 상승했다.

11월 충남지역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 (2005=100)로서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다.

도시가스와 석유류, 금반지가 오른 공업제품은 상승했으나, 과일류와 채소류 등이 내린 농축수산물은 하락해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또 석유류,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공동주택관리비, 외식 등이 오른 개인서비스, 도시가스 등이 오른 공공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다.

/박해용 기자



11월 산업생산 상승세 대전 4.1%·충남 20% 증가

대전과 충남의 11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1%,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증가했으며, 10월과 비교해서는 0.7% 감소했다.

고무가공기계와 금형, 차량용 에어컨 등 기계 및 장비 품목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3.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률을 기록했으며, 트랜지스터 등 영상음향 및 통신이 16.7%, 담배가 12.5%, 음식료품이 9.8% 각각 증가했다.

반면 철도차량부품 등 운송장비는 -100%, 새시문 및 창틀 등 조립금속은 26.1% 각각 감소했다.

출하율은 지난해 동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재고율은 2.7% 감소했다. /이희택 기자

대전·충남지역 제품생산 늘고 출하 줄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중 대전지역의 산업생산은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담배, 영상음향 및 통신,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했고 전월비는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출하는 조립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기계 및 장비, 담배,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담배, 제1차금속,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기타전기 기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했다.

또한 11월중 충남지역의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기계,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음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했고 전월비는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출하는 자동차, 인쇄 및 출판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화학제품, 석유정제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했고 생산자제품 재고는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14.8% 감소했다. /박혜용기자

02

월간통계 | 사회부문

monthly statistics | society section

여 백

작년 취업자 증가 30만명 미달

정부 고용정책 성과 없어

12월 대전·충남 소폭증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에 미달하는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15만1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9만5000명(1.3%)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초에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치 40만개는 물론 하반기에 하향 조정해 제시했던 35만개에도 크게 못미쳐 어려운 고용시장 환경을 반영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12월 취업자는 66만5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도 동월(3만명)보다 4.0%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취업자는 91만 2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명이 늘었으며,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도 동월보다 1000명이 감소했다.

〈岳在淑 기자〉

대전·충남 일자리 '가뭄' 실업률 최상위 불명예

12월 실업자 각 14%·5.9% 증가

지난해 말 대전충남의 실업률이 전국 최상위에 이르는 등 극심한 일자리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대전충남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12월 및 4/4분기 대전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난 4/4분기 실업자가 3만 1000명으로 전년동기 2만 7000여명보다 4000명(14.2%)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대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3%보다 1.1%가 높은 수치이며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번째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

고 있다.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7000명보다 3000명(15.6%), 여자는 1만 1000명으로 전년동기 1만명보다 1000명(0.8%)이 각각 증가했다.

충남 역시 전국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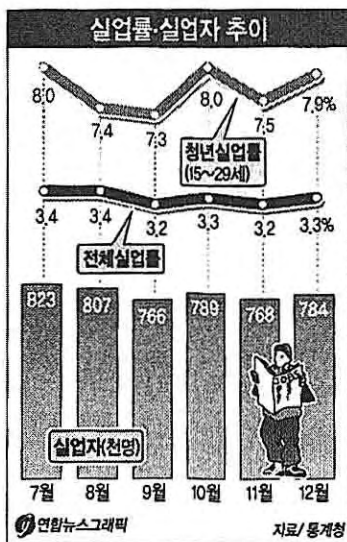
충남의 4/4분기 실업률은 2.5%로 전남 1.7%, 경남 2.0%, 충북 2.1%에 비해 높았다. 충남의 4/4분기 실업자는 2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5.9%)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5%로 지난해와 같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000명보다 2000명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9000명으로 지난해 1만명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했다.

실업률의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지역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후유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충남 통계청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대기업이 없고 산업체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실업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불명예"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대전 충남 4/4분기 고용시장 안정세

청년실업률 고공행진 여전

올 4.4분기 대전지역 고용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4.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자는 3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천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4%로 동분기

(3.9%) 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자는 67만명으로 전년동분기(65만2천명) 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도 69만4천명으로 전년동월 67만6천명보다 1만8천명이 증가했고 전년동분기 대비로도 2만2천명 늘었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실업자는 전년동분대비 1.8%포인트 증가해 실업률은 9.8%로 나

타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5천명으로 전년동분기보다 1천명 증가해 실업률은 2.5%로 전년동분기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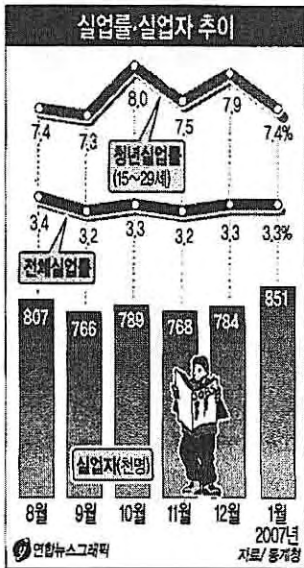
청년실업자는 총 7천9백명이었고 청년실업률은 7.5%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 4.4분기 지역 고용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았다"며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환일 기자



꽁꽁 언 채용시장 지역은 '봄날'

1월 전국 취업률 7개월만에 최저... 대전 2.2%·충남 1.8% 늘어



지난달 전국의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불과 1.1% 증가하는 등 최악의 취업상태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전·충남의 취업률은 각각 2.2%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8일 발표한 1월 대전·충남 고용동향 분석 결과, 대전지역 실업자는 모두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3만4000명)보다 2000명(6.5%)이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명으로 3000명 줄었고 여자는 1만1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으며, 전체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5%)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64만1000명)보다 2.2%(1만4000명) 증가한 6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7만2000명으로 2만5000명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5000명으로 3000명, 광공업은 7만7000명으로 9.7% 줄었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2만2000명)보다 5000명(24.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8000명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3000명이 감소한 7000명으로 조사됐고, 실업률

은 2.9%로 전년동월(2.4%)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8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88만3000명)보다 1.8%(1만6000명)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9만3000명으로 2만6000명, 광공업은 15만7000명으로 15만1000명보다 5000명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4만9000명으로 1만5000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272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5만8000명(1.1%) 증가해 7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8월 31만8000명 이후 올해 1월 25만8000명으로 5개월째 3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전신에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명절 효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증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예년과 비교해 나쁜 수준이 아니다"며 "설날이 있는 2월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

대전 · 충남 고용여건 악화

지방통계청, 실업자 수 1000여명 증가 1.5% 높아... 전국 광역시 중 최고 기록

대전과 충남지역의 고용여건이 지난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지난달 실업자는 수는 3만 2000여명으로 전달에 비해 1000여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4.6%로 전달(4.4%)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다.

대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6%보다 1.5%가 높은 수치며 전국의 광역시가운데 최고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000명보다 3000명 감소한 반면 여자는 1만 1000명으로 지난해와 같게 나타났다.

충남의 1월중 실업률은 2.9%로 경남 2.6%, 전북 2.4%, 충북 2.2%에 비해 높았다.

충남의 지난달 실업자는 2만 7000명으로 지난해(2만2000여명)보다 5000명(24.5%)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000명보다 8000명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7000명으로 지난해 1만명에 비해 3000여명 감소했다. /김환일 기자

대전·충남 통계청, 지난달 경제활동인구 각각 1.7·2.4% ↑

지난해 比 취업율 대전 2.2%·충남 1.8%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3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대전충남 고용동향은 대전이 1월중 15세이상 인구는 1,184천명으로 전년동월(1,162천명)보다 21천명(1.8%), 경제활동인구는 686천명으로 전년동월(675천명)보다 12천명(1.7%) 각각 증가했

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전년동월(58.1%)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자는 655천명으로 전년동월(641천명)보다 14천명(2.2%) 증가하고 실업자는 32천명으로 전년동월(34천명)에 비해 2천명(-6.5%),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5.0%)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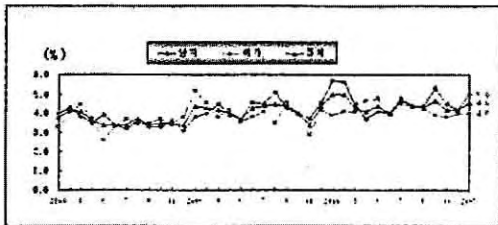
또한 충남은 1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532천명으로 전년동월(1,499천명)보다 34천명

(2.3%), 경제활동인구는 926천명으로 전년동월(904천명)보다 22천명(2.4%) 각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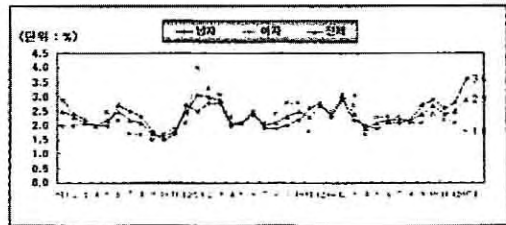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전년동월(60.3%)보다 0.1%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자는 899천명으로 전년동월(883천명)보다 16천명(1.8%) 증가하고 실업자는 27천명으로 전년동월(22천명)보다 5천명(24.5%),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 2.4%보다 0.5%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용 기자

대전지역 실업률 추이



충남지역 실업률 추이



실업자 대전 ↓ 충남 ↑

1월중 각각 2천명, 5천명 규모

지난 1월중 지역 실업자가 대전은 줄고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1월 대전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3만2천명으로 전년동월(3만4천명)에 비해 2천명(-6.5%) 감소했고, 충남

은 2만7천명으로 전년동월(2만2천명)보다 5천명(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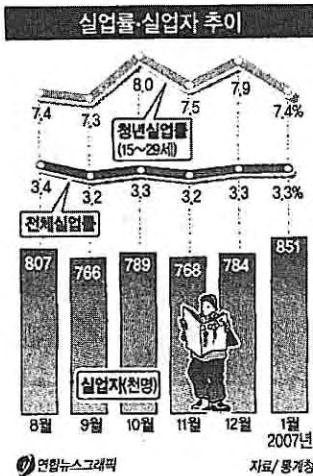
하지만 대전충남 모두 지난달인 지난해 12월보다는 실업자가 각각 3천명이 늘었다.

대전의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명으로 전년동월(2만3천명)에 비해 3천명(-

13.0%), 감소한 반면, 여자는 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1만1천명)보다 1천명(7.5%) 증가했다. 대전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5.0%)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충남지역 실업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동월(5.7%)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4.0%로 전년동월(3.9%)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준기자

고용시장 새해에도 '찬바람'

1월 취업자 증가율 1.1% 그쳐
대전 실업률 4.6%·충남 2.9%



1월 취업자 수가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크게 미달하면서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 상황이 새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반면 고용률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아 어려운 고용사정을 반영했다.

대전·충남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의 취업자 수는 2272만 9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5만8000명(1.1%)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취업자는 65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실업자는 3만2000명(실업률 4.6%)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취업자는 89만 9000명으로 지난해 1월 같은 기간에 비해 1만6000명이 증가했

다. 실업자는 2만7000명을 기록, 실업률이 2.9%로 전년도 1월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가 수는 5개월 연속 3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8월 31만8000명에서 9월 28만2000명으로 내려 앉았고, 10월 27만8000명, 11월 26만7000명, 12월 29만명, 1월 25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년 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만1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3000명)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2만8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7만3000명)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취업자 증가

2월 1.3·1.8% ↑... 道 실업자 7.7% 늘어 정부 목표치 30만명엔 6개월 연속 미달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목표인 월별 30만 명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대전충남 고용동향 분석 결과, 대전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3% 증가한 6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6만2000명으로 1만6000명 증가했지만 농림어업은 6000명으로 2000명, 광공업은 7만9000명으로 6.2% 줄었다.

실업자는 모두 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4000명이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2000명으로 1000명, 여자는 9000명으로 3000명이 늘었으며, 전체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보다 0.5% 포인트 감소했다.

충남지역 취업자도 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59만1000명으로 3만 명, 광공업은 16만3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지만 농림어업은 15만9000명으로 2만1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7% 증가했다. 남자가 2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이 증가했지만, 여자는 2000명이 감소한 9000명이었고,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월별 취업자 수가 정부 목표인 30만 명에 미달한 26만2000명 증가에 그친 22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취업자가 지난해 8월 31만8000명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만9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만9000명), 건설업(4만6000명) 등은 증가했지만, 농림어업(4만6000명), 제조업(4만5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6만3000명) 등은 감소했다. 실업자는 86만1000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9.6% 감소했고,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대전·충남 경제활동인구 지난해 比 증가 추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시와 충청남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3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중 15세이상 인구는 대전이 11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116만 5천명)보다 2만 1천명(1.8%), 경제활동인구는 6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67만 2천명)보다 5천명(0.7%) 각각 증가했고 충남은 15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150만 3천명)보다 3만 4천명(2.3%), 경제활동인구는 9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92만 5천명)보다 1만 8천명(1.9%)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전이 57.0%로 전년동월(57.7%)에 비해 0.7%포인트, 충남은 61.4%로 전년동월(61.6%)에 비해 0.2%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대전이 64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63만 8천명)보다 8천명(1.3%), 충남은 9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89만 8천명)보다 1만 6천명(1.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대전 51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 7천명(3.3%), 충남은 59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 5천명(2.6%) 각각 증가했다.

2월중 실업자 대전↓충남↑

대전 전년比 4천명 감소·충남 2천명 증가

2월중 지역 실업자가 대전을 줄고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2월 대전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동월인 3만 4천명에 비해 4천명(-10.7%) 감소했다.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2만 3천명)에 비해 1천명(-4.0%), 여자는 9천명으로 전년동월(1만 1천명)에 비해 3천명(-24.1%)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5.0%)에 비해 0.5%포인트 줄었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인 2만 7천명보다 2천명(7.7%)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명으로 전년동월의 1만 6천명보다 4천명(28.4%) 증가한 반면, 여자는 9천명으로 전년동월(1만 2천명)에 비해 2천명(-20.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현준기자

충청 고용시장 안정세

취업자 증가 실업률 감소

지난달 충청권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률은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쳐 지난 1월에 이어 고용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1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2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6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3만 8000명보다 9000명(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년 전 5.0%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5%를 나타내

지난해 12월 0.2% 감소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충남지역 취업자 수는 91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6000명(1.8%) 늘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 3.0%보다 0.1%포인트 상승에 머물렀다.

충북지역 취업자 수는 6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65만 명)보다 3000명(0.4%)이 늘었다.

실업자 수도 1만 6000명으로 2.5% 실업률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대전지역 실업자 ↓ 충남은 ↑

지난달 고용동향 결과 대전·충남 각각 3만·2만 9천명 기록

서비스업 웃고 농림어업·광공업 울고

지난 2월 중 대전·충남지역 실업자가 대전은 감소한 반면 충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2월 대전시·충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3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3만 4,000명)에 비해 4,000명(-10.7%)이 감소했으며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 7,000명)보다 2,000명(7.7%)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118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16만 5,000명)보다 2만 1,000명(1.8%), 경제활동 인구는 67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67만 2,000명)보다 5,000명(0.7%) 각각 증가했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57.0%로 전년 같은 달(57.7%)에 비해

0.7%포인트 감소했으며 취업자는 64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63만 8,000명)보다 8,000명(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6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54만 6,000명)보다 1만 6,000명(2.9%)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8,000명)에 비해 2,000명(-29.6%), 광공업은 7만 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8만 4,000명)에 비해 5,000명(6.2%) 각각 감소했다.

또 실업자는 3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3만 4,000명)에 비해 4,000명(-10.7%), 실업률은 4.5%로 전년(5.0%)에 비해 0.5%포인트 각각 감소했으며 비경제 활동 인구는 51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49만 3,000명)보다 1만 7,000명(3.3%)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153만 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50만 3,000명)보다 3만 4,000명(2.3%), 경제활동 인구는 94만 3,000명으로 전년(92만 5,000명)보다 1만 8,000명(1.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61.4%로 전년 같은 달(61.6%)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취업자는 91만 4,000명으로 전년(89만 8,000명)보다 1만 6,000명(1.8%) 증가했다.

한편,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 7,000명)보다 2,000명(7.7%), 실업률은 3.1%로 전년 3.0%보다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황대혁 기

취업할 곳 없는 It's Daejeon 실업률 전국 1위

실업자 3만명... 봄은 춥다

생산·기술기반 취약... 고용사정 열악

대전지역의 실업률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전국 꼴찌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률은 4.3%로 부산, 인천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3.5%보다도 훨씬 높다. 대전은 지난해 3월에도 실업률 4.3%로 전국 4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 2월에도 4.5%로 전국 3위를 기록했었다.

대전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58.3%로 1년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반면 올 1/4분기는 57.8%를 기록, 지난해 3월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3월 실업자는 3만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0.7% 증가했고, 실업률은 1년전과 같게 나타났다. 남자의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3월과 같았으나 1000여명 증가했고, 여자는 3.9%로 1000여명이 줄어 0.2%포인트 감소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49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8000명 증가했다.

대전의 실업률이 계속 높은 원인은 대전경제를 이끌어 갈 뚜렷한 생산 및 기술기반 취약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과 충북지역의 실업률은 2.7%와 2.4%로 전국 평균(3.5%)에 비해 낮았다. 충남과 충북의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01만4000명, 69만 6000명으로 실업자는 2만8000여명, 48만8000여명에 달했다. <구재숙 기자>

‘실업자’ 대전 줄고 충남 급증

1분기중 지역내 실업자가 지난해보다 대전은 줄고 충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3월 및 1분기 대전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3월중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동월 2만9천명보다 0.7%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과 같게 나타났다

1분기 실업자도 역시 3만명으로 전년동분기 3만2천명에 비해 2천명(-5.9%), 실업률은 4.4%로 전년동분기(4.8%)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충남지역 3월중 실업자는 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2만3천명)보다 5천명(19.5%),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2.4%)보다 0.3%포인트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대전, 1분기 전년동분기보다 2천명 감소 충남은 4천명 증가.. 당분간 지속 될듯

충남 1분기 실업자는 2만8천명으로 전년동분기(24천명)보다 4천명(16.7%) 증가했으며 실업률 또한 2.9%로 전년동분기(2.6%)보다 0.3%포인트 증가해 실업자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대전과 충남 모두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는 남성 실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지역 3월중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명으로 전년동분기(2만1천명)에 비해 1천명(-5.2%), 여자는 1만명으로 전년동분기(1만1천명)에 비해 1천명(-6.4%) 각각 감소했고, 충남도 역시 3월중

남자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전년동분기(1만3천명)보다 6천명(44.7%) 증가한 반면, 여자는 9천명으로 전년동분기(1만1천명)에 비해 2천명(-17.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통계청 관계자는 “남성 실업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역 농림어업분야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최근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대전·충남지역 ‘경제활동인구’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3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대전이 11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만1000명(1.8%), 경제활동인구는 6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만3000명(1.9%) 각각 증가했고, 충남이 154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만3000명(2.2%), 경제활동인구는 10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만8000명(4.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대전이 118만6000명으로 전년동분기(116만5000명)보다 21천명(1.8%), 경제활동인구는 68만5000명으로 전년동분기(67만6000명)보다 1만명(1.5%) 각각 증가했으며, 충남이 153만6000명으로 전년동분기(150만3000명)보다 3만3000명(2.2%), 경제활동인구는 96만1000명으로 전년동분기(93만2000명)보다 2만9000명(3.1%)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해용 기자

대전 실업률 전국 최하위 이유는?

제조업 8만명 불과 일자리 없다

취업자 분석 결과 

2006년(3월)	분야	2007년(3월)
8만2000명	제조업	8만명
1만1000명	농업	9000명
5만8000명	건설업	6만명
8만1000명	전기 운수창고 금융업	7만7000명
16만7000명	도소매 음식숙박업	16만명
25만2000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7만9000명

〈속보〉=대전의 실업률이 전국 하위권(본보12일자 7면 보도)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및 1/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률은 4.3%로 부산·인천과 공동 1위를 기록했다. 1년전에도 4.3%였다.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69만3000명으로 취업자는 66만3000명, 실업자는 3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6000명이다.

◇일자리 부족=취업자 분석 결과 제조업(8만명)과 농업(9000명) 종사 인력이 지난해 3월보다 각각 2000명씩 감소했다.

전기, 운수창고, 금융업 종사자는 7만7000명,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16만명으로 1년전보다 4000명, 7000명이 각각 줄었다.

반면 건설업은 2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만7000명 늘었다. 올 1/4분기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는 7만9000명으로 지난해 1/4분기보다 5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15만8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1만명이 감소했다.

어려운 경기와 대전에 취약한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직, 단순 노무직 종사자 많아=직업별 취업자 분석결과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17만명선을 계속 유지했다. 올 3월엔 17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5000명이 줄었다. 직업별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기계조작·단순 노무직도 20만8000명으

로 작년 3월에 비해 1만2000명 늘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선 9000명이 증가했다. (구재숙 기자)

2면으로 계속▶

▶ '대전 실업률 최하위 이유' 1면서 계속 대전이 생산 및 기술기반이 약하다 보니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시근로자도 줄었다=대전지역의 종사자 지위별에선 임금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3만8000명으로 작년 3월에 비해 1만8000명 줄었다. 일용근로자도 3000명 감소한 6만9000명에 달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28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2만7000명 증가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가 2만5000명으로 1년전보다 2000명 증가했으며, 자영업주는 15만3000명으로 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 조사에서 일시휴직자는 지난해 3월 7000명에서 4000명이 늘었다.

한편,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대전지역 표본가구 15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4월 대전지역 실업률 3년 3개월만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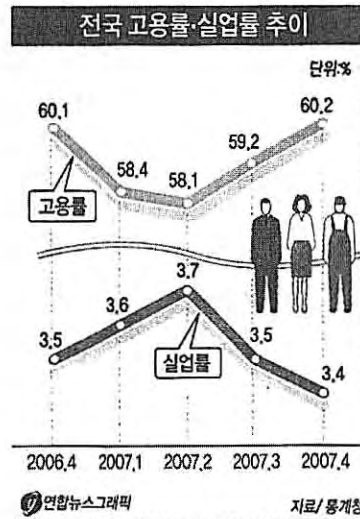
3.8%... 전국평균 3.4%보다는 높아

대전지역 실업률이 39개월만에 하락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3.8%, 충남 2.3%, 충북 2.2%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전의 실업률은 지난 3월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실업률(4.3%)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전국 평균(3.4%)을 넘어섰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3.8%를 기록한 이후 3년 3개월 동안 4%-5%를 유지(2005년 11월 3.4% 제외)해 오다 지난달에서야 비로소 떨어졌다.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70만6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2만1000명이 증가했다. 4월 중 총 취업자는 67만9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만2000명이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 7000명, 전기·운수창고·금융업에 6000명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1만3000명, 일용근로



자 9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000명이 감소했다. 대전지역의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000명이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103만 9000명으로 1년전보다 4만명이 증가했다. <구재숙 기자>

지역내 실업자 충남↑ 대전↓

통계청 '2007 4월중 대전 충남 고용동향' 전년比 대전 1천명 감소 충남은 5천명 증가

4월중 지역내 실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대전은 줄고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4월 대전충남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7천명으로 전년동월(2만8천명)에 비해 1천명(-4.3%) 감소한 반면,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1만9천명)보다 5천명(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4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2천명으로 전년동월(117만명)보다 2만2천명(1.8%), 경제활동인구는 70만6천명으로 전년동월(68만5천명)보다 2만1천명(3.0%)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9.2%로 전년동월(58.5%)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67만9천명으로 전년동월(65만7천명)보다 2만2천명(3.3%)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8만7천명으로 전년동월(56만6천명)보다 2만1천명(3.7%), 광공업은 8만1

천명으로 전년동월(7만9천명)보다 2천명(2.0%)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만2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천명(-5.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에는 4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54만5천명으로 전년동월(151만1천명)보다 3만3천명(2.2%), 경제활동인구는 10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99만9천명)보다 4만명(4.0%)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7.3%로 전년동월(66.1%)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취업자는 101만5천명으로 전년동월(98만1천명)보다 3만5천명(3.5%)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6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58만8천명)보다 3만7천명(6.3%), 광공업은 1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15만4천명)보다 1만3천명(8.6%)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2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23만9천명)에 비해 1만6천명(-6.5%) 감소했다.

강현준기자

대전 경제활동 인구 70만6000명

지난해 比 3.0% ↑ ... 실업자, 2만7000명으로 다소 감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대전 시와 충남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4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대전이 11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명)보다 2만2000명(1.8%), 경제활동 인구는 7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68만5000명)보다 2만1000명(3.0%) 각각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9.2%로 전년동월(58.5%)보다 0.7%포인트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6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657천명)보다 2만2000명(3.3%)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56만6000명)보다 2만1000명(3.7%), 광공업은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7만9000명)보다 2000명(2.0%)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000명(-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2만8000명)에 비해 1000명(-4.3%)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48만5000명)보다 1000명(0.2%) 증가했다. / 박해용기자

대전 투데이 | 5월 17일 7면

4월 대전취업자수 67만 9천명

2007년 4월 대전 취업자수가 67만 9천명으로 지난해 65만 7천명보다 2만 2천명으로 3.3% 증가했다.

16일 대전충남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67만 9천명으로 지난해 65만 7천명보다 2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실업자수는 2만 7천명으

로 전년도에 비해 1천명 감소한 전년도 4.3%에서 3.8% 감소했다.

4월중 경제활동인구는 전월 68만 5천명보다 2만 1천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59.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8만 7천명으로 지난해 56만 6천명보다 2만 1천명

(3.7%)증가, 광공업은 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천명(2.0%)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천명(-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10만명으로 지난해 9만 1천명(10.4%), 서비스판매직은 18만 명으로 전년동월 17만 7천명보다 1.2% 증가했다.

/이춘근 기자

대전·충북 고용시장 안정

충남 실업률 다소 상승

지난달 대전과 충북의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 반면 충남은 실업률이 다소 높게 상승했다.

16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 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4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취업자는 67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65만 7000명)보다 2만 2000명(3.3%) 늘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58만 7000명으로 2만 1000명(3.7%), 광공업은 8만 1000명으로 2000명(2.0%)이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만 2000명으로 1000명(-5.0%) 줄었다.

대전 실업자는 2만 7000명으로 1년 전(2만 8000명)에 비해 1000명(-4.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에 비해 0.3%포인트 줄었

다.

충남은 취업자가 10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98만 1000명)보다 3만 5000명(3.5%)늘었다.

산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62만 5000명으로 3만 7000명(6.3%), 광공업은 16만 7000명으로 1만 3000명(8.6%)이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22만 3000명으로 1만 6000명(-6.5%) 줄었다. 충남 실업자는 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000명)보다 5000명(2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1.9%)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충북 취업자 수는 70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69만 4000명)보다 1만 4000명(2.0%) 늘었다.

실업자 수는 1만 6000명, 실업률은 2.2%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았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5월 취업자 27만4000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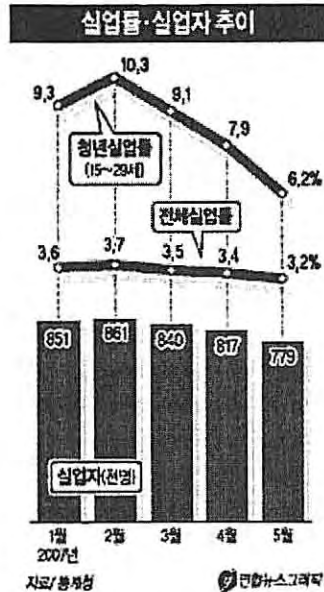
9개월째 30만명 밀돌아... 전체 실업률은 3.2%

지난달 취업자가 27만4000명 증가했지만 9개월연속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을 밀돌았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37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7만4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는 전월의 27만8000명보다도 4000명 감소했으며 정부가 올해 초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30만명에 못미쳤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3만9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9000명), 건설업(2만1000명) 등은 증가했지만 제조업(-5만6000명), 농림어업(-5만1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5만5000명) 등은 감소



했다. 5월 실업자는 7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00명(0.5%) 감소했고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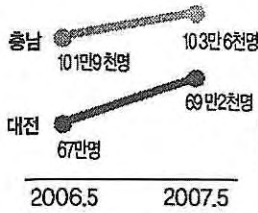
실업자 증가가 두드러진 연령대는 30대로 작년에 비해 3만1000명(18.3%) 늘었고 50대도 8000명(8.8%)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실업자수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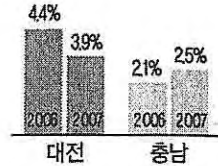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은 남성이 72.0%로 0.1% 포인트 하락했고 여성은 50.0%로 0.2% 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섰다.

전신에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률이 2005년 6월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아지는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아직 다른 지표에 비해 고용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형일 기자)



취업자 증가 추이



실업률

대전 실업자 줄었다

5월 실업자수 2만8천명... 전년비 2천명 ↓

5월 중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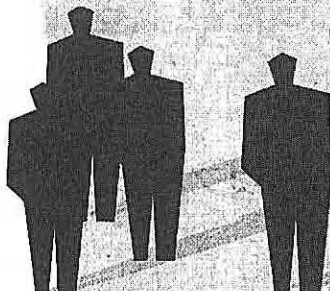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5월 대전시충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취업자는 69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000명(3.3%)가 늘었다. 충남지역의 취업자는 103만6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만7000명(1.6%)이 증가했다.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7.8%)이 준 반면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지난해 5월(2만2000명)보다 5000명(21.2%)이 늘었다.

실업률은 대전이 3.9%로 지난해 5월(4.4%)에 비해 0.5%p 감소한 반면 충남은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에 비해 0.4%p 증가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대전이 4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7만2000명)보다 2000명(0.5%), 충남은 4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7만5000명)보다 1만2000명(2.5%)가 각각 늘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경제활동 인구, 대전 2.8% · 충남 2.1%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의 표본 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

한 07년 5월중 15세 이상 대전시 인구는 11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3000명)보다 2만2000명(1.8%),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으로 전년동월(70만1000명)보다 1만9000

명(2.8%) 각각 증가했으며 충남의 경우 인구는 15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51만5000명)보다 3만3000명(2.2%), 경제활동인구는 10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04만1000명)보다 2만2000명(2.1%) 각각 증가했다.

/박해용 기자

충청투데이 6월 14일 8면

5월 고용동향

실업률

대전 하락, 충남·북 상승

지난달 대전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었고 실업률도 크게 떨어진 반면 충남과 충북지역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5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의 취업자 수는 69만 2000명으로 1년 전(67만 명)보다 2만 2000명(3.3%)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3만 1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3000명(-7.8%)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에 비해 0.5%포인트나 줄었다.

충남지역의 취업자 수는 103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101만 9000명)보다 1만 7000명(1.6%)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같은기간 2만 2000명 보다 4000명이 늘은 2만 6000명

(21.2%)이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2.1%에서 0.4%포인트 증가한 2.5%를 나타냈다.

충북지역 취업자는 7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70만 6000명)보다 3000명(0.5%)이 증가했다.

실업자는 1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나 증가했고 실업률도 2.0%로 0.2% 포인트 상승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실업자 대전 감소 충남 증가

5월중 지역내 실업자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대전은 줄고 충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 충남 모두 지난달 보다는 실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2007년 5월 대전 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3만1천명)에 비해 2천명(-7.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달인 4월에 비해서는 실업자가 1천명 증가했다.

대전지역 실업자가 증가한 것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줄어 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대전 지역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5천명으로 전년동월(117만3천명)보다 2만2천

5월중 대전 2만8천명 전년동월비 2천명 -7.8%

충남은 2만6천명 전년동월비 5천명 21.2%

명(1.8%),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으로 전년동월(70만1천명)보다 19천명(2.8%) 각각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59.7%)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는 69만2천명으로 전년동월(67만명)보다 2만2천명(3.3%)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9만6천명으로 전년동월(57만4천명)보다 2만2천명(3.8%)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1만3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0%) 감소했고 광공업은 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과 같게 나타났다.

5월중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2만2천명)보다 5천명(21.2%) 늘었다.

실업자가 증가한 원인은 농림어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줄어든 것 때문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154만9천명으로 전년동월(151만5천명)보다 3만3천명(2.2%), 경제활동인구는 10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104만1천명)보다 2만1천명(2.1%)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8.6%로 전년동월(68.7%)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강현준기자

대전 실업률 4% '전국 3위'

실업자 대전 2만9000명·충남 2만2000명

전국 평균 3.2%로 전년比 0.2%p 하락

신규 취업자가 전국적으로 10개월만에 30만명을 넘었으나 대전지역 실업률은 여전히 4%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실업률(3.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11일 대전·충남통계청이 밝힌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전보다 취업자가 대전 1만9000명, 충남 3만9000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의 6월중 경제활동인구는 7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69만 8000명)보다 1만 9000명(2.8%)이 각각 증가했다.

6월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9.9%로 지난해 6월(59.3%)보다 0.6%포인트, 2/4분기는 59.8%로 전년동분기(59.2%)보다 0.6%포인트 각각 늘었다.

대전지역 6월 중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 8000명)보다 1000명(2.9%)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과는 같게 나타났다. 이같은 대전지역 실업률은 광주(4.3%), 인천(4.1%)에 이어 전국 3위로 기록한 것이다.

충남지역의 6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106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103만 2000명)보다 3만 8000명(3.7%) 각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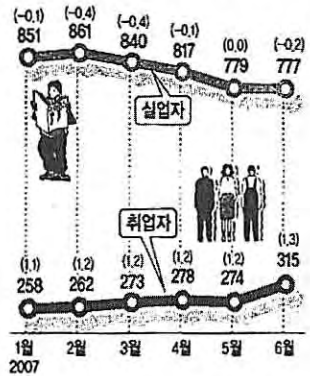
경제활동 참가율은 68.9%로 전년동월(67.9%)보다 1.0%포인트, 2/4분기는 68.2%로 전년동분기(67.6%)보다 0.6%포인트 각각 늘었다.

6월중 실업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2만 3000명)에 비해 1000명(-4.3%),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2.2%)에 비해 0.1%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전국의 6월 취업자수는 2381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5000명(1.3%) 증가했고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다. 고용율(취업인구 비율)은 60.8%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

단위/천명,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연립뉴스그래픽

자료/통계청

실업자는 7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만2000명(-5.1%) 감소했고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또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45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7만3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졌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15세 이상 인구 274만9천명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시와 충청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4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일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실시해 11일 발표했다.

올해 6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대전이 11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6000명)보다 2만1000명(1.8%), 경제활동인구는 7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69만8000명)보다 1만9000명(2.8%) 각각 증가했으며, 2/4분기 인구는 119만5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17만3000명)보다 2만2000명(1.8%), 경제활동 인구는 71만4000명으로 전년 동분기(69만5000명)보다 2만명(2.9%) 각각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인구는 15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51만9000명)보다 3만3000명(2.2%), 경제활동 인구는 10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03만2000명)보다 3만8000명(3.7%) 각각 증가했으며 2/4

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54만9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51만5000명)보다 3만3000명(2.2%), 경제활동 인구는 105만7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02만4000명)보다 3만3000명(3.2%)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의 6월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59.9%로 전년동월(59.3%)보다 0.6%포인트, 2/4분기는 59.8%로 전년 동분기(59.2%)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으며 충남의 6월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68.9%로 전년동월(67.9%)보다 1.0%포인트, 2/4분기는 68.2%로 전년동분기(67.6%)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대전의 6월중 취업자는 6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67만명)보다 1만9000명(2.8%), 2/4분기 취업자는 68만6000명으로 전년 동분기(66만6000명)보다 2만1000명(3.1%) 각각 증가했으며 충남의 6월중 취업자는 10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100만9000명)보다 3만9000명

(3.8%) 증가했고 2/4분기 취업자는 103만3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00만3000명)보다 3만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6월중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8000명)보다 1000명(2.9%)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과 같게 나타났으며, 2/4분기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 동분기(2만9000명)에 비해 1000명(-3.1%),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분기(4.2%)에 비해 0.3%포인트 각각 감소했으며, 충남은 이달중 실업자는 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2만3000명)에 비해 1000명(-4.3%),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2.2%)에 비해 0.1%포인트 각각 감소했고, 2/4분기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 동분기(2만1000명)보다 3000명(14.2%),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분기(2.1%)보다 0.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박해용 기자

대전 실업률 4.3% 전국 1위

충남 2.4%, 충북 2.0% 전국 평균보다 낮아

대전지역 7월 실업률이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충남은 2.4%, 충북 2.0%로 전국 평균(3.2%)보다 훨씬 낮았다.

16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7월중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으로 지난해 7월(69만7000명)보다 2만3000명(3.3%) 증가했다. 또 7월중 전체 취업자는 6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3.7%) 증가했다.

그러나 7월중 대전지역 실업자는 3만 1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000명(5.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의 실업률(4.3%)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실업률(4.0%)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랐으나 작년 7월에 비해서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역 건설업 경기의 부진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산업별 취업자 중 건설업의 경우 5만 7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4000명, 지난해 6월에 비해서 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대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1년전에 비해 1만9000명이 늘었다.

대전의 실업자는 남자가 2만1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00명 증가했으며, 여자는 1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000명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7월중 경제활동인구는 106만명으로 전년동월(102만7000명)보다 3만3000명(3.2%) 증가했고, 전체 취업자는 10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00만명)보다 3만5000명(3.5%) 늘었다.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2만7000명)에 비해 2000명(8.4%) 감소했다.

〈구재숙 기자〉

대전 실업률 4.3% '전국 최고' | 상반기 감소후 다시 상승 충남 0.3%p 감소한 2.4%

7월중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7월 대전시·충남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취업자는 6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3.7%) 증가했다.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보다 0.4%p 감소했으나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

에 이어 부산(4.2%), 인천(4.1%), 서울(3.8%) 등의 실업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증가한 반면, 여자는 3.4%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p 감소했다. 대전지역 실업률은 올해 1월 4.6%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지난 4월(3.8%), 5월(3.9%)에는 4%를 밑돌았으나 6월(4.0%)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중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명(-8.4%)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2.7%)에 비해 0.3%p 줄었다. 성별 실업률은 남자는 2.3%로 전년 동월에 비해 0.8%p 감소한 반면, 여자는 2.4%로 지난해 7월보다 0.3%p 증가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 2007년 7월 대전·충남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72만명... 소폭 증가

전년동월 比 3.3% ↑ ... 실업자 5.5%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3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집계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올해 7월중 15세 이상 대전 지역 인구는 11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7000명)보다 2만1000명(1.7%),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으로 전년동월(69만7000명)보다 2만3000명(3.3%)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59.2%)보다 0.9%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는 6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66만5000명)보다 2만4000명(3.7%)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5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57만3000명)보다 2만2000명(3.8%), 농림어업은 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만2000명)보다 1000명(10.8%), 광공업은 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7만9000명)보다 2000명(2.3%) 각각 증가했고 직업별로 보면 농

림어업직은 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9000명)보다 4000명(43.3%),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1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8만4000명)보다 1000명(0.4%), 사무직은 1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9만2000명)보다 1만2000명(13.1%), 서비스·판매직은 18만4000명으로 전년동월(18만1000명)보다 3000명(1.5%),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20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9만9000명)보다 6000명(2.9%) 각각 증가했다.

또 실업자는 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3만3000명)에 비해 2000명(-5.5%)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48만명)에 비해 3000명(-0.6%) 감소했다.

한편 충남지역 인구는 15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52만1000명)보다 3만1000명(2.0%), 경제활동인구는 106만명으로 전년동월(102만7000명)보다 3만3000명(3.2%) 각각 증가했다.

7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전년동월(67.5%)보다 0.8%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는 103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00만명)보다 3만

5000명(3.5%)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6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59만7000명)보다 2만명(3.3%), 광공업은 17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4만6000명)보다 2만6000명(17.9%) 각각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2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25만7000명)에 비해 1만1000명(-4.2%) 감소했고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직은 2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23만9000명)에 비해 7000명(-2.9%), 사무직은 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1만1000명)에 비해 1만3000명(-11.8%) 각각 감소했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1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13만3000명)보다 4000명(2.7%), 서비스·판매직은 2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21만4000명)보다 1만8000명(8.4%),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3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30만2000명)보다 3만4000명(11.2%) 각각 증가했다.

또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2만7000명)에 비해 2000명(-8.4%)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49만4000명)에 비해 2000명(-0.4%) 감소했다.

/ 박해용 기자

기고



임 명 선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며 이들을 일컫는 용어 또한 국가마다 다양한 것을 보면 그 문제가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켑거루족이다. 이는 취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않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사용되었다.

비슷한 말로 미국에선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낀 세대 (betwixt and between)라 하여 트웝스터(twixter),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금을 축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키퍼스(kippers),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맘모네(mammone),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 생활한다는

청년실업과 켑거루족

뜻으로 부메랑 키즈 (boomerang kids)라 부르는 등 직장이 없어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젊은이에 대한 신조어가 국제적으로 만연한 것을 보면 청년실업이 글로벌 문제임을 짐작케 하는 쓸쓸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현재 전국의 실업률은 3.2%이나 청년(15~29세)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3배 수준으로 청년 실업자 수는 35만6000명에 이른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유지하는 추세여서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요측면은 경제성장 속도 둔화에 따른 고용흡수력 감소와 신규채용자 보다는 경력 근로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한 공급측면은 대학진학률의 급증에 따른 대졸자수가 늘어나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로 말미암아 3D업종을 기피하는 등 경제 현실과 맞지 않게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짐으로써 청년 실업자수가 증가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청년실업률이 OECD 국가(2005년 평균 전체실업률 6.6%, 청년실업률12.8%)에 비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사회의 리더이자 국가의 기둥인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를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여러 관제부처와 공동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마련하여 다방면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대체로 단기적인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불과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인력육성,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면 한다.

미래의 주인공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미 품안에서 맴도는 켑거루가 아니라 넓디넓은 초원을 달리는 멋진 켑거루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나만의 소박한 희망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해결 해주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대전 실업률 전국 1위

8월 4.5%... 충남·북은 각각 1.8%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고용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시의 실업률이 4.5%로 전국 평균(3.1%)을 훨씬 뛰어넘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충남과 충북의 실업률은 각각 1.8%에 불과했다.

대전지역의 8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7%로 전년동월(58.6%)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3만명)보다 2000명(6.3%)

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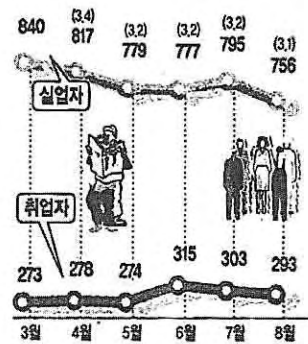
대전은 지난 7월에 비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7000명, 상용 및 임시근로자 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또한 전년도 동월에 비해선 건설업 5000명, 전기·운수창고·금융업에서 7000명, 일용근로자에서 9000명이 각각 줄어드는 등 산업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전의 실업률은 지난 달과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2%포인트, 6.3% 포인트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에 실업자가 지난해 부

전국 취업자 및 실업자 추이

단위/천명, ()=%, 실업률



연령별 통계

자료/통계청

터 3만명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실업률은 대전에 이어 인천과 광주가 4.0%, 부산이 3.9%, 서울이 3.8%를 보였다.

〈구재숙 기자〉



대전 실업률 4.5% '전국 최고'

지난달보다 0.2%p 늘어...취업자수는 소폭 증가 충남은 산업단지·기업입주 증가덕에 1.8% 기록

대전지역 실업률이 8월 들어서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0.2%p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실업률 평균치인 3.1%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와 강원도의 실업률만이 증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충남도 실업률은 수도권과 차별화된 입지조건에 따른 산업단

지 및 기업입주 증가 요인 등이 반영돼 1.8%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 7월과 비교해 0.6% 감소한 수치다.

전국 취업자 수는 23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29만 3000명(1.3%) 증가했으며, 대전은 68만 3000명으로 2만 3000명(1.1%), 충남은 102만 4000명으로 3만 1000명(3.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직업별로 보면 대전의 경우 농림어업직이 1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명(46.1%)이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

을 기록한 가운데,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 서비스판매직도 각각 증가했다. 다만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20만 2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1% 감소했다.

충남은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 서비스판매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3~9%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은 22만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만 3000명(5.3%) 감소해 최근 변화된 산업상을 반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전국 약 3만 3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 및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과 관련된 35개 항목을 통해 진행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대전지역 실업률 6개월만에 최고

8월 4.5%... 충남 1.8% 최저

대전지역 실업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4.5%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던 대전 실업률이 지난달 다시 4.5%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또다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충남지역 실업률은 지난달 1.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전충남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8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실업률은 4.5%, 실업자도 3만 2000명에 달했다.

대전 실업률은 지난 2월 4.5%, 3월 4.3%, 4월 3.8%로 감소하다 5월 들어 3.9%, 6월 4.0%, 7월 4.3% 등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도 지난 2·3월 각 3만 명, 4월 2만 7000명으로 떨어졌지만 5월 2만 8000명, 6월 2만 9000명, 7월 3만 1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계절적 영향이나 특이 사항이 있어 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 같지는 않다"며 "자연 증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실업률은 지난달 1.8%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2년 평균 2.7%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자도 1만 9000명으로 지난해 4월 1만 9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 실업률도 1.8%, 실업자 수도 1만 3000명에 그치며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

/임호범·박현호 기자

◇최근 1년간 실업률 추이

(단위:%)

시도별	2006.09	2006.10	2006.11	2006.12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7	2007.08	2007.9
대전	4.3	4.7	4.2	4.2	4.6	4.5	4.3	3.8	3.9	4.0	4.3	4.5	3.7
서울	4.2	4.6	4.3	4.3	4.7	4.6	4.2	4.1	3.8	3.6	3.8	3.8	3.8
부산	3.7	3.6	3.9	4.0	4.1	4.2	4.3	4.2	3.7	3.8	4.2	3.9	3.5
대구	3.5	3.6	3.7	4.1	4.3	4.2	4.0	3.9	3.5	3.3	3.5	3.6	3.3
인천	4.2	4.2	4.0	4.5	4.6	4.6	4.3	4.0	3.9	4.1	4.1	4.0	3.9
광주	3.9	4.1	4.0	3.9	4.2	4.4	4.2	4.0	4.1	4.3	3.7	4.0	3.6
전국평균	3.2	3.3	3.2	3.3	3.6	3.7	3.5	3.4	3.2	3.2	3.2	3.1	3.0

대전 실업률 고공행진 계속

3분기 3.7%로 전국 평균 넘어

대전지역 실업률이 최근 1년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의 실업률이 평균 3%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은 4% 내외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7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률은 3.7%로 전국 평균 3.0%를 훌쩍 넘겼다. 인천(3.9%)과 서울(3.8%)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1.8%였다.

대전의 실업률은 지난해 9월 4.3%, 10월 4.7%, 11월과 12월 4.2%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4.6%(1월),

4.5%(2월), 4.3%(3월), 3.8%(4월), 3.9%(5월), 4.0%(6월), 4.3%(7월), 4.5%(8월)로 전국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실업률(3.1%~3.7%)에 비해 대전은 4%대를 무려 10개월이나 기록한 것이다.

그나마 9월 중 대전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3만명)에 비해 4000명이 감소했다.

내용상으로는 건설업의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취업자가 6000명 줄었으나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은 1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또 대전은 올 3/4분기 연령별 실업률에서 15-29세가 8.6%(남자 11.3%), 30-59세

가 3.0%(남자 2.9%)를 차지해 극심한 청년 실업률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대전이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산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적극적으로 벤처등 첨단산업과 외자유치 빈곤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최근 대전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도원건설, 오성종합건설)이 '지역에 일거리 없어' 대전을 떠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진옥 대전시경제과 학국장은 "과학기술도시 특성상 대전에서 발전되고 있는 산업은 벤처기업등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높지만 고용 숫자가 적다"며 "여기에 대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구재욱 기자)



대전충남 취업률 3.3% 늘어

3/4분기 171만 7천명... 대전 60세이상 취업자 18.3% 증가

대전충남의 올해 3/4분기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남은 일용직근로자 비율이, 대전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질높은 일자리 창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취업자 수는 68만7000명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2만2000명(3.3%), 충남은 103만명으로 3만3000명(3.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대전은 4만9000명으로 8000명(18.3%)이, 충남은 22만1000명으로 5000명(7.7%) 각각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사업 및 공공서

대전충남 3/4분기 고용동향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대전	68만 7000명 (3.3% ↑)	3만명(4.2% ↓)
충남	103만명 (3.3% ↑)	2만 1000명(14.9% ↓)

가 2만 6000명
으로
3000명
(12.9%),
충남은

비사업이 대전 28만1000명, 충남 25만8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대전은 농림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충남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로는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율이 대전 3.6%, 충남 5.1% 이하의 증가세에 머물렀으며, 18~35시간 근무자 비율이 대전 41.2%, 충남 35.5%를 차지해 취약한 취업구조의 단면을 보여줬다.

특히 대전은 무급가족종사자 수

일용 근로자가 10만9000명으로 3만명(22.7%) 각각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대전이 3만명으로 1000명(4.2%), 충남은 2만1000명으로 4000명(14.9%) 각각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대전은 여성이 10.4%, 충남은 남성이 26.9%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대전충남의 약3300가구 내 상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역병과 공익요원,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됐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충청 고용시장 모처럼 안정

대전 실업률 22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충청권 고용시장이 오랜 만에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실업률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충남·북 지역 실업률도 1% 내에 머물렀다. 취업자 수도 대전과 충남·북지역 모두 증가했다. 17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9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1년 전 3만 명에 비해 4000명(-13.2%)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1년 전 4.3%보다 0.6%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 실업률은 2005년 11월 3.4%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4월 3.8%, 5월 3.9%, 6월 4.0%, 7월 4.3%, 8월 4.5% 등으로 줄곧 증가하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전 취업자 수는 68만 7000명으로 1년 전 66만 9000명보다 1만 8000명(2.8%)이 늘었다.

충남 실업률도 2개월 연속 1.8%대에 머물렀다.

실업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1년 전 2만 5000명(-14.9%)에 비해 6000명이 줄었으며, 실업률도 같은 기간 0.6%포인트 준 1.8%였다.

취업자 수는 10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 99만 7000명보다 3만 4000명(3.4%)이 증가했다.

충북 실업자 수는 1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줄었고 실업률도 0.4%포인트가 준 1.8% 각각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보다 1만 1000명이 증가한 71만 6000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취업자는 늘고 실업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임시근로자나 무급가족 종사자도 함께 늘고 있어 고용시장이 회복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대전·충남 통계청 9월 대전·충남 고용동향 발표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실업률 감소

(경제활동인구 2.1% ↑)

(실업률 4.3%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4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고용동향은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9000명)보다 1만9000명(1.6%), 경제활동인구는 7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69만9000명)보다 1만5000명(2.1%)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59.3%)보다 0.2%포인트, 3/4분기는 59.8%로 전년동분기(59.0%)보다 0.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취업자는 6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66만9000명)보다 1만9000명(2.8%) 증가했고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3만명)에 비해 4000명(-13.2%),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4.3%)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9월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48만명)보다 5000명(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경우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52만5000명)보다 2만7000명(1.8%), 경제활동인구는 105만명으로 전년동월(102만2000명)보다 2만8000명(2.8%) 각각 증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7.7%로 전년동월(67.0%)보다 0.7%포인트, 3/4분기는 67.7%로 전년동분기(67.1%)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취업자는 10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99만7000명)보다 3만4000명(3.4%) 증가했고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5000명)에 비해 6000명(-22.4%),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2.4%)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9월중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2000명으로 전년동월(50만3000명)에 비해 2000명(-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용 기자



대전·충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대전·충남지역 실업률 전년동월 대비 0.6% 포인트 감소

대전·충남지역 실업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대전은 2.1%, 충남은 2.8% 각각 증가했다.

17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9월 및 3/4분기 대전·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4.3%)에 비해 0.6%포인트, 충남은 1.8%로 전년동월(2.4%)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대전지역 지난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8천명으로 전년동월(117만9천명)보다 1만9천명(1.6%), 경제활동인구는 7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69만9천명)보다 1만5천명(2.1%) 각각 증가했다.

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8천명으로 전년동분기(117만8천명)보다 2만명(1.7%), 경제활동인구는 71만6천명으로 전년동분기(69만5천명)보다 2만1천명(3.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59.3%)보다 0.2%포인트, 3/4분기는 59.8%로 전년동분기(59.0%)보다 0.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취업자는 68만7천명으로 전년동

월(66만9천명)보다 1만9천명(2.8%) 증가했으며 3/4분기 취업자는 68만7천명으로 전년동분기(66만4천명)보다 2만2천명(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자는 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3만명)에 비해 4천명(-13.2%),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4.3%)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3/4분기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동분기(3만1천명)에 비해 1천명(-4.2%), 실업률은 4.1%로 전년동분기(4.5%)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중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48만명)보다 5천명(1.0%) 증가했으며 3/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2천명으로 전년동분기(48만3천명)에 비해 1천명(-0.2%) 감소했다.

한편 충남지역은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2천명으로 전년동월(152만5천명)보다 2만7천명(1.8%), 경제활동인구는 105만명으로 전년동월(102만2천명)보다 2만8천명(2.8%) 각각 증가했다.

또한 3/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2천명으로 전년동분기(152만3천명)보다 2만9천명(1.9%), 경제활동인구는 105만1천명으로 전년

동분기(102만2천명)보다 3만명(2.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67.7%로 전년동월(67.0%)보다 0.7%포인트, 3/4분기는 67.7%로 전년동분기(67.1%)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9월중 취업자는 103만1천명으로 전년동월(99만7천명)보다 3만4천명(3.4%) 증가했으며 3/4분기 취업자는 103만명으로 전년동분기(99만7천명)보다 3만3천명(3.3%) 증가했다.

지난 9월중 실업자는 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2만5천명)에 비해 6천명(-22.4%),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2.4%)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또 3/4분기 실업자는 2만1천명으로 전년동분기(2만5천명)에 비해 4천명(-14.9%), 실업률은 2.0%로 전년동분기(2.4%)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중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50만3천명)에 비해 2천명(-0.3%) 감소했으며 3/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1천명으로 전년동분기(50만2천명)에 비해 1천명(-0.2%) 감소했다.

/양희룡 기자

대전 · 충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 발표 9월 대전 충남 고용동향

실업률 대전 3.7%, 충남 1.8% 각각 0.6% 감소

경제활동인구 대전 71만4천명 충남 105만명

대전 · 충남지역 실업률이 전년 같은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대전은 2.1%, 충남은 2.8% 각각 증가했다.

17일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9월 및 3/4분기 대전 · 충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4.3%)에 비해 0.6%포인트, 충남은 1.8%로 전년동월(2.4%)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대전지역 지난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17만9000명)보다 1만9000명(1.6%), 경제활동인구는 7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69만9000명)보다 1만5000명(2.1%) 각각 증가했다.

3/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19만8000명으로 전년동분기(117만8000명)보다 2만명(1.7%), 경제활동인구는 71만6000명으로 전년동분기(69만5000명)보다 2만1000명(3.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59.3%)보다 0.2%포인트, 3/4분기는 59.8%로 전년동분기(59.0%)보다 0.8%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취업자는 6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66만9000명)보다 1만8000명(2.8%) 증가했으며 3/4분기 취업자는 68만7000명으로 전년동분기(66만4000명)보다 2만3000명(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3만명)에 비해 4000명(-13.2%),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4.3%)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3/4분기 실업자는 3만명으로 전년동분기(3만1000명)에 비해 1000명(-4.2%), 실업률은 4.1%로 전년동분기(4.5%)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지역은 9월중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152만5000명)보다 2

만7000명(1.8%), 경제활동인구는 105만명으로 전년동월(102만2000명)보다 2만8000명(2.8%) 각각 증가했다.

또한 3/4분기 15세 이상 인구는 155만2000명으로 전년동분기(152만3000명)보다 2만9000명(1.9%), 경제활동인구는 105만1000명으로 전년동분기(102만2000명)보다 3만명(2.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67.7%로 전년동월(67.0%)보다 0.7%포인트, 3/4분기는 67.7%로 전년동분기(67.1%)보다 0.6%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9월중 취업자는 103만1000명으로 전년동월(99만7000명)보다 3만4000명(3.4%) 증가했으며 3/4분기 취업자는 103만명으로 전년동분기(99만7000명)보다 3만3000명(3.3%) 증가했다.

지난 9월중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5000명)에 비해 6000명(-22.4%),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2.4%)에 비해 0.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또 3/4분기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동분기(2만5000명)에 비해 4000명(-14.9%), 실업률은 2.0%로 전년동분기(2.4%)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경래 기자

대전·충남 고용 안정세 유지

11월 실업자 전년대비 각 8.1%·22.1%감소
경제활동 참가율 각 0.8%·0.7%포인트 늘어

대전과 충남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전·충남지역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데 이어 11월 중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1%와 22.1%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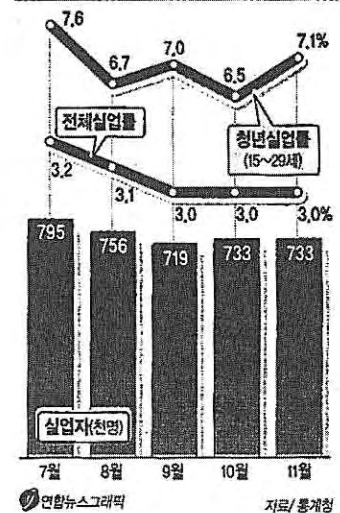
대전지역 실업자는 지난달 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00명이 줄어든 반면 취업자는 69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3000명(3.4%) 증가했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이 감소했고, 취업자는 100만 7000명으로 조사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2000명(3.3%)이 늘었다.

대전의 경제활동인구는 7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 명이 증가했고, 충남은 102만 6000명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2만 7000명이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의 경우 전년 동월(59.6%)보다 0.8%포인트 증가한 60.4%로 나타났고, 충

실업률·실업자 추이



남은 66.1%로 전년 동월(65.4%)보다 0.7%포인트 늘어났다. /최창준 기자

대전지역 실업률 4% '전국 1위'

충남 1.9%·충북 2.2%로 전국 평균 밀돌아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발표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인 4.0%를 기록하는등 고용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전·충남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실업률은 4.0%를 보였다. 1년전인 지난해 10월의 실업률도 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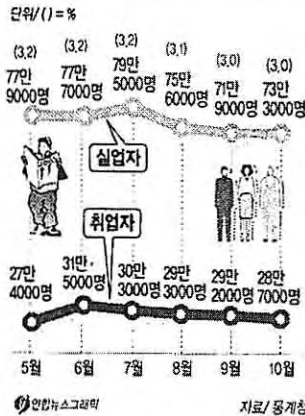
이에비해 충남과 충북의 실업률은 1.9%, 2.2%로 전국 평균(3.0%)보다 훨씬 낮았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지난해 1과 2월 각각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에도 3개월을 제외하곤 22개월동안 4%대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의 취업자는 1년전에 비해 전기·운수창고·금융업에서 5000명, 일용근로자 5000명, 건설업에서 3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는 69만7000명, 실업자는 2만9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

자수는 23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7000명(1.2%) 늘었다.

전국 실업자·취업자 추이



이는 지난달의 29만2000명 증가에서 5000명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6월 31만5000명, 7월 30만3000명으로 2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어섰지만 8월에 29만3000명으로 내려선 이후 3개월째 30만명에 못미쳤다. 전국적인 실업률은 3.0%로 작년동월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실업률 하락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률이 작년 같은달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진 3.8%를 나타냈다.

1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밝힌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실업률은 3.8%, 충남 1.8%, 충북 2.6%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의 실업률은 감소한 반면 충북은 0.7%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11월중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대전지역의 취업자는 작년 11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2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1만6000명, 광공업에서 1000명이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전기·운수창고·금융업에선 각각 5000명과 9000명이 줄었다. 충남지역의 11월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전년동월(65.4%)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총취업자는 10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만2000명이 늘었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4000명)에 비해 5000명이 감소했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 취업자 ↑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 比 다소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의 표본가구(약 3300개)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중 15세 이상 인구는 대전이 119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118만 1000명)보다 1만 9000명(1.6%), 경제활동인구는 72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70만 4000명)보다 2만명(2.9%) 각각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4%로 전년동월(59.6%)보다 0.8%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는 69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67만 4000명)보다 2만 3000명(3.4%) 증가했다.

또 실업자는 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3만명)에 비해 2000명(-8.1%)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47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47만 7000명)에 비해 2000명(-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의 경우 인구는 15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152만 7000명)보다 2만 4000명(1.5%), 경제활동인구는 102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99만 9000명)보다 2만 7000명(2.7%) 각각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1%로 전년동월(65.4%)보다 0.7%포인트 증가했고 취업자는 100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97만 5000명)보다 3만 2000명(3.3%) 증가했다.

또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2만 4000명)에 비해 5000명(-22.1%)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도 5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52만 8000명)에 비해 3000명(-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해용 기자

충청권 고용시장 안정세

통계청 “지난달 경제활동 인구 증가”

지난달 충청권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007년 10월 충청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 9000명으로 1년 전 3만 3000명에 비해 4000명(-14.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지난해 4.7%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는 67만 2000명에서 2만 5000명(3.7%) 늘은 69만 7000명으로 조사됐다.

충남지역 실업자는 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28.8%)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1.9%로 전년동월 2.7%에 비해 0.8%포인트 줄었다.

취업자는 103만 3000명으로 1년 전 99만 8000명보다 3만 5000명(3.5%) 늘었다.

충북지역은 실업자가 소폭 늘었다.

이 지역 실업자는 1만 6000명, 실업률은 2.2%로 1년 전보다 실업자가 1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는 72만 명으로 전년동월 71만 6000명에서 4000명(0.5%)이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을 많이 했고 경제활동 인구도 늘었다”며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취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고용시장이 지속적으 안정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03

연간통계

yearly statistics

문자메시지 60통 보내고 하루 2시간 컴퓨터 앞에

2007 청소년 통계

15-19세 청소년층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60통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가족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29세 청년층이 졸업 후 취업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 걸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4세 청년층의 1주일동안 컴퓨터 이용시간은 19.3시간으로 조사됐다.

◇업지족 세대...문자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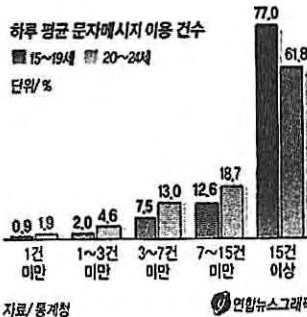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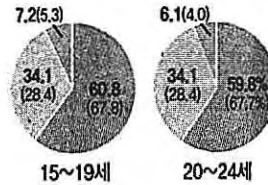
하루 60통 날려-청소년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즐겨 사용했다. 15-19세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60.1건으로 2005년의 59.5건보다 0.6건 늘었다. 20-24세 역시 평균 30.9건으로 8.3건 증가했다. 지난해 청소년의 주당 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15-19세 14시간, 20-24세 19.3시간으로 조사됐다.

◇가족들 관계 서먹=휴대전화·컴퓨터와 친한 이들 청소년들이 가족들과는 더 서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15-19세, 20-24세 청소년의 각각 60.8%, 59.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대전·충남지역의 청소년(15-19세)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57.9%, 66.1%로 나타났다. <구재숙 기자>

청소년 통계 조사결과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2006년 기준
 (1)2002년 통계

■ 만족 ■ 보통 ■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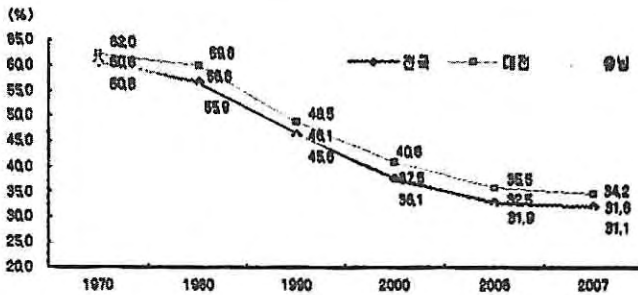


자료/통계청

연합뉴스그래픽

24세이하 청소년 인구비중 급감

지난 70년에 비해 절반 수준



청소년 인구 구성비.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은 공부와 직업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이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2007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대전 충남 지역의 청소년 인구(0~24세)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4.2%, 31.1%로, 1970년(62.0%, 60.8%)에 비해 각각 27.8%p, 29.7%p 낮아졌다.

대전지역 청소년 인구는 50만 7천명으로 총인구 148만명의 34.2%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 지역은 60만 2천명으로 총인구 193만 8천명의 31.1%를 차

지했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대전(34.2%)은 전국 평균(31.6%)보다 높고, 충남(31.1%)은 전국보다 낮으며,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197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대전 31세대, 충남 52세대로 지난 1997년(대전 81세대, 충남 417세대)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은 총 31세대 49명이며, 세대원 재학 상태별로는 초등학교 5명(10.2%), 중학교 13명(26.5%), 고등학교 30명(61.2%), 기타 1명(2.0%)으로 지난 2005년(49세대)에 비해 36.7%(18세대)가 감소했다.

충남은 총 52세대 85명이며,

미취학 4명(4.7%), 초등학교 17명(20.0%), 중학교 17명(20.0%), 고등학교 45명(52.9%), 기타 2명(2.4%)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5년(103세대)에 비해 49.5%(51세대)가 감소했다.

특히 충남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7년(417세대)에 비해서는 87.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보면 15~19세는 공부, 20~24세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15~19세는 공부가 대전 53.2%, 충남 50.0%로 가장 많고, 신체 용모 및 건강은 대전 14.4%, 충남 18.2%, 직업은 대전 12.2%, 충남 11.9%, 가정환경은 대전 7.5%, 충남 5.9% 순으로 드러났다.

또 20~24세는 직업이 대전 47.3%, 충남 45.4%로 가장 많았고, 공부는 대전 15.6%, 충남 12.9%, 신체 용모 및 건강은 대전 16.8%, 충남 17.8% 순으로 조사됐다.

대전통계청 관계자는 "해마다 청소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출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대전지역 청소년 인구 50만7천명

청소년 가장 고민하는 문제 '공부·직업'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충남지역의 청소년 관련 지역통계를 작성·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지역 통계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지난 2004년 이후 네 번째로 대전·충남지역 '2007 청소년통계'를 작성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대전지역 청소년 인구(0~24세)는 50만7000명으로 총인구 148만명의 34.2%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 지역 청소년 인구(0~24세)는 60만2000명으로 총인구 193만8000명의 31.1%를 차지해 청소년 인구(0~24세) 구성비는 대전(34.2%)은 전국(31.6%)보다 높고, 충남

(31.1%)은 전국보다 낮으며, 청소년 인구 구성비는 197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대전 31세대, 충남 52세대로 1997년(대전 81세대, 충남 417세대)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청소년 혼인 구성비는 여자(20~24세)기준으로 대전 14.0%, 충남 20.8%로 96년보다 각각 23.6%p, 27.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보면 15~19세는 공부, 20~24세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을 보면, 15~19세는 친구·동료가 대전 49.1%, 충남 4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4세 또한 친구·동료가 대전 53.3%, 충남 48.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스스로 해결, 부모·형제, 자매, 선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청소년(15~19세)의 자기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대전 57.9%, 충남 66.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 자매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대전 58.4%, 충남 60.9%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100명중 대전 92.4명, 충남 93.0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은 15~19세는 각각 51.5%, 59.0%, 20~24세는 각각 10.6%,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용기자

시설보호 청소년 더 늘었다

대전 408명·충남 342명...빈곤·학대·실직 최다

대전 '부모에 불만' 전국평균 상회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청소년들(15~19세)의 자기부모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과 실직, 학대 등으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대전지역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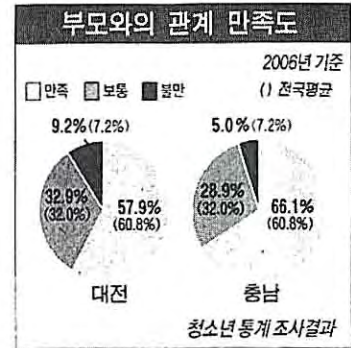
2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200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대전 15-19세 청소년의 자기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만족이 57.9%, 불만족이 9.2%였다.

대전지역은 전국평균 만족 60.8%보다 2.9%포인트 낮았으며 불만족은 전국평균 7.2%보다 2%포인트 높았다.

충남은 만족 66.1%, 불만족 5.0%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만18세 미만의 보호아동은 408명이며, 발생 유형별로는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가 204건(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비행기출 부랑아'가 157건(38.5%), '미혼모 아동'이 42건(10.3%), '기아'가 5건



(1.2%) 등의 순이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보호 아동은 342명이며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가 279명(81.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전년(2005년)과 비교하면 대전의 보호아동 수는 84명(25.9%), 충남은 79명(30.0%)이 각각 증가했다. /임호범 기자

女

작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대전 47%·충남 54%

‘생계책임’ 5가구중 1가구 여성

취업장애 육아부담 최고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전 47.1%, 충남 54.2%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여성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 일용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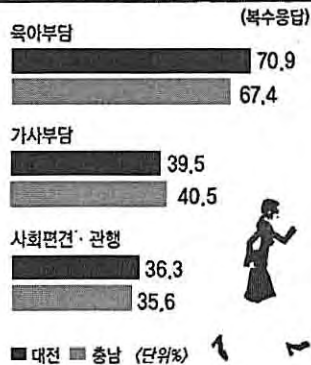
3일 대전·충남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대전·충남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각각 30.3%, 23.5%, 임시 근로자는 33.6%, 20.1%에 달했다.

대전·충남지역의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 육아부담이 70.9%, 67.4%, 가사부담이 39.5%, 40.5%, 사회적 편견과 관행이 각각 36.3%, 35.6%라고 응답했다.

지역 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수입’이 대전 68.3%, 충남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대전 4.2%, 충남 2.3%로 조사됐다.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대전·충남 모두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여성 취업자 비율은 대전 38.5%, 충남 17.0%

대전·충남 여성 취업 장애요인



였다.

전국적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는 5가구중 1가구꼴로 여성이 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근로자 임금은 남성의 63.4%에 불과했으며, 종사상 지위나 임금수준등 직업의 질 측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미흡했다.

2006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1%로 전년에 비해 0.5% 하락했지만 여성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0.3%로 집계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50.1%로 사상 첫 50%대를 돌파

했다.

지난해 전국의 여성 취업자 중 상용 임금근로자는 27.0%인 반면 임시(30.0%)와 일용(10.8%)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취업자중 상용근로자는 41.6%였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25.2%였다.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전문직 진출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44.6%에 달했고, 사법시험에서는 37.7%, 외무고시에서는 36.0%를 각각 여성이 차지했다. 9급 공무원(행정·공안직) 합격자 중 47.5%가 여성이었고, 7급 공무원 채용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25.4%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여성들이 생업전선에 내몰리면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75년 85만명에서 올해 321만7000명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19.9%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재숙 기자〉

여성 경제활동 증가

지난해 참가율 대전 47% 충남 54%

대전·충남지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이번주 여성주간을 맞아 3일 발표한 '2007년 대전·충남지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이 47.1%, 충남이 54.2%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대전은 0.5%포인트, 충남 1.6%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년에 비해 대전 0.1%포인트, 충남 0.2%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참가율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대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8세, 충남은 27.0세였으며 이혼 연령은 대전이 39.1세, 충남이 38.2세로 나타났다.

재혼 연령은 대전 39.5세, 충남 38.7세로 집계됐다.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는 40대가 대전 27.7%, 충남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취업여성은 대전 12.3%, 충남 17.0%로 전년에 비해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늘었다.

/임호범 기자

‘노령인구·이혼’ 눈에 띄게 증가

대전·충남 통계청 발표 지난 10년 사회변화상

지난 10년동안 충남의 경제력이 괄목상대해야 할 만큼 급성장했다. 또 대전과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6%)에 못미치는 52.7%, 28.7%에 달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지난 10년간 대전·충남지역 경제·사회변화상'에 따르면 노령인구와 이혼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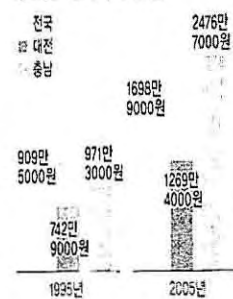
◇인구=지난해 대전시 구별 인구는 지난 96년 대비 등구만 감소했으며,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는 증가했다. 충남은 계룡시, 천안시 순으로 늘었으며 청양군, 서천군 등은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1일 출생아수는 대전 39명, 충남 51명으로 96년보다 대전 31.4%, 충남 20.6% 줄었다. 2005년 1일 사망자수는 대전 16명, 충남 38명으로 10년전에 비해 대전 5.3%가 증가한 반면 충남은 10.0%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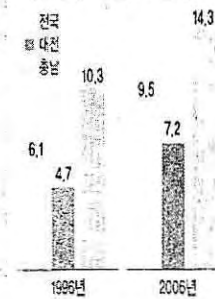
지난해 1일 이혼건수는 대전 9건, 충남 13건으로 96년 대비 대전 44.2%, 충남 84.3% 증가했다.

2006년 노인인구 비율은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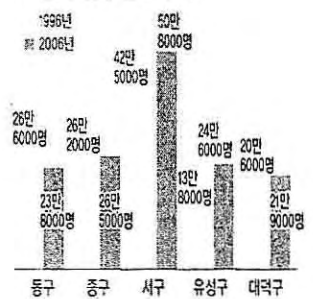
◇인당 지역내 총생산



◇노인인구 비율 (65세이상, 단위/%)



◇대전시 구별 인구 추이



총생산 대전 95% ·충남 174.2% 증가
출생아 대전 31.4% ·충남 20.6% 줄어

7.2%, 충남 14.3%로 10년전인 96년에 비해 대전 2.5%포인트, 충남 6.4%포인트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재정=2005년 지역내총생산은 대전 18조 6394억원, 충남 47조 5147억원으로 95년 대비 대전 95.0%, 충남은 174.2% 각각 증가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대전 1269만4000원, 충남 2476만7000원으로 95년에 비해 대전 70.9%, 충남 15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은행예금액은 대전 15조 7090억원, 충남 12조 550억원으로 10년전보다 대전 302.9%, 충남 279.6%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대전 52.7%

충남 28.7%로 전국평균 53.6%에 비해 낮았다.

◇수출·수입=지난해 수출실적은 대전 23억9600만달러, 충남 389억 6100만달러로 10년전에 비해 대전 325.6%, 충남 317.9%로 각각 증가했다. 수입은 대전 23억9000만달러, 충남 223만6200만달러로 96년에 비해 대전 102.9%, 충남 195.1%의 증가세를 보였다.

◇농·어업=지난해 경지면적은 대전 5626ha, 충남 24만7590ha로 10년전에 비해 대전 1479ha(20.8%), 충남 1만9035ha(7.1%)가 각각 감소했다. 농가호당 인구수는 대전 3.1명, 충남2.7명으로 10년전보다 대전 0.8명, 충남 0.5명 각각 줄었다.

◇교육·보건=2006년 유치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전 18.8명, 충남 15.6명으로 10년전인 96년에 비해 대전 10명, 충남 4.3명 감소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대전 25.0명, 충남 19.6명으로 96년 대비 대전 7.3명, 충남 0.8명 줄었다.

2005년 의료기관수는 대전 1753개, 충남 2120개로 95년에 비해 각각 61.7%, 62.2% 증가했다.

◇사회·문화=2005년 범죄발생건수는 대전 5만1155건, 충남 7만 4919건으로 10년전에 비해 대전 59.4%, 충남 59.3% 늘었다. 지난해 화재발생건수는 대전 880건, 충남 1357건으로 96년보다 대전 25.2%, 충남 52.1% 증가했다.

2006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대전 5342건, 충남 8378건으로 10년전에 비해 대전 12.7%, 충남 42.9% 줄었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통계청, 지난 10년간 지역 경제·사회 변화상

“대전·충남지역, 2004년 여름 가장 더웠다”

2006년 노인인구 비율 1996년 比 각각 2.5%p·6.4%p 증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001년부터 대전·충남지역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경제·사회의 변화상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은 지난 10년간의 자료 비교를 통한 경제사회 변화상을 작성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자료 비교는 2006년과 1996년 비교를 기본으로 했으며 일부 자료는 아직 공표전으로 2005년과 1995년을 비교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은 국토 총면적 9만9678.1km² 중 대전 539.8km², 충남 8599.9km²로 전국대비 각각 0.54%, 8.63% 차지했으며 지난 10년간 대전·충남지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한 해는 2004년 충남 37.1℃, 최저 기온을 기록한 해는 2001년 충남 -1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전시 구별인구는 1996년 대비 동구만 감소,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증가했고 2006년 충남 시군별 인구는 1996년 대비 계룡시, 천안시 순으로 증가, 청양군, 서천군 순으로 감소했다.

2006년 1일 출생아수는 대전 39명, 충남 51명으로 1996년 대비 대전 31.4%, 충남 20.6% 감소했고 2005년 1일 사망자수는 대전 16명, 충남

38명으로 1995년 대비 대전 5.3% 증가, 충남 10.0% 감소했다.

2006년 1일 혼인건수는 대전 26건, 충남 37건으로 1996년 대비 대전 17.9%, 충남 11.0% 감소했으며 2006년 1일 이혼건수는 대전 9건, 충남 13건으로 1996년 대비 대전 44.2%, 충남 84.3% 증가했다. 2006년 노인인구 비율은 대전 7.2%, 충남 14.3%로 1996년 대비 대전 2.5%p, 충남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 58.9%, 충남 65.3%로 2000년 대비 대전 1.3%p, 충남 2.4%p 증가고 2006년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계층은 30-49세로 2000년 대비 대전 14.2%, 충남 9.4% 증가했다.

농·어업 2006년 경지면적은 대전 5626ha, 충남 24만 7590ha로 1996년 감소했고 2005년 사업체는 199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는 증가했고 토지 거래면적은 증가한 반면 주택건설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자가용 등록대수는 대전 38만9976대, 충남 45만 8535대로 1996년 대비 각각 82.9%, 110.4% 증가했다.

2005년 지역내총생산은 대

전 18조6394억원, 충남 47조 5147억원으로 1995년 대비 대전 95.0%, 충남은 174.2% 증가했으며 2006년 은행예금액은 대전 15조7090억원, 충남 12조5500억원으로 1996년 대비 대전 302.9%, 충남 279.6% 증가했고 2006년 은행대출금은 대전 15조8260억원, 충남 15조9500억원으로 1996년 대비 대전 285.3%, 충남 343.2% 증가했다.

2006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는 1996년 대비 대전 28.5%p, 충남 27.8%p 증가한 반면 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감소했고 의료기관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발생건수와 화재 발생건수는 증가한 반면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했다.

2005년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는 대전 2만6986명, 충남 1만 4274명으로 1995년 대비 대전 105.0%, 충남 403.8% 증가했고 2006년 수출실적은 대전 23억9600만 달러, 충남 389억6100만 달러로 1996년 대비 대전 325.6%, 충남 317.9% 증가했고 2006년 수입실적은 대전 23억 9000만 달러, 충남 223억6200만 달러로 1996년 대비 대전 102.9%, 충남 19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해용 기자

황혼이혼 10년새 6배 급증 노인 5명중 1명 연금 받아

2007 고령자 통계

올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전은 전체인구 중 7.6%, 총남 14.7%를 차지했다.

또 전국적으로 노인들의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으며 노인 5명 중 1명은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노인들의 이혼 급증=지난해 65세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남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3087건, 여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1251건으로 10년전인 1996년과 비교해 여자기준 노인 이혼건수가 6.3배나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이혼건수가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적 보호가 법제화되는 등 소득보장이 되면서 노인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5세이상 인구의 재혼건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 남자는 1761건, 여자는 509건으로 10년전(1996년)에 비해 1.9배와 3.0배가 각각 증가했다.

◇노인 5명중 1명 공적연금 받아=고령층 인구 약 5명 가운데



데 1명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률은 19.0%(수급자 87만 497명)로, 1년 전인 2005년의 16.1%(70만 4187명)보다 3% 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구재숙 기자)

황혼이혼 10년새 3~7배 증가

고령인구 비율 대전 7.6% 충남 14.7%

10년 전과 비교한 대전충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이혼율이 작게는 3배에서 크게는 7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황혼이혼 등 달라진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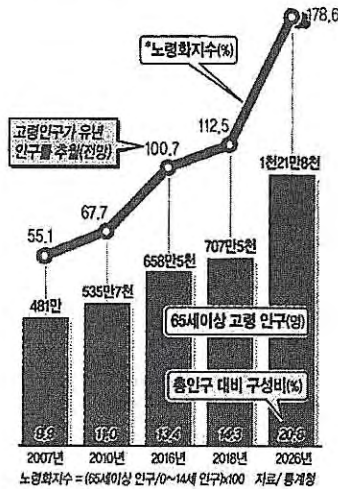
1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고령자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대전의 경우 남성 기준 57건과 여성 기준 23건, 충남의 경우 119건, 43건이다.

이를 1996년과 비교할 경우, 대전은 남자기준 3배, 여자기준 7.7배, 충남은 3.7배, 3.3배로 각각 조사됐다.

올해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대전이 7.6%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14.7%로 전국 평균 9.9%를 상회했으며 2023년에는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 100명당 남자인구를 나타내는 성비는 대전이 68.7명, 충남 68.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7년과 비교해 다소 많아진 수치로 남성 고령자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눠 계산한 노령화지수는 대전이 39.4%, 충남이 82.6%를,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이하 인구로 나눠 계



산한 노년부양비는 대전이 9.6명당 1인, 충남이 4.6명당 1인으로 각각 조사됐다.

사망률은 남녀 공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크게 증가해, 의료산업 발달에 따른 영향을 반영했다.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이 17%로 2005년과 비교해 0.3%p 감소한 반면, 충남은 46%로 3.7%p 증가했으며,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전이 5.9%, 충남이 10%로 전국 평균 5.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흡연인구 비율은 대전은 16.8%, 충남은 19.7%로 2003년과 비교해 0.7%p 각각 증가했으며, 음주인구 비율은 대전이 32.7%로 2003년과 비교해 12.1%p, 충남이 42.5%로 12.3%p 각각 증가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대전·충남지역 올해 고령자통계 발표

65세 이상 대전 11만3천명·충남 28만 6천명

최근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의 각종 고령자통계 자료를 이용해 고령인구의 특성이나 가족, 노동 등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령자 삶에 대한 변화상을 알기 쉽게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통계에서 고령자는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다만 인용한 원(原)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65세 이상 인구는 대전 11만3000명, 충남 28만6000명, 전국 481만명으로 각각 전체인구 중 7.6%, 14.7%,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대전 6.1%, 충남 4.8%, 전국 8.0%, 여자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대전 11.8%, 충남 17.8%, 전국 11.9%를 차지했다.

올해 대전 생산가능인구 9.6명당 노인 1명, 충남 4.6명당 노인 1명, 전국 7.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며, 오는 2030년에는 대전 3.1명당 노인 1명, 충남 2.4명당 노인 1명, 전국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또 남자 60대 사망률은 10년(1996년) 전보다 1000명당 대전 6.7명, 충남 9.4명 감소했으며 지난해 남자 사망률은 대전 4.4명으로 여자 사망률 3.7명보다 0.7명 높고 충남은 7.5명으로 여자 사망률 6.2명보다 1.3명 높으며, 전국은 5.5명

로 여자 사망률 4.5명보다 1.0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대전이 남자기준 57건, 여자기준 23건이었고, 충남은 각각 119건, 43건, 전국은 각각 3087건, 1251건이었으며 지난 1996년과 비교하면 남자기준으로 대전 3.0배, 충남 3.7배 증가했고 여자기준으로 대전 7.7배, 충남 3.3배 증가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 17.0%, 충남 46.0%, 전국 30.5%로 지난 2005년보다 충남은 3.7%p, 전국은 0.5%p 각각 증가했고 대전은 0.3%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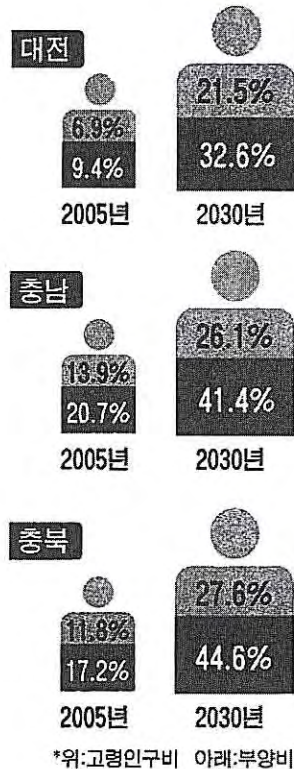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 7641명, 충남 2만1936명으로, 수급률은 각각 7.2%, 7.9%이며 자원봉사 참여율은 대전 5.9%, 충남 10.0%, 전국 5.3%이다. /박해용 기자

충청도 초고령 시대로 간다

2007년 고령자 통계

오는 2030년이 되면 충남·북 인구 4명 중 1명은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충청권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 초(超)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의 날(2일)을 맞아 1일 통

2005년 6.9%에서 2030년 21.5%까지 늘어나지만 7대 특·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 인구에 나눈 값) 부담도 가중되는데 대전은 2005년 9.4%인 노년 부양비가 2030년이 되면 32.6%, 충남 20.7→41.4%, 충북 17.2→



고령인구 2030년경 20%대로 상승 부양비도 최대 44.6%까지 늘어나

계정이 발간한 '200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충북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11.8%에서 2010년 13.7%, 2015년 15.1%, 2020년 17.9%, 2025년 22.6%로 20%대를 돌파한 뒤 2030년이 되면 27.6%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고령인구도 2005년 13.9%에서 2030년 26.1%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충남·북 고령인구는 전국평균 24.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44.6%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도별 기대수명에서 2030년, 대전 남성의 경우 전국평균 79.4세를 상회하는 79.6세를 기록했지만 충북은 78.9세, 충남은 79.1세로 예상됐다. 여성은 전국평균이 85.9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전 86.0세, 충북 85.7세, 충남 85.9세로 예측됐다. 전국적으로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돼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남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3087건, 여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1251건으로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여자기준 노인 이혼건수가 6.3배나 늘었다. /임호범 기자



| 기 고 | 고령화사회와 노후대비

'노인의 날' 11주년을 맞이하는 10월 2일 '활기찬 노년, 희망찬 재도약'을 주제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올림피아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되며,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 684명에게 장수지팡이인 청려장을 증정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등 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보험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70~80년대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환갑(還甲)잔치를 동네 주민은 물론 먼 곳에 사는 일가친척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베푸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그 당시만 해도 환갑(還甲)까지 수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축하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경제사회의 발달과 함께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고른 영양섭취와 의료혜택을 많이 받아서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하여 환갑(還甲)나이인 61세의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요즘 환갑(還甲)잔치를 하는 광경은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의 의미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7%~14%인 사회를 말하고,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4%~20%인 사회를 말하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공표한 대전충남지역 2007년 고령자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대전 11만3000명, 충남 28만6000명으로 각각 7.6%, 14.7%로 나타났으며, 대전은 2006년에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7.2%로 고령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으며 충남은 2006년에 14.3%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지표인 부양비(此)는 대전 9.6명, 충남 4.6명으로 10년 전(1997년)에 비해 각각 3.7P, 6.4P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인구×100)는 대전 39.4%, 충남 82.6%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대전 175.5%, 충남 242.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이혼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이 남자기준 57건, 여자기준 23건이었고, 충남은 각각 119건, 43건으로 나타나 10년 전 보다 대전 7.7배, 충남 3.3배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전 17.0%, 충남 46.0%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충남이 대전에 비하여 아주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전 7641명, 충남 2만1936명으로 각각 7.2%, 7.9%의 수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고령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말해 주듯이 앞으로 우리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노인 재취업 등 다각적인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개개인은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노후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되리라 판단된다.



대전 하루평균 39명 응애~

충남은 51명꼴... 지난해 출생아수 소폭 늘어

30대 산모도 꾸준히 증가

지난해 대전과 충남의 출산율이 2005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는 등 저출산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충남의 임신이 가능한 15~49세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수는 2005년과 비교해 각각 0.05명, 0.09명 늘어난 1.15명, 1.35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전국 45만1514명, 대전 1만4388명, 충남 1만8501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 각각 3.1%, 3.8%, 6.5% 증가했다. 이를 1일 평균 출생아수로 환산하면, 전국 1237명, 대전 39명, 충남 51명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국 9.2명, 대전 9.9명, 충남 9.4

명이다.

연령대별 출산률은 대전과 충남 모두 30대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한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대전은 지난해 30~34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6013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 419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연령대의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충남은 지난해 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가 7962명으로 2005년과 비교해 527명 증가했으며, 30~34세 출생아 수는 전체의 34.1%로, 10년 전 18.2%에서 2배 가까운 상승율을 보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전국이 107.4, 대전이 110.1, 충남이 107.4로 여전히 정상성비인 103~107을 상회했다. /이희택 기자



충청권 출생아수 ↑ · 사망률 ↓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 20대 출산 전년 비 다소 감소

통계청이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신고한 출생 및 사망신고서의 인구동태항목 자료를 수집해 그 내용을 집계한 결과 출생아수는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전국 45만 1514명, 대전 1만 4388명, 충남 1만 8501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전국 3.1%, 대전 3.8%, 충남 6.5% 증가했다.

또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 중 대전 20대는 6671명, 30대는 7440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20대는 감소(-108명), 30대는 증가(647명)했으며, 충남은 20대, 30대 각각 모두 증가(1만 26명, 713명)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교육수준 향상, 결혼연령 상승에 따라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사망자수는

전국 24만 3934명, 대전 5909명, 충남 1만 3511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전국 1577명, 충남 383명 각각 감소한 반면 대전은 167명 증가했고 1일 평균 사망자수는 전국 668명, 대전 16명, 충남 37명으로 나타났다.

또 성·연령별 사망률은 남자 사망률이 대전 4.4명으로 여자 사망률 3.7명 보다 0.7명 높고, 충남은 7.5명으로 여자 사망률 6.2명보다 1.3명 높으며 전국은 5.5명으로 여자 사망률 4.5명보다 1.0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전 대비 성·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의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사망원인은 악성 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으로 총 사망자 중 대전 2739명, 충남 5836명이 사망했으며 3개 사망원인 다음으로는 자살, 운수사고, 당뇨병 등으로 나타났다. /백해용 기자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농본사회에서 자본사회를 거쳐 흔히들 뇌본(腦本)사회라고 한다.

구조권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팽팽한 이념 갈등이 사라짐에 따라 전 세계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국경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70~80년대에 산아(産兒)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는 인구 구조가 기형적인 항아리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90년대부터 점차 감소해 오던 신생아 수가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으로 반짝 증가한 뒤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증가세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 2006년 출생·사망 및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대전 1만 4,388명, 충남 1만 8,501명으로 2005년에 비해 대전 3.8%, 충남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은 대전 9.9명, 충남 9.4명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대전 0.3명, 충남 0.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대전 1.15명, 충남 1.35명으로 2005년보다 각각 0.05명, 0.09명 증가했다.

위와 같이 신생아 수가 2006년도에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추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시



|| 특별기고 ||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통계로 본 대전·충남 출생과 사망

민사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 및 인식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질병은 ‘빈곤의 질병’이 아니라 ‘풍요의 질병’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지나치게 섭취하고 활발히 움직여야 할 몸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성인병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특히 지난 150년간 인류는 우리의 유전자와 맞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소금 설탕 지방과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다. 지나친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지나친 설탕은 혈당을 올려 당뇨병을 만든다. 지나친 지방은 비만을 만들고, 지나친 식품 첨가물은 각종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인류는 그 이면에 숨은 독을 모른 채 먹고 병들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전·충남지역의 2006년 총 사망자수는 대전 5,909명, 충남 13,511명으로 2005년에 비해 충남이 383명 감소한 반면 대전은 167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사망자수는 대전 16명, 충남 3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은 대전 4.0명, 충남 6.9명으로 2005

년과 대전은 동일한 반면 충남은 0.2명 감소하였다.

성·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자 사망률은 대전 4.4명으로 여자 사망률 3.7명보다 0.7명 높고, 충남은 7.5명으로 여자 사망률 6.2명보다 1.3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1996년) 전 대비 성·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의 모든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한번은 사망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 중 1명이라도 환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간병생활과 병원비 마련 등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인들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깊은 고령(老)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운동과 음식조절 등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충남 총생산 전년 比 증가

대전 2.7%·충남 9.3% 성장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대전·충남지역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의 잠정추계 결과 전년대비 대전이 2.7%, 충남이 9.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대전시의 명목 시내총생산은 19조 5149억원으로 전국의 2.3%를 차지했으며 농림어업(-14.6%), 건설업(-4.1%) 등은 감소했으나 교육서비스업(5.4%), 제조업(4.0%) 등이 증가해 실질 시내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2.7% 성장했다.

지난해 대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8.7%→8.3%) 등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

업(18.0%→18.2%), 교육서비스업(9.0%→9.4%) 등의 비중은 높아졌다.

민간소비지출은 주류 및 담배 등의 지출이 감소했으나 의료보건, 오락문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 52% 증가했다.

또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은 증가했으나, 주거용 건물, 구축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해 49%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의 명목 도내총생산은 50조 7820억원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했으며 농림어업(2.0%), 건설업(2.1%)은 소폭 증가했으나, 제조업(15.9%)이 큰 폭

으로 증가해 실질 도내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9.3% 성장했다.

지난해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에서는 영상음향통신기기(11.8%), 자동차(7.1%),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5.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간소비지출은 주류 및 담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에 대한 지출이 감소했으나, 교통 및 임료, 수도광열 등의 지출이 증가해 32% 증가했다.

또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은 감소했으나, 발전설비 등 구축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19%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모두 증가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해용 기자

04

통계조사 홍보

statistical research publicity



|특별기고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협조를...



쭈근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여
기저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새봄과 더불어 활발한 건축시
기가 돌아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대분류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
수,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
동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2006. 12. 31 현재를 기준시점
으로 당해년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
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13일에 걸쳐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통계 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 지난
1968~1970년 기준 조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했
고,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
후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이 34회
째 조사이다.

1985년 기준 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의 유사통계
통합 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
한전선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
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정부승인 통계를 작성하게 되어 통계청과 공동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 협회에 등록된 전수조
사 대상사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전기공업, 정보통신공업 등록업
체 중 개인업체(표본조사)와 소방시설공업, 오수처
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타(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는 지방통
계청 담당공무원에 의한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루어
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
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
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
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
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시더라도 지역경제발전
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 명 선

기고

건설업통계조사 적극 협조 당부



임명선

여기저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새봄과 더불어 활발한 건축시기가 돌아왔다.

통계청은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 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200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당해년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월 15일~4월 13일에 걸쳐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 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협회에 등록된 전수조사 대상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로 이뤄지고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개인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타(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는 지방통계청 담당 공무원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특별기고 건설업 통계조사에 적극협조를...

춥고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여기저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새봄과 더불어 활발한 건축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인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당해년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3일에 걸쳐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건설업통계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 지난 1968~1970년 기준 조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했고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가 34회째 조사입니다.

1985년 기준 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의 유사

통계 통합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정부승인 통계를 작성하게돼 통계청과 공동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 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 협회에 등록된 전수조사 대상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개인업체(표본조

사)와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타(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겸업하는 기업체는 지방통계청 담당공무원에 의한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뤄집니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업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이나 활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에 적극협조를...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춥고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여기저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새봄과 더불어 활발한 건축시기가 돌아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2006. 12. 31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당해년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7. 3. 15 ~ 4. 13일에 걸쳐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통계조사는 국가지정 통계로 1968~1970년 기준 조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였고,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이 34회째 조사이다.

1985년 기준 조사부터는 건설업부문의 유사통계 통합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등이 정부승인 통계를 작성하게 되어 통계청과 공동으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 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 협회에 등록된 전수조사 대상사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개인업체(표본조사)와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타(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검입하는 사업체는 지방통계청 담당공무원에 의한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시더라도 지역경제발전 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업통계조사에 적극 협조를

| 독자 투고 |

춡고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여기저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돌아나는 희망찬 새봄과 더불어 활발한 건축시기가 돌아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건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부문의 종사자수, 급여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건설업부문의 구조 및 활동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200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당해연도에 건설 활동을 수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3월 15일~4월 13일까지 '2006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통계조사는 국가지정통계로 1968~1970년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했고, 1972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이 34회째다.

조사항목은 일반 및 실적사항 조사표 21개 항목과 결산사항 조사표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조사방법으로는 건설관련 협회에 등록된 전수조사 대상사업체는 관련협회를 통한 조사보고로 이뤄지고 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개인업체(표본조사)와 소방시설공사업, 오수처리설계시공업 등록업체(전수조사), 기태(소방, 오수) 등록업체 중 상위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체는 지방통계청 담당공무원에 의한 타계식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중요한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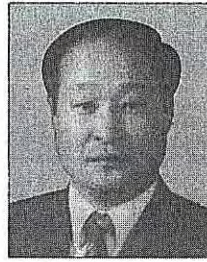
들 틈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희망찬 새봄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농어업 분야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자현황, 농경지, 어선보유현황 등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 정책수립과 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2001년도에 국가

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7회째 조사로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농어업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17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 조사는 기존 농어가 가구 위주의 농수산통계와 연계해 우리나라 농어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로, 조사항목은 농업법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인사업체의 경우 23개, 어업법인사업체의 경우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지방통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문하고 응답자가 답변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사 또한 수집된 개인 및 사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농수산 정책수립 및 농어가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조사에 임하는 분들의 적극협조를 당부 드린다.

기고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적극 협조를



임명선

돌 틈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희망찬 새봄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이 성큼 다가 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농어업 분야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
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자현
황, 농경지, 어선보유현황 등 우리나
라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
태 및 경영수지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농수산 정책수립과 연구기관·
단체 등에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 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
조사는 7회째 조사로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우리나라의 모
든 농어업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2
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조사를 실
시한다.

특히 이 조사는 기존 농어가 가구 위
주의 농수산통계와 연계하여 우리나
라 농어업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로, 조
사항목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23
개, 어업법인사업체의 경우 22개 항
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방법은 지
방통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체
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문하고 응
답자가 답변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
면, 개인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기피하
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열악해 지고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
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사 또
한 수집된 개인 및 사업체 등의 비밀
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
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
므로,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
르더라도 우리나라 농수산 정책수립
및 농어가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 특별기고 |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에 적극 협조를



둘 틈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희망찬 새봄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농어업 분야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자현황, 농경지, 어선보유현황 등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에 관한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 정책수립과 연구기관·단체 등에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해왔다.

'2006년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2001년도에 국가지정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실시한 이래 금년이 7회째 조사로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농어업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7일간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 조사는 기존 농어가 가구 위주의 농수산통계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농어업부문을 종합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로, 조사항목은 농어업법인사업체의 경우 23개, 어업법인사업체의 경우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방법은 지방통계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문하고 응답자가 답변하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조사 또한 수집된 개인 및 사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금번 조사에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농수산 정책수립 및 농어가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



운수업통계조사 내달15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 간 2006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의 운수업 및 관련 서비스업 44개 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업체 일반사항, 조직형태, 장비보유현황 등 11개 항목

에 대해 통계조사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또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운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조사도 실시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통계조사원 방문 시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2006년 기준 기업활동실태조사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5일간 '2006년 기준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정보화 및 기업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변화를 파악해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종사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4일부터 기업활동 실태조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기준 기업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기업의 일반사항, 조직 및 종사자 수, 자산·부채 및 자본, 사업내용, 기업간 거래등이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목적, 작성요령등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기업활동실태조사'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기업활동의 다각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해 기업에 관한 각종 경제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대전충남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기준 기업활동실태

조사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실시 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이며 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기

업체를 방문해 조사목적, 조사표 작성요령등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기업식 조사방법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기업의 일반사항(기업체명, 소재지, 자본금 등), 기업내 조직 및 종사자수 관련사항, 자산·부채 및 자본 관련사항, 사업내용 관련사항, 기업간의 거래 및 해외거래 관련사항 등의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백해용기자

도소매업 · 서비스업 통계조사

오는 28일부터 ... 서비스산업 연구 분석 기초자료 제공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하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평가분석 자료, 서비스산업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개 산업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12만개 사업체로써 도소매업통계조사 2개(G:도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대분류와 서비스업통계조사 6개(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산업대분류가 해당되며 담당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응답자 직접 기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 등을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계작성 단위를 산업세세분류(시·도세분류)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표본사업체를 확대·조사하며 응답자 편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인터넷 조사를 도입·실시한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날이 증

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으나 이번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13조, 14조)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다.

한편 임명선 대전지방통계청장은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해용 기자

오늘부터 도소매·서비스업 통계조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28일부터 6월 21일 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조사방법은 통계청 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 작성하는 면접방식과 사업체에서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기본항목으로 사업체일반사항, 사업내용, 조직형태, 정기휴무일 등 사업의 일반사항(10개 항목)등이다.

또 기업체 일반사항, 사업내용, 월평균 종사자 및 연간 급여액 등(6개항목)도 실시된다.

충청투데이 | 5월 28일 9면

도소매·서비스 통계조사

대전충남통계청 오늘부터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관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고용과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부 및 지자체의 서비스업 육성을 위

한 정책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조사방법은 지방청 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방식과 사업체에서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으로는 사업체일반사항, 사업내용, 조직형태, 정기휴무일 등 사업의 일반사항(10개항목) 등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역별 경제지표 개발과 서비스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대상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충청신문 | 5월 28일 5면

경/제/단/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 서는 오늘부터 내달 21일까지 통계청 주관 하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를 수립하고, 경제지표 편제를 위한 GDP 추계, 지역소득 추계, 산업연관표 작성 등 지역별 경제지표 개발 및 평가분석 자료, 서비스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실시된다.

도소매·서비스업 통계 조사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도소매·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료를 수립코자 대전충남지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를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G(도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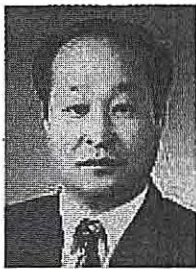
조사방법은 지방청 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 작성하는 면접 방식과 사업체에서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 및 인터넷 조사 방법을 병행 실시 한다.

/박해용 기자



| 특별기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은 정확한 통계응답으로부터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청 주관 하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고용, 경영실적, 사업장 면적, 구조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평가분석자료, 서비스산업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개 산업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12만개 사업체로써 도소매업통계조사 2개 (G:도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대분류와 서비스업통계조사 6개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산업대분류가 해당되며 담당공무원 또는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과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 등을 병행하여 조사하게 된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서비스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계작성 단위를 산업세세분류(시·도·세분류)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표본 사업체를 확대·조사하며 응답자 편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인터넷 조사를 도입·실시한다.

최근 정보화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계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정보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계조사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2006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법(제 13조, 14조)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이나 활용은 철저히 하게보안이 유지된다고 할수 있다.

통계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실 그대로의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실시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오는 26일까지 10일간 2007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2007년 사회통계조사는 전국 3만3000여 표본가구 내 만 15세이상 가구원 약 7만명을 조사하게 되며 표본가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체조사구에서 25개 지역별 표본 수에 따라 계통추출해 조사구가 선정 된다.

또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복지, 문화여가, 소득과소비, 등 3개 부문을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성명, 가구주관계 등 기본항목 6개 복지 28개, 문화여가 14개, 소득과소비 5개 항목이고 어느 특정 가구원이 대신 응답할 수 없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용 기자

충청투데이 | 6월 18일 9면

내일부터 2007 사회통계조사

통계청은 17일부터 10일간 올해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회통계조사는 전국 3만 3000여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 명을 조사하

게 되며 표본가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전체조사구에서 25개 지역별 표본 수에 따라 계통추출해 조사구가 선정된다.

조사 부문은 복지, 문화여가, 소득과소비 등 3개이며 조사항목으로는 성명, 가구주 관계 등 기본항목 6개, 복지 28개, 문화여가 14개, 소득과소비 5개 항목 등이다.

특히 개인의 주관적 의식 상태를 조사하는 항목이 많으므로 어느 특정 가구원이 대신 응답할 수 없다.

/임호범 기자

경/제/탄/신

을 사교육비실태조사 첫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처음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1차 조사기간은 7월 2일부터 13일까지, 2차 조사기간은 10월

8일부터 19일까지로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약 3만4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보충교육비(방과후학교 활동비), EBS교재비, 학원비 등 35개 항목을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 교사가 조사대상 학생편으로 조사표를 학부모에게 전달해 조사하게 된다.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첫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 1차 조사기간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코자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1차 조사기간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차 조사기간은 10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약 34,000명 대상으로 학교 내 보충교육비(방과후학교 활동비),

EBS교재비,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 해외어학 연수비, 인적사항 등 35개 항목을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의 교사가 조사대상 학생편으로 조사표를 학부모에게 전달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가 재설계 되었으며,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edu.nso.go.kr>)를 운영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교육비실태조사 관련한 기타 사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사교육비실태조사 담당 운영선 조사관(042-527-9301~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진환 기자**

사교육비 실태조사 실시

대전·충남통계청, 내달 2일부터 시행
공교육 내실화·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하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1차 조사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차 조사는 오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로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약 3만4000명 대상으로 학교 내 보충교육비(방과후학교 활동비), EBS교재비,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과외비, 해외어학 연수비, 인적사항 등 35개 항목을 표본으로 추출된 학교의 교사가 조사대상 학생편으로 조사표를 학부모에게 전달해 조사표를 작성하게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친화적 조사표가 재설계 됐으며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edu.nso.go.kr>)를 운영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적극적으로 조사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교육비실태조사 관련한 기타 사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 사교육비실태조사 담당 윤영선 조사관(042-527-9301~5)에게 문의하면 된다.

/ 박해용 기자

사교육비 실태조사

대전·충남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1일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사교육비 지출 규모 파악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

하기 위해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조사는 1차로 2일부터 13일, 2차로 10월 8일-19일까지 대전·충남지역 23개교 2550명을 비롯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약 3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재숙 기자〉

대전·충남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새 틀 짜기'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영선)에서는 통계청 주관 하에 5년마다 개편되는 '농·어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조사를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대전·충남 전 지역에서 21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 수립과 경영 개선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어가경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대상은 전국 846개 농어가 신표본조사구 내 전체 가구 및 농어가 준비조사 후 시·도별, 영농형태별로 구분, 선정된다.

준비조사 항목은 성명, 가구주관계 등 기본항목과 농가소득, 전·겸업여부, 영농형태, 경지현황, 가축현황, 주작물, 주작물에 대한 경지면적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조사구내 전체 농·어가를 직접 방문, 경영주에게 조사취지를 설명 후 조사하게 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요즘 사생활 보호 등으로 농·어촌의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아 통계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농·어가 경제 조사대상 개편

오늘부터 준비조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청 주관 하에 5년마다 개편되는 농·어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조사를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대전·충남 전 지역에서 21일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 수립과 경영 개선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어가경제조사 조사대상의 선정은 전국 846개 농어가 신표본조사구 내 전체 가구 및 농어가 준비조사 후 시도별, 영농형태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준비조사 항목은 성명, 가구주관계 등 기본항목과 농가소득, 전·겸업여부, 영농형태, 경지현황, 가축현황, 주작물, 주작물에 대한 경지면적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조사구내 전체 농어를 직접 방문해 경영주에게 조사취지를 설명 후 조사하게 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요즘 사생활 보호 등으로 농·어촌의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아 통계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통계청, 농어가경제조사 새틀짚다

표본준비 26일까지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 서는 통계청 주관 하에 5년마다 개편되는 ‘농어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조사를 오늘부터 26일까지 대전충남 전 지역에서 21일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농어업 정책 수립과 경영 개선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어가경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대상은 전국 846개 농어가 신표본조사구 내 전체 가구 및 농어가 준비조사 후 시도별, 영농형태별로 구분해 선정된다.

준비조사 항목은 성명, 가구주관계 등 기본항목과 농가소득, 전겸업여부, 영농형태, 경지현황, 가축현황, 주작물, 주작물에 대한 경지면적 등이며 담당공무원이 조사구내 전체 농어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주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 후 조사하게 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요즘 사생활 보호 등으로 농어촌의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아서 통계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성실히 답변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허주기자



사교육비 실태조사

대전충남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을 들어 두 번째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 사교육비 실태 이외에 사교육 참여원인, 사교육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 등 사교육비 참여 및 정책에 관한 학부모와 학생 인식이 추가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관내 23개 초·중·고 학부모 약 2600명과 중고생 약 1600명 등이다.

지방통계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내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다. /임호범 기자



대전·충남 23개교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8일부터... 내년 초 발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대전충남 교육청과 함께 사교육비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에 이은 2

차 조사로, 대전충남지역 23개 초·중·고 학부모 2600여명과 중고생(초등, 고3제외)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활동비 등 사교육비 규모를 비롯한 사교육 참여원인과 EBS수능강의 등 정책효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1, 2차 조사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되며, 응답자 편의도모를 위해 사교육비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edu.nso.go.kr>)를 운영하는 한편 참여학생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042-527-9301~5).

/이희택 기자

05

지역통계

region statistics



기초통계 외면하는 기초단체

대전·충남 대부분 업무과중 이유 조사 꺼려 기초자료 없이 정책 집행... 예산 낭비 우려

지방자치 10년이 지났지만 기초 자치단체들이 고용, 복지, 교통, 문화 등 지역 통계에 대한 외면이 심각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충남도에 대한 통계들만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대전의 각 구청이나 충남의 시군들은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기초자료도 없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의 5개 구청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통계나 기본통계를 제외한 고용, 복지, 기업경영, 교통, 문화, 환경 등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한 구는 유성구가 유일하며,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는 계룡시가 유일하다. 이 조차도 지난 2005년 대전충남 지방통계청이 유성구를 시작으로 통계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시하게 됐으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통계조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기초조사 항목은 ▲기본항목(교

육정도, 직업, 혼인상태 등)을 비롯해 ▲복지문화부문(노인문제, 민원서비스만족도, 여가활용) ▲교통환경부문(교통수단, 안전시설 만족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체감환경) ▲노동부문(여성취업 견해, 직업선택요인) ▲보건부문(보건소이용, 의료서비스만족도, 건강증진사업) ▲교육부문(사교육유무, 사교육비 부담) ▲주거부문(거주지역 만족도, 가구소득) 등 65개 항목으로 정책을 펼치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초 통계조사에 대해 지방통계청에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의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교통이나 복지, 주거정책 등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한 현황파악이 중요한 부문에 대한 기초자료 없이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의 우려도 크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통계청-홍성 지역통계 개발 업무협약

지역정책 수립시 입체적 활용 가능 통계 생산 첫 발

통계청과 홍성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통계청 김해수 차장과 이종건 홍성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과 홍성군 간의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

이번 지역통계 개발 협약은 정부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 지역정책 수립에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홍성군은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계획수립, 사전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며, 통계청은 표본설계, 표본추출, 교육, 조사표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등 기술지원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양 측이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통계업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이

협의회에서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 개발과 자문, 공동조사, 품질관리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지방자치시대 민선4기의 출범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지역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홍성군의 축산업 현황과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는 홍성군 축산농가 소득실태 조사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기술 및 예산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박해용 기자



통계청-홍성군 통계 개발 업무 협약 통계청과 홍성군은 7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통계청 김해수 차장(사진 왼쪽)과 이종건 홍성군수 등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축산농가 소득실태조사 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통계 개발 본격 나선다

통계청, 홍성군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과 홍성군은 7일 오전 11시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통계청 김해수 차장과 이종건 홍성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

과 홍성군간의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역통계 개발 협약은 정부통계의 대부분이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 지역정책 수립에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전국적으로 지역통계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나 인력, 예산 등 여러 가지 지역사정으로 그 추진은 미흡한 실정에서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계룡시에 이어 두 번째로 홍성군이 통계청과 업무협력 약정식을 체결하

고 지역통계 조사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홍성군은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 계획 수립, 사전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며, 통계청은 표본설계, 표본추출, 교육, 조사표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등 기술지원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측이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통계업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이 협의회에서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 개발과 자문, 공동조사, 품질관리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강현준기자

지역특성 맞는 통계분석 개발

박성호 시장-김대유 통계청장 업무협약 체결

박성호 대전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와 통계청은 업무 조인식을 갖고 대전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양기관의 통계자료와 기술

을 공유해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자료제공과 기술지원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와 통계청은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등 지역경기 전망을 조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규복기자



지역특화 통계개발 시동

대전시-통계청 업무협약 실무협 구성... 기술 공유

대전시가 통계청과 손을 잡고 지역특화 통계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호 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대전지역 만의 특화된 통계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시는 그동안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통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및 추진기능

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대전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양기관의 통계자료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와 통계청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등 지역경기전망을 조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 및 부동산 동향을 비롯한 지역의 특화된 산업구조, 시민의식구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통계지표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특화된 지역통계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기관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과 한층 고도화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지역상·공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지역특화 통계개발 '시동'

대전시-통계청, 기술지원·공동조사 등 '실무협의회' 구성

박성호 대전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21일 11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대전시와 통계청은 이날 대전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양기관의 통계자료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료제공, 기술지원, 공동조사, 통계개발, 통계품질관리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와 통계청은 우선,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체의 생산·매출·고용현황 등 지역경기전망을 조사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역의 경제 및 부동산 동향을 비롯한 지역의 특화된 산업구조, 시민의식구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통계지표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대전의 특화된 지역통계분석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통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 양기관이 뜻을 같이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



박성호 대전시장(오른쪽)과 김대유 통계청장이 21일 대전지역 특화 통계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기관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과 한층 고도화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지역상·공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환일 기자

대전, 지역특화 통계개발 시동

대전시와 통계청장은 21일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시는 앞으로 지역의 경제 및 부동산 동향을 비롯한 지역의 특화된 산업구조, 시

민의식구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통계지표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대전의 특화된 지역통계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 실무 추진 “지역 상공인·시민 실생활 기여 전망”

양 기관은 이날 대전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양기관의 통계자료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료제공, 기술지원, 공동조사, 통계개발, 통계품질관리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와 통계청은 우선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등 지역경기전망을 조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통계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 양기관이 뜻을 같이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기관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과 현충 고도화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공무원, 지역 상공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박성호 대전시정(우측 4번째)과 김대유 통계청장(좌측 4번째)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에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 지역통계 개발 '원원'

대전-통계청, 업무 협약 체결... 통계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

대전시와 통계청은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과 김대유 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

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을 실현하고 희망찬 미래 구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 통계청과 대전시간의 지역통계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지역통계 개

발방안과 통계정보 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이를 위해 통계협력 실무협의제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지역 경기전망 등을 조사해 대덕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또 앞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구조, 시민의식구조, 경제 및 부동산 동향 등 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지역 통계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통계가 전국단위로 생산돼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 통계정보를 신속히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 특화 통계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의 개발 및 서비스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통계청 업무 협약체결 장면

/김구희 기자

대전시-통계청 협약 체결



대전시와 통계청은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통계 개발·통계서비스 실생활 기여

대전시와 통계청은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호 대전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대전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통계자료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자료제공, 기술지원, 공동조사, 통계개발, 통계 품질관리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올해의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등 지역 경기전망을 조사해 대덕연구개발 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의 경제 및 부동산 동향을 비롯한 지역의 특화된 산업구

조, 시민의식구조,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통계지표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대전의 특화된 통계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의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역통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해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개발과 한층 고도화된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관련 공무원 지역 상·공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재근기자



대전시-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통계청간의 업무협약 조인식이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박성호 시장과 김대유 청장이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박갑순 기자

박성호 대전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지역통계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와 통계청은 앞으로 양기관의 통계자료와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등 지역경기전망을 조사해 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신석우 기자



통계 개발·품질관리등 대전시-통계청 MOU



박성호 대전시장과 김대유 통계청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대전지역에 특화된 통계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사진>

두 기관은 이날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통계 관련 자료제공, 기술지원, 공동조사, 통계개발, 통계품질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 기업체의 생산, 매출, 고용현황 등 지역경기전망을 조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현탁 기자>



자치구 생활통계 개발 적극

중구 등 통계청과 협약

그동안 생활통계 작성에 무관심했던 각 자치구가 잇따라 생활통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구는 9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이은권 중구청장과 통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청과 '지역통계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를 체결한다.

이로 인해 구정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생활통계 개발에 나서면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덕구도 이달 안에 통계청과 지역생활통계 작성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구-통계청 업무협약식

대전시 중구는 9일 중회의실에서 통계청과 '지역 통계자료 공유 및

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기졌다.



통계청·중구 지역통계개발 협약

관심사·의식 파악할수 있는 토대 마련



통계청과 대전시 중구청은 최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청장 김대유)과 대전시 중구청(구청장 이은권)은 최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기관은 지역통계 개발방안 등에 상호협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협력실무 협의회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구청은 유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할수 있는 사회통계조사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

지역통계 개발 '팔 걷었다'

중구-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대전중구가 통계청과 손잡고 지역통계 개발에 나섰다.

대전중구는 최근 구청 중회의실에서 이은권 중구청장과 제정본 통

계청 정책 국장 및 임명선 대전 충남통계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

약에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개발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표준설계, 전산프로그램, 분석기법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구는 지역통계 수요조사, 예산 및 인력지원등이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기본 통계에서 벗어나 아트존의 거리 조성, 보문산관광단지 개발, 거주지역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돼 연구개발 통계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구민에게 질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조사결과와 추이를 비교분석해 구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환일 기자



대전중구는 최근 구청 중회의실에서 이은권 중구청장과 제정본 통계청 정책 국장 및 임명선 대전 충남통계청장등이 참석. 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체결했다.

중구청·통계청, 업무협력 체결

객관적 지표활용 통한 통계행정 실현

대전 중구청과 통계청(청장 김대유)은 통계청 정책 국장(제정본) 및 대전 충남 지방통계청장(임명선)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의 공유·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양 기관이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사진1> 이날 협약식의 가진 양 기관

은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표준설계, 전산프로그램, 분석기법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구는 지역통계 수요조사, 예산을 비롯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가구, 기업체수등 기본 통계만 조사해 활용도가 미흡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통

계조사 방법을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아트존의 거리 및 보문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보문산 이용객, 특화거리 육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 현황, 거주지역 만족도 등 생활통계조사로 통계속에서 구정 주요시책수립 등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박희석기자



<사진1> 대전 중구청과 통계청은 지난 9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통계자료의 공유·기술지원 협력을 위한 양기관이 업무협력(MOU)을 체결했다.



통계조사 개선방안 모색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16일 오전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의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지역통계개발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사회통계개발 평가 워크숍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16일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도 계룡시의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평가 워크숍을 가졌다.



지역통계개발 평가를 위한 워크숍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지난 16일 3층 강당에서 2006년도 개발이 완료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가졌다. 지난해 통계청과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충청남도 계룡시와 지역통계개발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등에 필

요한 지역통계개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시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진환 기자

대전투데이 | 3월 19일 18면



대전통계청 워크숍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최근 대전청 3층 강당에서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가졌다. /김환일 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가졌다.

“더 완벽한 지역사회 통계조사를 꿈꾼다”

대전충남통계청, 지역통계개발 평가 워크숍 가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3층 강당에서 2006년도 개발이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의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지난 16일 가졌다.

지난해 통계청과 대전시 유성구 및 충청 계룡시와 지역통계개발 업무 협약식을 가진 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지역통계개발의 일환으로 유성구와 계룡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실시한 '지역사회통계조사'에 대한 자체 평가로 조사과정의 문제점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차후 조사시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자체의 특성통계개발과 개발된 지역통계에 대한 조사기획 및 분석 등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박해용기자



통계청-대덕구 업무협약 통계청(청장 김대유)과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23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 - 대덕구 지역통계 개발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청장 김대유)과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23일 오후3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양기관은 지역통계개발 방안과 통계정보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다각적인 지역통계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통계청과 대덕구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통계 개발 위해 손 맞잡는다

통계청-대덕구, 구청 중회의실... 업무 협약 체결

지역통계개발 방안·통계정보공유 등 상호협력

통계청(청장 김대유)과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23일 오후 3시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기관은 지역통계개발 방안과 통계정보공유 등에 상호협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덕구 발전 비전 2010'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통계청

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간의 지역통계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덕 으로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활력 창출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계조사를 대전충남지방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통계청 협력협약

충남도(도지사 이완구·오른쪽)와 통계청(청장 김대유)이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통계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통계발전을 위

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통계청으로부터 표본설계와 전산프로그램, 분석기법 등 통계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향후 충남도 통계 개발과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세영 기자>



충남도와 통계청간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6일 도청에서 열려 이완구 지사(오른쪽 세번째)와 김대유 통계청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양측 주요 참석자들이 협약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영철 기자

충남 통계발전 전기 마련

道-통계청 MOU 체결... 자료·기술지원

충남도가 행정의 기본이 되는 통계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6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대유 통계청장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통계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충남도의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도는 지속적인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천한 통계협력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완구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지역통계의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통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sl126@



충남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김대유 통계청장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통계협력 MOU 체결식을 가졌다.

도·통계청, 지역통계협력 MOU 체결 충남 통계발전 업그레이드

통계협력 '실무협의회' 설치합의

충남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김대유 통계청장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통계발전을 위한 지역통계협력 MOU 체결식을 가졌다.

도는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표본설계, 전산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계청으로부터 받으므로써 충남의 지역통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청은 충남도의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기술지원을 하고 도는 지속적인 지역통계의 개발 및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이를 실천할 통계협력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참여정부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지역통계의 수요가 양과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으며 통계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한차원 높은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지역통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통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도에서 지난해 8월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계청과 지역통계 개발 등에 관한 실무협의를 거쳐 충남통계발전에 상호 협력키로 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내국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최근 대전 중구청 2층 회의실에서 학계 및 통계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지역통계개발 협의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개발 협의체 전문가회의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최근 대전 중구청 2층 회의실에서 학계 및 통계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지역통

계개발 협의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처음 실시 되는 중구와 대덕구의 2007년 사회통계조사 조사기획, 조사

표설계, 조사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보완함으로써 정도 높은 지역통계를 작성하고자 실시됐다.

한편, 중구는 오는 6월 7일부터 대덕구는 6월 25일부터 10일간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07년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강현준기자



도교육청 - 통계청 협약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사진 왼쪽)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9일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충청지역 교육 및 통계행정 발전에 이바지 할 교육사랑·통계사랑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통계발전 파트너십 체결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남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2층 세미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교육과 통계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 오른쪽)과 29일 오후 충청남도교육청 2층 세미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교육과 통계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충청남도교육청 MOU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9일 오후 3시30분 충청남도교육청 2층 세미나실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교육과 통계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트너십은 충남지역의 교육정책 및 통계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은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의 통계인프라 메카 및 고도화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구축, 희망찬 미래 구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은 각종 통계자료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일선학교의 각종 교육정책 자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제공, 교육 분야 지역통계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초·중등학교를 대상 통계시범학교를 충청남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홍보지(가칭 '교육사랑 통계사랑') 공동으로 발간, 충남지역의 교육정책 및 지역통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충남통계청·충남도교육청, 파트너십 체결

대전충남지방통계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교육과 통계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29일 체결했다.

이날 파트너십 체결은 충남지역의 교육정책 및 통계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교육청은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의 통계인프라 메카 및 고도화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희망찬 미래 구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각종 통계자료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도교육청은 도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일선학교의 각종 교육정책 자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 제공해 교육분야 지역통계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지원하고

초·중등학교를 대상 통계시범학교를 충남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홍보지(가칭 교육사랑 통계사랑) 공동으로 발간해 충남지역의 교육정책 및 지역통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박해용 기자



충남도교육청-대전충남지방통계청 협약 체결 교육정책·지역통계정보 지속 공유

충남도교육청(오제직 교육감, 사진 왼쪽)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임명선 청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에서 교육사랑·통계사랑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충남 교육정책 및 지역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통계시범학교운영 및 통계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생활속 통계문화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양 기관 공무원 2000여명은 교육

정책 및 통계소식지를 이웃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가가호호파랑 새운동'을 통해 교육과 생활통계의 중요성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같은 교육현안 생활통계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김지현기자

2007년도 지역통계 개발 추진방향



임명선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구현하고 기관장의 지역정책 수립 및 정책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투자가 낮아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 조직 및 인력이 모두 취약한 실정을 감안해 통계청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2005년 12월부터 모색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기관·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워크숍·세미나, 로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통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통계청에서 지역통계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조사 예산지원·표본설계·교육 등을 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본조사 예산확보 등을 수행하면 된다. 지난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광역시 및 충남도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의 21개 시·군·구에 대해 지역통계 개발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취임한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희망하는 역점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 추진에 유용한 지역 사회통계

조사를 유성구와 계룡시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대덕구 사회통계조사, 홍성군 축산업소득통계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 대한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경기전망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 교육청과 5월중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통계사랑, 교육사랑(가칭)'을 발간해 양 기관의 보유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협력을 강화하고 충남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통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통계 개발사례 발표 및 평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지역통계 품질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통계학습지 발간을 통한 통계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지역통계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문분야별로 지역통계 수요파악, 전문가협의회 운영, 지역특화 및 수요자 맞춤형 통계개발,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 전환, 지역통계 용역 수탁사업전개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지역통계 개발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진지방행정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계는 정보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비생활 및 관내 사업체의 경영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시사에세이

지역발전과 통계개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구현하고 기관장의 지역정책 수립 및 정책평가의 기초 자료에 대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부자가 낮아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 조직 및 인력이 모두 취약한 실정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2005년 12월 부터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기관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워크숍세미나, 로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지역통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통계청에서 지역통계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현조사에 신지원표본설계 교육조사용 검토자료처리 및 분석 등을 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본 조사 예산확보공표 등을 수행하면 된다.

지난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시 및 충남도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의 21개 시군구에 대해 지역통계 개발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취임한 민선자치단체장이 주민이 희망하는 역점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 추진에 유용한 지역사회통계조사를 유상구와 계통사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대전시 중구대덕구 사회통계조사, 홍성군 축산업소득통계조사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 대한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경기전망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 교육청과 5월중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통계사랑, 교육사랑(가칭)'을 발간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협력을 강화하고 충남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통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개발사례 발표 및 평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통계의 품질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통계 학습지발간을 통해 통계실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 지역통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통계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 분야별로 지역통계 수요파악, 전문가협의회 운영, 지역 특화 및 수요자 맞춤형 통계개발,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의 전환, 지역통계 용역 수탁사업 전개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같이 지역통계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지역통계 개발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진 지방행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계는 단순히 과거 수치만을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통계의 의미는 복잡다단한 사회 및 경제상을 분석해 보다 나은 정책을 펴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통계청이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지역통계는 정보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비생활 및 관내 사업체의 경영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보다 나은 지역실정을 위해서는, 원대한 지역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통계를 얼마만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느냐가 지역개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도 지역통계개발 추진방향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참여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구현하고 기관장의 지역정책 수립 및 정책평가의 기초자료에 대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투자가 낮아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 조직 및 인력이 모두 취약한 실정을 감안해 통계청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지난 2005년 12월부터 모색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워크숍 세미나, 로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통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통계청에서 지역통계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립조사 예산지원 표본설

계 교육 조사표 검토 자료처리 및 분석 등을 담당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본조사 예산 확보 공표 등을 수행하면 된다.

지난해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에서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의 21개 시군구에 대해 지

역통계 개발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취임한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희망하는 역점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 추진에 유용한 지역 사회통계조사를 유성구와 계룡시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대전시 중구 대덕구 사회통계조사, 홍성군 축산업소득통계조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 대한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경기전망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과 5월중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통계사랑, 교육사랑가침'을

발간해 양 기관의 보유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협력을 강화하고, 충남지역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통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통계 개발사례 발표 및 평가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지역통계 품질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통계학습지 발간을 통한 통계실무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지역통계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문분야별로 지역통계 수요파악, 전문가협의회 운영, 지역특화 및 수요자 맞춤형 통계개발,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 전환, 지역통계 용역 수탁사업전개 등의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지역통계 개발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정책을 구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진지방 행정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역통계는 정보화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비생활 및 관내 사업체의 경영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덕특구 경기전망 조사

내년부터... 경제정책 수립·자료 확보

앞으로 대전의 심장인 대덕특구를 경기전망 통계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과 대전시는 28일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덕특구에 대한 경기전망조사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내 기업인들의 경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파악해 경제 정책의 수립·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최근 실시한 20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덕특구

경기전망조사 시험조사를 대상으로 지난 26일 대전시와 학계전문가, 언론기관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통계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대전시 대덕특구 경기전망 시험조사 결과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고 보완했다.

앞으로 대덕특구 경기전망조사는 대전시 및 대전발전연구원과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최종 조사표 및 지침서를 확정하면 12월에 정부통계로 승인될 예정이다.

〈노형일 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최근 대덕특구경기전망조사를 위한 지역통계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전 · 충남 지방 통계청 지역통계개발 평가 워크숍

평가 · 개선 · 활용 방안 주제

대전 · 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007년도 개발 실시 완료된 대전시 중구와 대덕구의 사회통계조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 ·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통계청 및 지방 자치단체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지난 21일 가졌다.

대전 · 충남통계청은 2006년도 개발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 및 충남도 계룡시의 지역통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자체의 특성통계개발과 개발된 지역통계에 대한 조사기획 및 분석 등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통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박해웅 기자

지역통계개발 평가 워크숍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1일 2007년도 개발 실시 완료된 대전시 중구와 대덕구의 사회통계조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지역통계개발 평가워크숍을 가졌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006년도 개발 완료된 대전시 유성구 및 충남도 계룡시의 지역통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자체의 특성통계개발과 개발된 지역통계에 대한 조사기획 및 분석 등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특별기고 】

2007년 지역통계 생산을 결산하며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대전충남지방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통계 인프라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개발 및 지원 사업을 수행

하였다. 특히, 지방화시대 이후 부쩍 늘어난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여 부서 내 지역통계팀을 보강하고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지역통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요구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정에 맞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도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은 물론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 조직 및 인력이 모두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반적인 행정, 기획과 운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한 통계개발에 대한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때이다.

2007년도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 개발실적을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중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사회통계조사 등 4종의 지역통계를 개발 지원하였으며 또한, “대덕특구 경기전망조사”를 개발하고 충남 홍성군의 축산농가의 소득 통계 시험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2008년도에는 사회통계조사를 대전광역시와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 중

이고,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소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실용주의”를 주창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해부터는 국가 정책의 선진화는 물론 실사구시 이념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통계가 정책을 좌우하는 국가 통계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해 본다.

따라서, 지역통계가 발전해야 국가통계가 발전하고 국가의 선진화가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내년에도 대전충남지역 통계개발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독자기고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2007년 지역통계 생산을 결산하며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통계 인프라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통계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지방화시대 이후 부쩍 늘어난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해 부서 내 지역통계팀을 보강하고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통계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요구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

로는 실정에 맞는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도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은 물론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 조직 및 인력이 모두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반적인 행정, 기획과 운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한 통계 개발에 대한 전문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때이다.

2007년도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지역통계

개발 실적을 보면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중구와 충남도 계룡시의 사회통계조사 등 4종의 지역통계를 개발, 지원하였으며 대덕특구 경기전망조사'를 개발하고 충남 홍성군의 축산농가의 소득통계 시험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08년도에는 사회통계조사를 대전시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의 중이고, 중소 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소지역통계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실용주의'를 주창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새해부터는 국가 정책의 선진화는 물론 실시구시 이념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통계가 정책을 좌우하는 국가 통계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따라서, 지역통계가 발전해야 국가통계가 발전하고 국가의 선진화가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내년에도 대전충남지역 통계 개발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06

기타

the others. (etc.)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강당서 시무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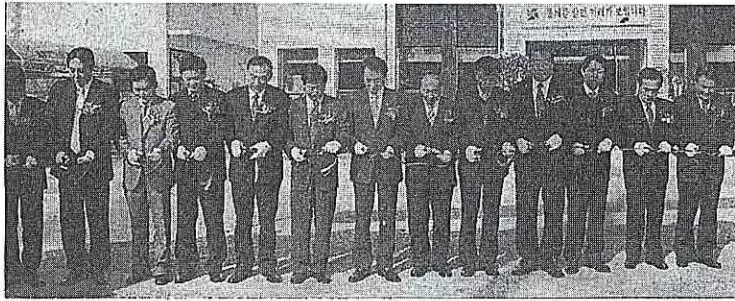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통계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해는 충남통계사무소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으로 승격되어 유성구 사회통계조사 개발을 비롯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성과중심의 업무운영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직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성과사업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해용 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일 청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통계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통계청 서산출장소 준공



지난달 31일 통계청 서산출장소 청사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서산·태안·당진 관할 ... 본격 업무 돌입

통계청 서산출장소는 지난달 31일 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구 서산시 오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서산출장소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갖춘 본관동 468.18㎡(140평)과 숙소의 별관동 147.60㎡(45평)로 나뉘었으며, 앞으로 서산, 태안, 당진 등 3개 시·군을 관할지역으로 삼아 고용과 농가, 경제수산에 걸쳐 통계 업무를 보게 된다.

이날 준공 기념식에서 ㈜KG종합

건설 백봉주 대표이사와 ㈜태양건설사무소 정하균, 서산출장소 강하구 직무대리가 청사 준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김대유 통계청장은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은 서해안 시대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통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준공을 계기로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이 지역의 빈틈없는 통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대전충남통계청 서산출장소 신설 서부권 31종 통계자료 처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지방청장 임명선)은 서산시 오남동에 서산출장소 신청사를 마련하고 김대유 통계청장, 유상곤 서산시 부시장 등 유관기관장 및 초청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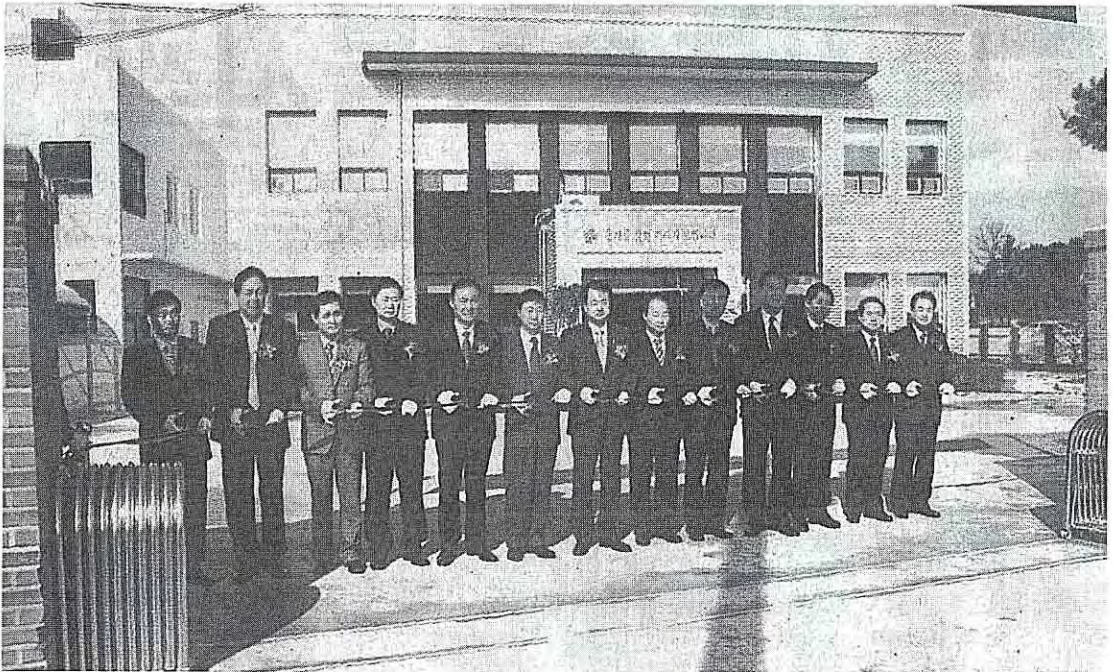
새로 문을 연 신청사는 대지 1,012㎡에 본관동 462.9㎡, 별관동 147.6㎡의 2층 건물로 본관동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위치했고 별관동은 비연고지 근무직원을 위한 직원숙소 등이 있다.

신청사는 총 4억 5천 2백만원

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투입 2006년 9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했다.

한편 서산출장소는 1975년 8월 서산군청에서 복무위탁으로 국가통계조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998년 7월 1일자로 서산출장소로 신설된 이후 충남 서부권인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을 담당하면서 소비자물가조사 등 31종의 국가통계자료 생산 및 처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현준기자



통계청 신청사 준공

임명선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은 지난 31일 서산출장소 청사신축(서산시 오남동 305-3) 준공식 행사를 김대유 통계청장, 유상곤 서산시부시장, 서덕철 태안군부군수, 윤대섭 당진군 부군수, 황수철 충남도법무통계담당관 등 유관기관 및 초청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박해용 기자



'통계야, 놀자!'

어린이통계교실 참가자 모집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오는 27일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14일까지 모집한다.

통계교육원과 함께 여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고, 통계퀴즈나 통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통계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chungnam.nso.go.kr>), 전자우편(chungnam@nso.go.kr) 및 전화(042-534-9304)로 하면 된다.

/김진환 기자

어린이통계교실 참가생 모집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27일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통계교육원과 함께 여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고, 통계퀴즈나 통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통계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chungnam.nso.go.kr>), 전자우편(chungnam@nso.go.kr) 및 전화(042-534-9304)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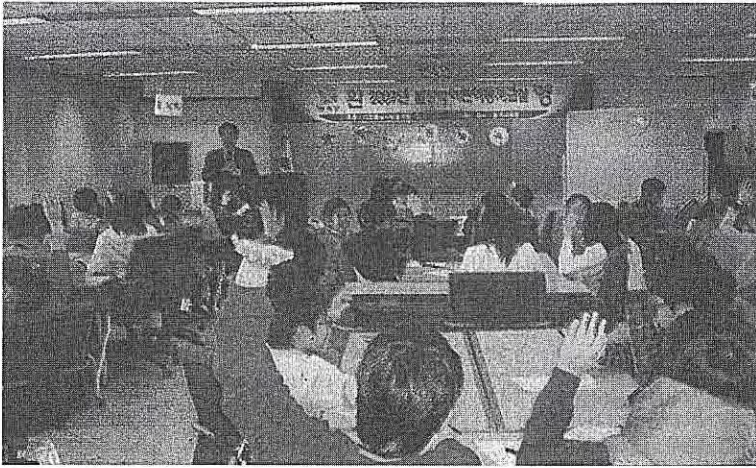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오는 27일 통계교육원에서 열리는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교 5~6학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

고, 통계퀴즈나 통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통계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신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chungnam.nso.go.kr>), 전자우편(chungnam@nso.go.kr) 및 전화(042-534-9304)로 하면 된다. /강현준기자



봄방학 어린이 통계교실 '인기'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섭)은 27일 초등학교 5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봄방학 어린이 통계교실을 개최했다.

/김환일 기자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섭)은 27일 초등학교 5~6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했다.

통계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통계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구, 소득,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통계의 이해와 활용법, 통계만들기, PC를 이용한 통계자료 찾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특별 통계퀴즈대회를 통해 풍성한 상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7일 초등학교 5~6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개최하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지난 1998년부터 봄·여름방학을 이용해 어린이통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7월경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해용 기자



통계청 어린이 통계교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7일 초등학교 5-6학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했다.

대전투데이 | 3월 23일 18면
서산출장소 김은수 소장 임명

**통계청 서산 출장소
김은수 소장 임명**

대전 충남 지방통계청 (지청장 임명선)은 서산출장소장으로 김은수 소장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은수 소장은 3개 군(서산시·태안군·당진군)을 관할지역으로 3개팀(경제수산팀, 농가팀, 고용팀)의 통계조사를 지도 관리 감독하게 된다. / 김환일 기자



중도일보 | 3월 23일 22면
서산출장소 김은수 소장 임명

통계청 서산출장소장 김은수씨

대전 충남 지방통계청은 22일 서산출장소장에 김은수(52·사진) 농수산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은수 소장은 서산과 태안, 당진 등 3개 지역을 관할하며 경제수산팀, 농가팀, 고용팀 3개 팀의 통계조사를 지도 관리 감독한다. / 윤희진 기자 heejiny@



大田日報 | 3월 26일 18면
서산출장소 김은수 소장 임명

**서산출장소장 김은수씨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서산출장소장으로 김은수 소장(사진)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김은수 소장은 3개 군(서산시·태안군·당진군)을 관할지역으로 3개팀(경제수산팀, 농가팀, 고용팀)의 통계조사를 지도·관리·감독하게 된다. <구재숙 기자>



■ 대전·충남통계청 올해 사업계획 발표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에 역량 집중키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개발·지원 확대, 조사관리시스템 개선, 대국민 통계정보활용 교육 등 대전충남지역의 통계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임명선 청장은 2010년까지 책임운영기관 운영으로 지역의 통계인프라 메카로 만든다는 내용의 '2007년도 성과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대전략과 14대 핵심사업'을 13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목적에 맞게 성과실적 및 혁신역량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기성과기술서를 통한 외부평가, 해외배낭여행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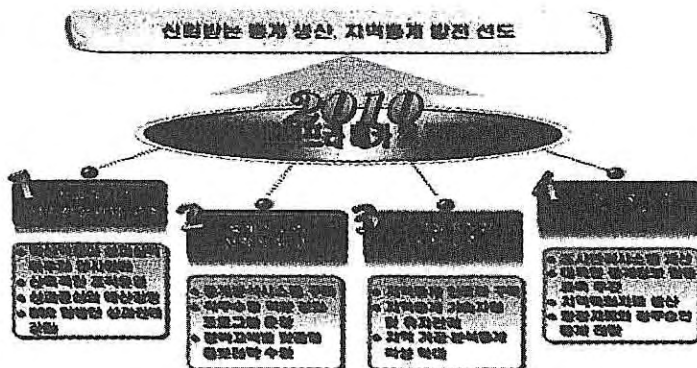
또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우선 Crew leader system을 정착시켜 자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면접 및 설득기법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인터넷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 청장은 △홍성군 축산통계, 중구 대덕구 사회통계 개발 △유성구·계룡시 사회통계 조사표 및 표본설계 지원 등 지역통계인프라 메카 구축의 핵심전략인 지역통계 작성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고객 통계활용 교육,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광공업통계 및 경기전망보고서 작성, 대전시 및 충남도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의 전환을 기관특화사업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마지막 전략이다.

한편 임 청장은 "요즘 대전충남지역의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므로 올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백해용기자





대전 통계 인프라 메카 시동

지방통계청 지역통계 개발 등 사업계획 발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대전지역을 통계 인프라 메카로 만들기로 선포했다.

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개발과 지원 확대, 조사관리시스템 개선, 대국민 통계정보활용 교육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성과사업계획을 13일 발표했다.

모두 4대 전략과 14대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계획서에는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 목적에 맞게 지방통계청을 성과실적

및 혁신역량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 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응답자 초청간담회와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등 정책고객별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고객 통계활용 교육과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업통계 및 경기전망보고서 작성, 대전시 및 충남도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의 전환을 기관특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임명선 청장은 “요즘 대전충남지역의 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통계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올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통계청은 책임운영기관을 6년간 운영해 오면서 IT조사기법 도입 및 확대를 통한 통계품질 향상 등 지역 가공·분석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임호범 기자



지역통계 인프라 구축 본격화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13일 올해 성과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역통계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개발지원 확대, 조사관리시스템 개선, 대국민 통계정보활용 교육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목적에 맞는 책임행정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기성과기술서를 통한 외부평가, 성과중심의 조직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통계·고객서비스 부문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T/F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자체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면접 및 설득기법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인터넷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

계학습지, 100시간 학습 등의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도 이미 설계해 놓은 상태. 임명선 지방청장은 “정책고객 통계활용 교육,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업통계 및 경기전망보고서 작성,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행정자료의 정부승인통계로의 전환을 기관특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숙 기자〉

어린이 통계체험 '눈길'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어린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정부체형행사의 일환으로 직원과 통계응답자 자녀 3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통계 체험' 행사를 지난 4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통계역군이 될 어린이들에게 통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통계청 업무 소개, 청사 견학, 통계퀴즈대회로 진행됐다.

또, 직장과 가정을 연계한 '행복한 직장만들기'의 일환으로

아빠?엄마와 조사원증 만들기, 가족사진 촬영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학교 끝나고 항상 혼자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어서 기쁘다"며 시종일관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해용 기자



6월9일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

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6월 9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시상은 교육부장관상(대상:전국1명) 장학금 100만원, 통계청장상(금상:전국2명) 장학금 50만원, 16개 시·도별 1명 은상 및 장학금 30만원, 동상, 장려상, 단체상 등이 수여된다.

지원서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통계경진대회 사이트(<http://niceday.nso.go.kr>),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통계의 생활화 위해 마련

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내달 9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커나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 아래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학생통계경진대회는 중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통계 자료를 분류·집계·분석하게 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과 정보도출 능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중학생들에게 통계마인드를 고취시켜 통계의 생활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통계경

진대회 사이트(<http://niceday.nso.go.kr>),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학생들의 통계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출제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분석력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대상:전국1명) 장학금 100만원, 통계청장상(금상:전국2명) 장학금 50만원, 16개 시·도별 1명 은상 및 장학금 30만원, 동상, 장려상, 단체상 등이 수여된다.

대전충남지역 중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지원서류로는 지원서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용희 기자

경/제/단/신

전국 중학생통계경진대회 참가 접수

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오는 6월 9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 아래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학생통계경진대회는 중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통계자료를 분류 집계 분석하게 함으로써 논리적 사

고력과 정보 도출 능력을 증진함과 아울러 중학생들에게 통계마인드를 고취시켜 통계의 생활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다.

참가를 원하는 중학생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통계경진대회 사이트(<http://niceday.nso.go.kr>),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15월 11일 5면

중학생통계경진대회

내달 중학생 통계경진대회

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커나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 아래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내달 9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통계경진대회 사이트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학생들의 통계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출제방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대상 전국1명) 장학금 100만원, 통계청장상(금상 전국2명) 장학금 50만원, 16개 시·도별 1명 은상 및 장학금 30만원, 동상, 장려상, 단체상 등이 수여된다.

지원서류로는 지원서 1부, 반명함판(3cm x 4cm)사진 2매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충청투데이

15월 11일 9면

중학생통계경진대회

내달 9일 중학생 통계대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내달 9일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중학생통계경진대회는 중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통계자료를 분류·집계·분석하게 해 논리적 사고력과 정보 도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통계경진대회 사이트(<http://niceday.nso.go.kr>)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대상 1명) 장학금 100만 원, 통계청장상(금상 2명) 장학금 50만 원, 16개 시·도별 1명 은상 및 장학금 30만 원, 동상, 장려상, 단체상 등이 수여된다.

지원서류로는 지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기획과(042-534-9304)로 문의하면 된다.

/임호범 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낙도 통계응답자 간담회

지난 12일 장고도주민 20여명 참석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12일 충남 보령시 장고도에서 장고도와 고대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년간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한 통계응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낙도 통계응답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2년부터 어가경

제조사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되어 2007년 표본개편으로 통계조사 완료되는 시점에서 임명선 청장의 감사인사와 응답자 대표의 환영사와 함께 어가경제조사 담당자 15여명도 함께 참석하여 응답자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과 만찬으로 진행됐다.

김진환 기자



대전통계청, 낙도 통계응답자 간담회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최근 충남 보령시 장고도에서 장고도와 고대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년간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한 통계응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낙도 통계응답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2년부터 어가경제조사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돼 2007년 표본개편으로 통계조사 완료되는 시점에서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과 만찬으로 진행됐다.

/강현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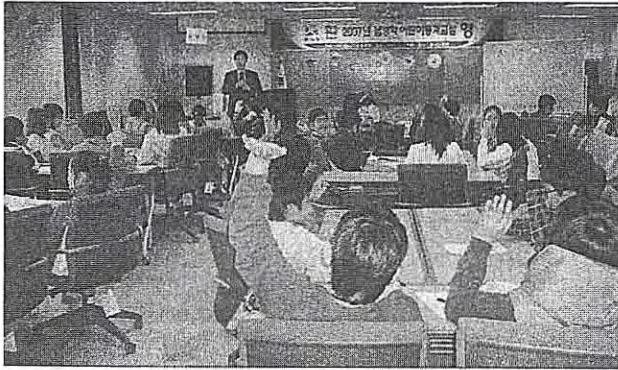


대전.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 혁신성과 연찬회



↑ 대전.지방통계청, 책임운영기관 혁신성과 연찬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8일 유성구소재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올해 책임운영기관 성과사업 추진방향, 성과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 책임운영기관 혁신성과 연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의 날(9월 1일)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9회 전국 어린이 통계 경진대회'를 7월 14일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4·5·6학년 초등학생들은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나 통계경진대회사이트(niceday.ns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달 전국 어린이통계경진대회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내달 14일 통계청 주관 제9회 전국 어린이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통계를 활용해 쉽게 친근해지도록 하고 논리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본 대회는 매년 9000명 이상 참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지혜를 겨루는 대규모 경진대회이다.

올 경진대회는 응시한 모든 학생의 부모에게 채점위원 선생님이 직접 자녀의 시험성적 분석과 학습지도 요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회 처음으로 사후까지 진단·관리해주는 이번 대회는 학생과 부모,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나 통계경진대회사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신청하거나 대전지방통계청과 천안·보령·서산 출장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회 성적 우수자에게는 통계청장상 및 장학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오는 8월 31일 제13회 통계의 날 기념식 때 있을 예정이다. /박해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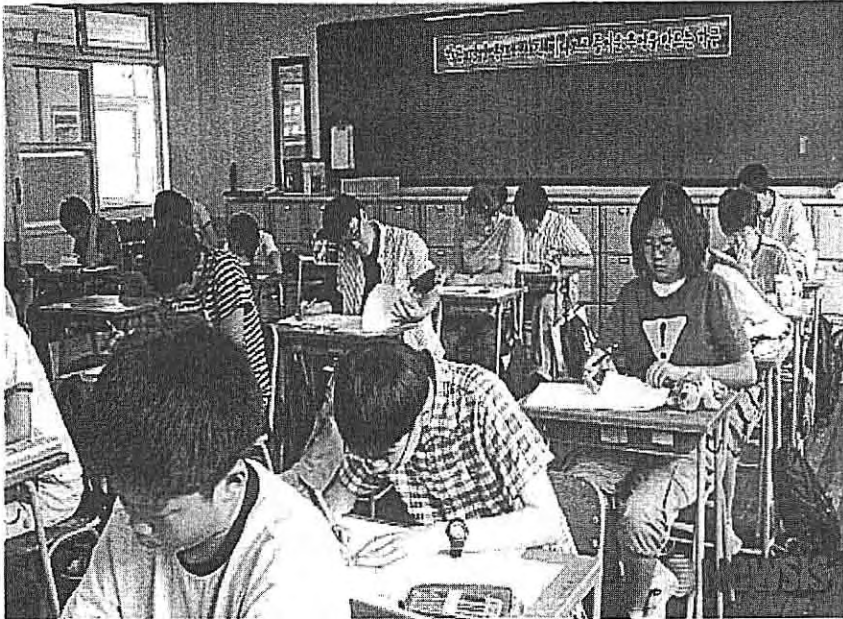
어린이통계경진대회 7월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오는 9월 1일 통계의 날을 기념해 7월 14일 통계청 주관으로 '제9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통계를 활용해 지혜

를 겨루는 행사로 참가를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나 통계경진대회사이트(niceday.ns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통계시험 만만치 않네"...제5회 전국 중학생통계경진대회 '성료'



↑ "통계시험 만만치 않네"...제5회 전국 중학생통계경진대회 '성료'

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오는 9월 1일 '제13회 통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9일 대전 월평중학교에서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통계청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관련기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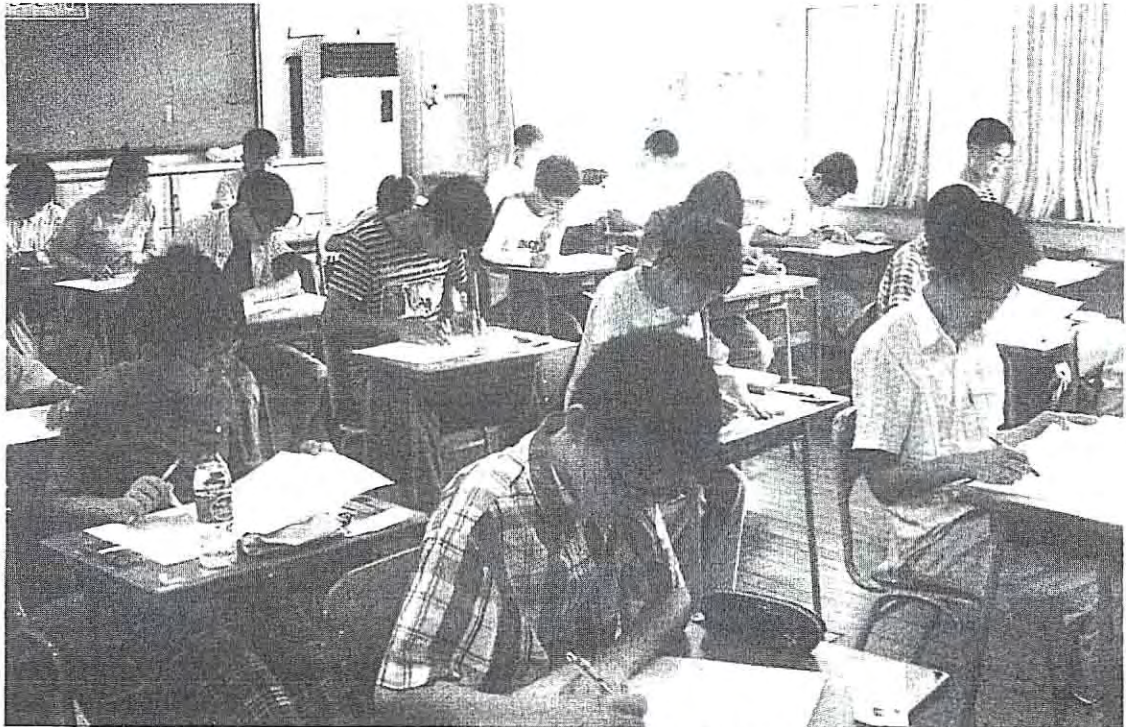
제5회 전국 통계경진대회 성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제13회 통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커나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최근 대전 월평중학교에서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주역

으로 커나갈 중학생들의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증진과 아울러 중학생들에게 통계마인드를 고취시켜 통계생활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측정을 위해 통계자료의 정리, 분석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됐다.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는 대전시·충남도 지역의 84개 중학교에서 56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번 경진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8월 31일 제13회 통계의날 기념식 때 수여된다. /박해용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 실시

교육인적 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후원으로 대전 월평중학교에서 '제5회 전국 중학생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지역의 84개 중학교에서 56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현준기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오는 9월 1일 제13회 통계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

대전.충남통계청, 中길림성 통계국 초청 국제통계 협력회의



↑ 대전.충남지방통계청, 中길림성 통계국 초청 국제통계 협력회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4~30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통계국 이열(李悅)부국장 등 7명을 초청, 지방통계청 단독으로 양국 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양 기관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체계구축과 지역통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중국길림성 통계국 방문단의 주요 일정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양자 간 국제협력회의(고용통계 조사 조사기법, 최근 고용동향 등), 통계청.제주통계사무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문, 산업시찰(현대자동차아산공장), 문화탐방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상호교류는 2004년 8월16일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했으며 오는8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중국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길림성 통계국을 초청해 양국간 협력회의를 갖는다.

■ 대전·충남통계청

中 길림성 통계국 초청 협력회의

이달 말까지 정보교류·협력체계 구축 등 우호 증진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통계국 이열(李悅)부국장의 7명을 초청해 지방통계청 단독으로 양국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양 기관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체계구축과 지역 통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한 양 기관간의 우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중국길림성 통계국 방문단의 주요 일정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양자간 국제협력회의(고용통계조사 조사기법, 최근 고용동향 등), 통계청·제주통계사무소 및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방문, 산업시찰(현대자동차아산공장),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간의 상호교류는 지난 2004년 8월 16일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했으며, 오는 8월에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중국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해용 기자



중 앙 매 일 | 6월 27일 3면

중국길림성 통계국 국제통계 협력회의



충청투데이 | 7월 13일 12면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대전·충남통계청, 中길림성 통계국 초청 국제통계 협력회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4~30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통계국 이열(李悅)부국장 등 7명을 초청, 지방통계청 단독으로 양국 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양기관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체계구축과 지역통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중국길림성 통계국 방문단의 주요 일정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의 양자 간 국제협력회의(고용통계조사 조사기법, 최근 고용동향 등),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방문, 산업시찰(현대자동차아산공장), 문화탐방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국 간의 상호교류는 2004년 8월 16일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했으며 오는 8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중국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오는 26일에 열릴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들을 18일까지 모집한다.

통계교육원과 함께 여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고, 통계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임호범 기자**



중 앙 매 일 | 7월 13일 3면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여름방학어린이통계교실 참가자 모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오는 18일까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이달 26일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들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통계교육원과 함께 여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고, 통계퀴즈나 통

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통계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chungnam.nso.go.kr>), 전자우편(chungnam@nso.go.kr), 전화(042-534-9304)로 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충청신문 | 7월 13일 5면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여름방학통계교실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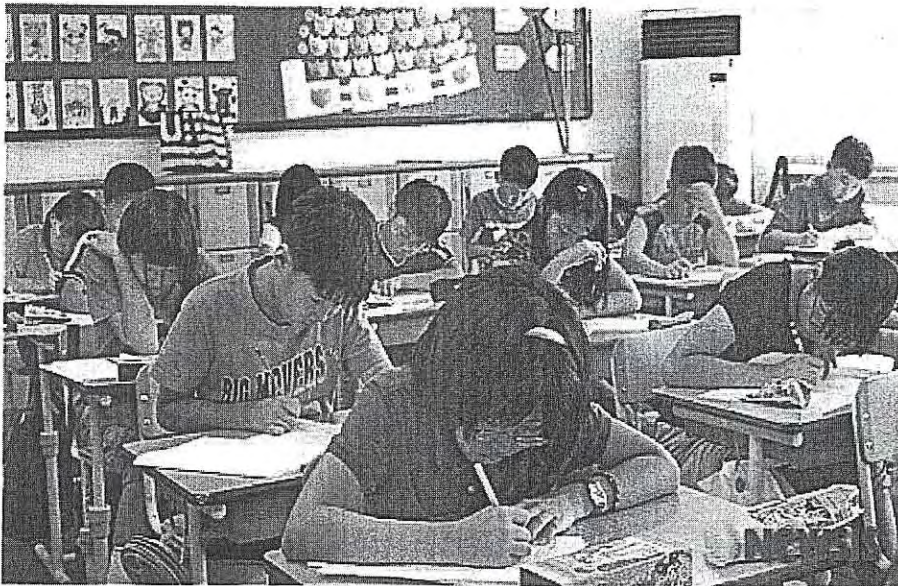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에서는 오는 26일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들을 18일까지 모집한다.

통계교육원과 함께 여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를 같이 찾아보고, 통계퀴즈나 통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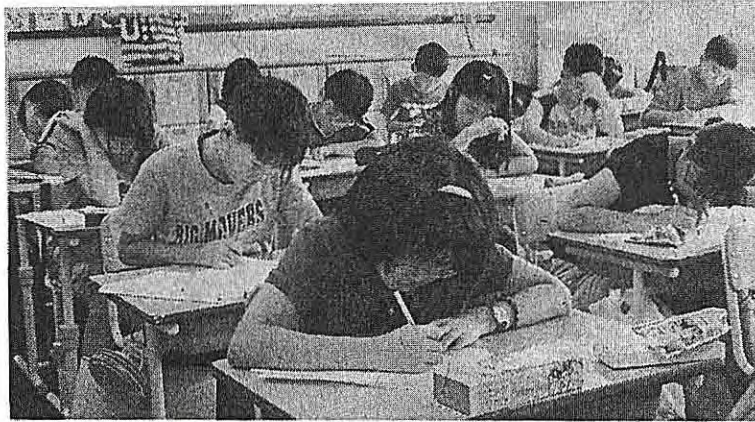
통계에 관심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대전충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chungnam.nso.go.kr>), 전자우편(chungnam@nso.go.kr) 및 전화(042-534-9304)로 하면 된다.

"미래의 통계는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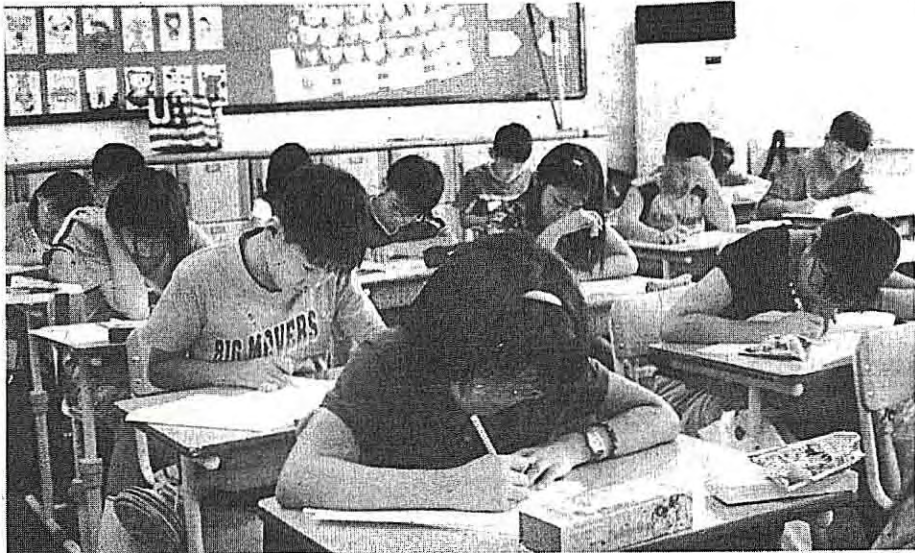


↑ "미래의 통계는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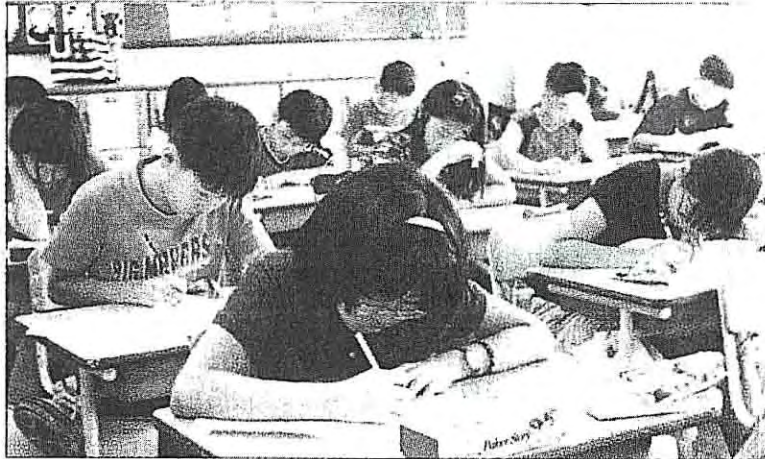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지난 14일 대전 갑천초등학교를 비롯해 천안·보령·서산 등 대전·충남지역 4~6학년 초등학생 9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열었다. (사진=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14일 대전을 비롯해 천안, 보령, 서산 등지에서 4~6학년 초등학생 9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어린이통계경진대회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14일 통계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갑천초등학교에서 4~6학년 초등학생 95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강현준기자



제9회 전국 어린이통계경진대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충남 곳곳에서 4~6학년 가운데 제9회 전국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충남 곳곳에서 4~6학년 초등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953명이 참여한

“일상생활 속 통계와 친해졌어요”

대전·충남통계청, 초등생 5·6학년 대상 통계교실 열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초등학교 5~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어린이 통계교실을 26일 개최했다.

통계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통계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구, 소득,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통계의 이해와 활용법, 통계만들기, PC를 이용한 통계자료 찾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 특별 통계퀴즈대회를 통해 풍성한 상품을 전달하는 등 어



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개최하는 어린이통계교실

은 지난 1998년부터 봄·여름방학을 이용해 매년 2차례 운영하고 있다.

/박해용 기자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에서 놀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 운영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청장장 임명선은 26일 초등학교 5~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했다.

통계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통계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구, 소득,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통계의 이해와 활용법, 통계만들기, PC를 이용한 통계자료 찾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팀별 통계퀴즈대회를 통하여 풍성한 상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개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6일 초등학교 5~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어린이통계교실을 개최했다.

하는 어린이통계교실은 지난 98년 년 2차례 운영하고 있다.

부터 봄·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매

김용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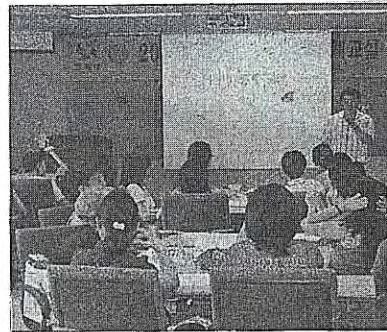
어린이통계교실 성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26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교육원에서 여름방학 어린이 통계교실을 개최했다.

통계교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통계와 친밀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교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구, 소득, 문화, 스포츠 등에 관한 통계의 이해와 활용법, 통계만들기, PC를 이용한 통계자료 찾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팀별 통계퀴즈대회를 통해 풍성한 상품을 전달하는 등 어린이들이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개최하는 어린이통계교실은 1998년부터 봄, 여름방학을 이용해 매년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임호범 기자



인사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과장(전보) ▲기획과장 이영보 ▲경제조사과장 정명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과장 전보

△기획과장 이영보 △경제조사과장 정명자

대전-충남 통계청

◇과장 전보 ▲기획과

장 이영보 ▲경제조사과장 정명자

대전·충남통계청

중국 길림성 통계국 방문

국제통계 협력회의 참석... 통계발전 정보 교류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일 양국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위해 7일간의 일정(9월2일부터 9월8일)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했다.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통계협력 체계구축과 양국간 인적교류를 통한 기관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방문

단은 양국간 국제협력회의(지역통계 작성현황, 월간 및 연간통계조사 개요 등) 참석, 송원시·연변 통계국의 조사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 등에 참여하고 8일 입국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간의 상호교류는 지난 2004년 8월 16일 중국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중국 길림성 통계국에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다녀간 바 있다. / 박해용기자

대전투데이 | 9월 5일 6면

대전·충남통계청, 中 길림성 통계국 방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위해 중국 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통계협력 체계구축과 양국간 인적교류를 통한 기관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방문단은

양국 국제협력회의(지역통계 작성현황, 월간 및 연간통계조사 개요 등) 참석, 송원시·연변 통계국의 조사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 등에 참여하고 오는 8일 입국할 예정이다.

양국간의 상호교류는 2004년 8월 16일 중국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중국 길림성 통계국에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다녀간 바 있다. 노경래 기자



대전 · 충남통계청

中 길림성 통계국 방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위해 중국 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통계협력 체계구축과 양국간 인적교류를 통한 기관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방문단은 양국 국제협력회의(지역통계 작성현황, 월간 및 연간통계조사 개요 등) 참석, 송원시·연변 통계국의 조사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 등에 참여하고 오는 8일 입국할 예정이다



대전·충남통계청, 中 길림성 통계국 방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국제통계 협력회의를 위해 중국 길림성 통계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지방통계기관간의 국제통계 협력회의는 통계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등 긴밀한 통계협력 체계구축과 양국간 인적교류를 통한 기관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방문단은 양국 국제협력회의(지역통계 작성현황, 월간 및 연간통계조사 개요 등) 참석, 송원시·연변 통계국의 조사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 등에 참여하고 오는 8일 입국할 예정이다.

양국간의 상호교류는 2004년 8월16일 중국 길림성 통계국과의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매년 교환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중국 길림성 통계국에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다녀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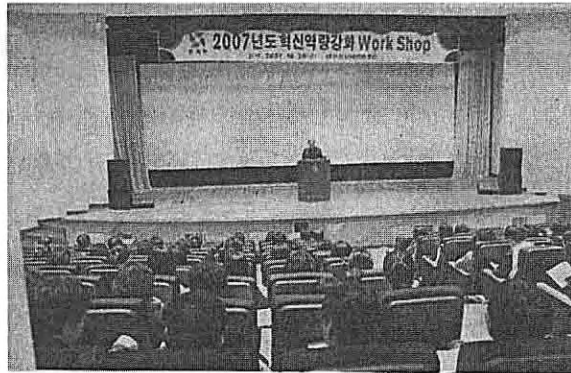
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

대전·충남 통계청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통계교육원에서 전직원 16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책임운영기관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7년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중간보고와 부경대학교 이남국 교수의 책임운영기관과 성과관리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축구, 줄다리기, 명랑운동회 등의 추계 체육행사가 이어져 직원 간의 동료애를 확인하고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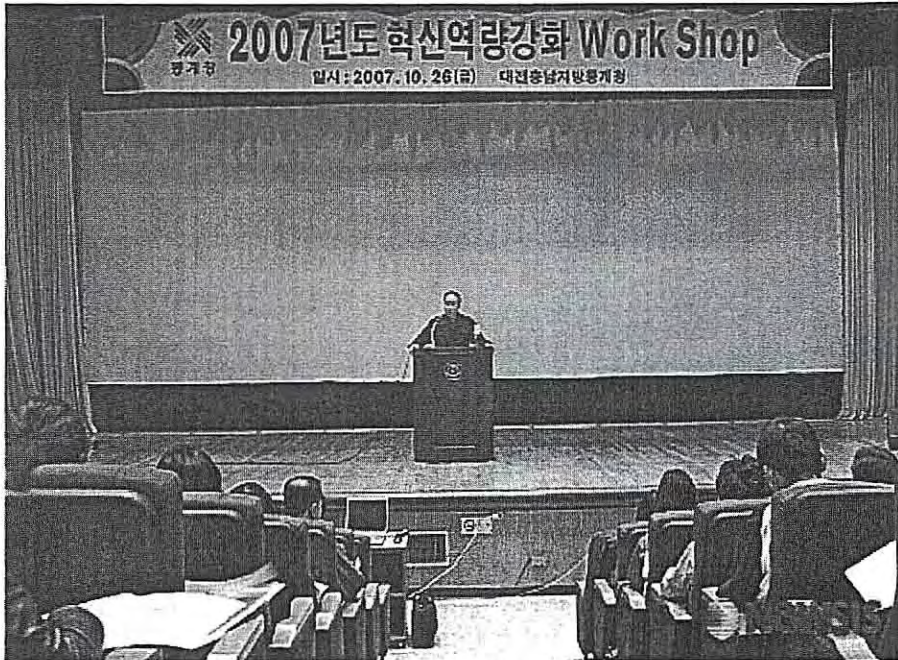
충청투데이 10월 29일 14면



대전·충남통계청,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지난 26일 통계교육원(유성구 소재)에서 전 직원 16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책임운영기관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경래 기자

대전·충남통계청, 책임운영기관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책임운영기관 혁신역량강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26일 통계교육원(유성구 소재)에서 전 직원 16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책임운영기관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중간보고와 부경대학교 이남국 교수의 '책임운영기관과 성과관리'의 특강이 진행됐고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이 됐다.

또 오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축구, 줄다리기, 명랑운동회 등의 추계 체육행사가 이어져 직원 간의 동료애를 확인,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통계 쉽고 편하게 활용하자”

대전·충남통계청, 충남교육청 직원 대상 ‘통계정보활용교육’ 가져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5일 충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통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고 편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차원으로 통계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5일 충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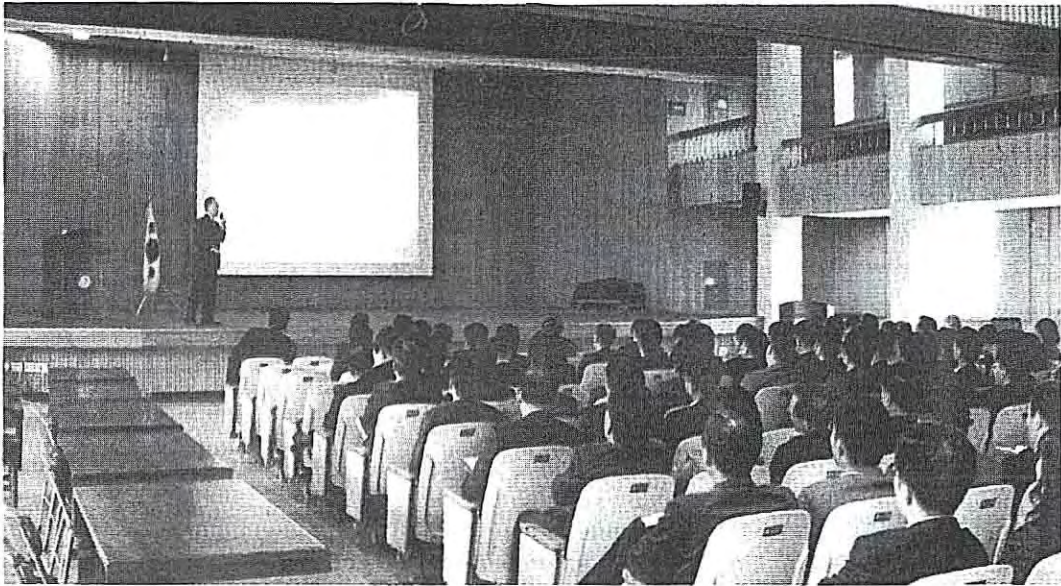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충남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번째 사업으로 ‘교육사랑통계사랑소식지 발간’에 이은 것이다.

통계에 대한 관심과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책임운영기관 특성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통계를 활용한 성공사례, 통계정보 활용방법 소개, KOSIS(국가통계포털시스템) 이용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감사인 임경철 팀장(대

전·충남지방통계청 기획과)은 “직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위해 홍보동영상과 통계활용실습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것이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것 같다”며 “이번 교육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통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고 편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계청은 이달 말 중구청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며 향후에는 일반기업, 사회단체로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통계정보 활용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획과 성과관리팀(042-534-9304)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혜용기자



통계정보 활용교육 실시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5일 충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충남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번째 사업으로 '통계를 활용한 성공사례', '통계정보 활용방법 소개', 'KOSIS(국가통계포털시스템) 이용 실습' 등이 이뤄졌다.

/강현준기자

통계활용 제대로 하면 당신도 '대박'



"통계정보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5일 충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통계 정보 활용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번째 사업으로 '교육사랑통계사랑' 소식지 발간에 이은 것이다.

통계에 대한 관심과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에 착안,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책임 운영기관 특성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통계를 활용한 성공사례', '통계정보 활용방법 소개', 'KOSIS(국가통계포털시스템) 이용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강사인 임경철 팀장(대전충남지방통계청 기획과)은 "직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위해 홍보동영상과 통계활용실습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 것이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것 같다"며 "이번 교육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통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쉽고 편하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이달 말 중구청에서도 교육을 시행하며 향후에는 일반기업, 사회단체로까지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정보 활용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기획과 성과관리팀(042-534-9304)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충남통계청, 올해 모범응답사업체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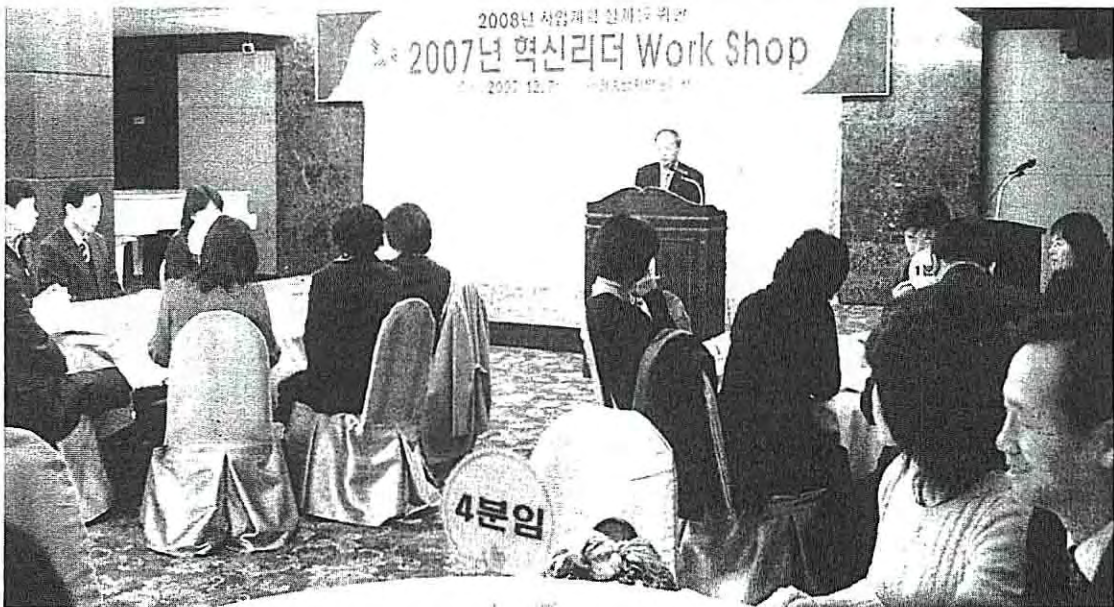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청장 임명선)은 지방청 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모범응답사업체 포상식을 지난 27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통계조사 응답환경을 개선하고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날 세광종합건설(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등 15개의 사업체를 모범응답사업체로 선정해 표창패 등을 수여하는 등 응답사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박해용 기자

세광종합건설(주) 등 15개 업체



대전·충남통계청 “조직 역량 강화에 힘”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지방청 팀장 이상 직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혁신리더 워크숍을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7년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최종 보고와 함께 2008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과 공주대학교 한종희 교수의 책임운영기관과 성과관리 특강으로 이뤄져 개인 및 조직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박해용 기자

태안반도 사상 최악 원유유출

검은 서해안, 봉사 손길 붓물



보령 장고도에 봉사천사 찾아와
이를 이용해 기름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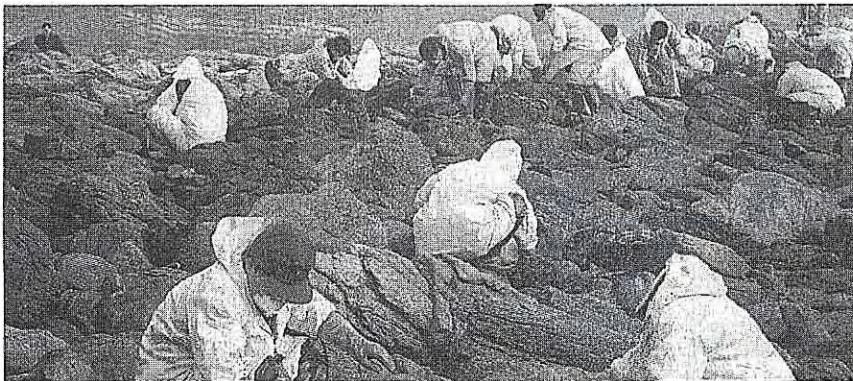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보령출장소 직원 18명도 어가경제 조사
대상지역이자 지매 결연 지역인 보령 장고도에서 경운기와 양동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보령출장소, 장고도에서 자원봉사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9일째인 지난 15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보령출장소 직원 18명도 어가경제조사 대상지역이자 자매결연 지역인 보령 장고도에서 경운기와 양동이를 이용하여 기름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보령 / 황규출 기자



대전충남통계청 봉사 구슬땀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0일 태안군 구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보령 장고도 주민의 요청으로 코팅장갑 1200켤레를 제공했다. 또 태안 및 보령지역 어가경제조사구 피해 어가에는 4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제공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해안어가경제조사구에 지원 펼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임명선 청장을 비롯한 직원 24명은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구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는 한편 보령 장고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코팅장갑 1200켤레(180만원 상당) 제공했다. 또한 태안 및 보령지역 어가경제조사구 피해 어가에는 4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경래 기자

II. 방송 인터뷰

broadcast interview

소비자물가동향 관련 지방청장 인터뷰

◀ANC▶

대전지역의 물가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이삿짐운송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비롯해 일부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unki 기자입니다.

◀END▶

지난달 대전지역의 개인서비스 요금 가운데 인상폭이 두드러진 품목은 이삿짐운송료로 바로 전 달보다 무려 37.4%나 급등했습니다.

대전 문화지구와 가오지구 아파트 입주를 비롯해 교원과 공무원 등의 인사발령 때문으로 특정 일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스탠드업▶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의 오름세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C/G]-----대입학원의 경우 종합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단과반은 6.2%가 올랐고 고입학원도 종합반이 7.4%, 그리고 가정학습지도 8.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C/G]-----이밖에 가사도우미료는 14.3%, 남자학생복 10.7%, 여자학생복은 8.8%가 올랐습니다.

통계당국은 해마다 연초에는 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변수 때문에 자칫 물가 억제 목표치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02381616-임명선 대전충남통계청장)

"금년같이 대선이 있는 해에는 돌발 변수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어서 마음은 불안한 감은 조금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물가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엠비씨뉴스 정unki입니다.



사교육비 실태조사 관련 지방청장 대담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입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CMB 대전방송에 감사드립니다

1 우선 통계청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조사만 시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수행하는 인가요?

-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현재 3개 과 3개 출장소에서 175명의 직원이 국가통계와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관할지역은 대전의 지방청에서는 대전시 5개 구와 충청남도의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군 등 10개 시·군·구를, 천안출장소에서는 천안, 아산, 예산의 3개 시군을, 보령출장소에서는 보령, 서천, 부여, 홍성, 청양의 5개 시·군을, 서산출장소는 서산, 당진, 태안의 3개 시·군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5개구와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지역통계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통계조사업무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사업체 통계조사 부분]으로 소비자물가조사 등 10개 종류의 통계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건설업통계조사 등 6개 종류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가구부문 통계조사]로는 실업자, 취업자등을 파악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또 가계조사 등 11개 종류에 대하여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사회통계조사 등 6개 종류에 대하여 연 1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지방청은 2001년부터 공직사회에 기업의 원리를 도입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7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도 수상한 바 있음

2 통계청의 자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분야의 시대 흐름을알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대전·충남지역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2007년도 현재 대전과 충남의 지역통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시·도 기본통계 등 대전시는 8종 충청남도는 5종의 통계가 있음.
- 그중에도 특히, 2006년도에 우리지방청에서 지역통계개발지원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사회통계조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과 금년 6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현상이 정확히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어 유성구와 계룡시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한 점
- 또한, 지자체 의원들이 정확한 실상을 환영 향후 새로운 지역통계개발에 의원들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한 점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 올해에도 대전광역시 중구와 대덕구에서 지난 6월20일부터 사회통계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도 축산농가소득통계 조사를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이미 개발된 지역통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은 물론 새로운 지역통계 개발 시에는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및 결과분석 등 조사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아울러 시험조사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㉓ 한국은 고질적으로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요?



■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규모는 2003년 교육 개발원에서 조사한 13조 6,000억원과 2006년 한나라당의 사교육비 줄이기 TF 팀에서는 28조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그동안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은 공교육의 약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저하, 지나친 가계부담, 그리고 심야까지 계속되는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의 저해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통계청에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요청하였음
- 이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매년 7월과 10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통계청은 7월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전국의 272개 초·중·고등학교의 약 3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게되며 그중 대전·충남지역은 23개 학교 2,550명을 대상으로
- 개인교습, 그룹과외 및 학원 수강등의 사교육 유형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파악하게 되며 조사표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 참고로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교육비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edu.nso.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 본 사교육비 실태 조사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정확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주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요?

-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통계 대박상품” “황금알을 낳는 통계” 등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이에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대전과 충남지역의 경제와사회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이용이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음,
- 또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을 만족시키고 또 신뢰 받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 언제라도 필요하신 통계자료를 요청하시면성심껏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변화상 관련 지방청장 대담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장 임명선입니다.

1 오늘 뉴스에서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대전·충남지역의 지난 10년간 경제사회변화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변화상은 언제부터 작성하셨나요?

- 2001년 우리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의 역할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지역통계센터로서의 저희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민들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통계자료인 경제사회변화상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지역 유관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경제·사회 관련 지역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한 통계로 올해로 7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2 경제사회변화상 통계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경제사회변화상은 크게 1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면적과 기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토부문,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출생·사망·혼인·이혼·인구노령화로 구성된 인구부문이 있습니다.
- 또한 매월 발표되고 있는 자료를 정리한 고용부문, 농·어촌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어업부문 그리고 에너지부문이 있습니다.
- 교육·보건부문, 사회·문화·관광부문도 수록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업체부문, 건설·운수, 지역내총생산(GRDP), 금융, 물가, 수출·수입부문도 작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뿐만이 아니라 기업 운영시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 지난 1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인구부문이 아닐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 대전의 인구는 10년 전에 비하여 약 18만명이 증가한 148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유성구가 78.3%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인구수로는 서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남은 10년 전에 비하여 약 12만 명이 증가한 2백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03년부터 출장소로 승격된 계룡시가 10년 전 대비 105.5%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반면, 청양군이 24.4%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④ 요즘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역의 현황은 어떠한가요?

- 1일 출생아수는 10년 전 대비 대전은 57명에서 39명으로 18명 감소하였고, 충남은 64명에서 51명으로 1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출산률이 확실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는 10년 전 대비 대전 2.5%p, 충남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에 따르면 대전은 2006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2년은 14.7%로 고령사회로, 대전의 경우 2028년은 20.0%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충남은 10년 전에도 10.3%로 이미 고령화 사회였으며 2006년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3년은 20.4%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어 대전보다는 확실히 노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⑤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GRDP(지역내총생산)가 하나의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지역의 GRDP는 어떠한가요?

- 지역내총생산(GRDP)은 10년 전 대비 대전 95.0%, 충남 17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대비 구성비를 보면 대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반하여 충남은 4.2%에서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천안·아산지역의 대규모 제조업체의 유입과 서산 대산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6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사고 발생건수의 감소와 영화관객수의 급증이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10년 전 대비 대전은 12.7%, 충남은 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대전 77.4%, 충남 98.3%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정립,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노력으로 많이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영화관객수는 10년 전 대비 대전은 557.6%, 충남은 무려 979.7%로 대폭 증가하여 물론 영화관객수만으로 단편 지을 순 없지만 문화생활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서 대전지역이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에 비하여 이 지역의 연구개발부문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연구기관 수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설립 증가로 인하여 10년전 대비 대전은 324.1%로 4배, 연구원수 역시 대전 105.0%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도 10년전 대비 대전은 8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 보면 대전이 약 1조 4천억원 증가하여 첨단기술 과학도시로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8 지역에 이렇게 많은 통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 맞춤형 통계도 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에서는 2005년 충청남도 태안군의 사회통계 개발을 처음 시작으로 2006년도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청남도 계룡시의 사회통계조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현상이 정확히 파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어 유성구, 계룡시 등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대전광역시 중구와 대덕구의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도 축산농가 소득통계조사를 금년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리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은 이미 개발된 지역통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은 물론 새로운 지역통계 개발시에는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및 결과분석등 조사전반에 대한 기술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지역주민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근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통계 대박상품', '황금알을 낳는 통계' 등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지방통계청은 대전과 충남지역의경제와 사회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이용이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또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지역통계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을 만족시키고 신뢰받는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운영기관 2007년

우리는 이렇게 홍보하였습니다

발행처	대전충남지방통계청
발행인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임명선
기획	기획과 성과관리팀
발행일	2007년 12월